

연구보고 2011-17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문무경 장혜진 김혜원

머 리 말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잠재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모국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확대, 방문취업제도 정비,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통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재외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외동포를 하나의 소중한 민족자산으로 여기고,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를 향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관련 연구는 주로 재외동포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에 관한 현황과 정보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외거주 다문화가정의 양육가치관과 실태 파악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내 다문화가정의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즉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베트남과 고려인 후손이 다수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하였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하에 현지 유치원과 보육시설 방문 관찰 및 교사 면담과 재외동포 가정 부모들과의 심층 면담 및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가 재외동포의 취학 전 자녀양육 가치관 및 실태에 관한 풍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 육아지원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 해당 출신국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재외동포 영유아와 가정에 대한 일회적인 실태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속연구와 지원 사업이 수행되어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의 기본교육권 보장 및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한국학교, 사이공한글학교 및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교육원, 세종한글학교를 비롯하여 현지의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외동포의 수나 모국에 대한 참여도가 증가하면서 재외동포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 및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 유형에 따른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 영유아를 육성,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재외동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파악함.
 - 재외동포의 개념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재외동포교육 및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검토함.
- 우리나라 재외동포 지원정책 및 주요 사업 현황 검토·분석함.
 - 재외동포교육 관련법과 지원체계를 알아보고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정책과 주요 사업을 검토함.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육아지원정책을 파악함.
 - 국가별 육아지원정책과 육아지원기관의 유형 및 현황 관련 자료를 수집함.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거주 재외동포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비교·분석함.
 - 부모 대상 설문과 면담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를 분

석하여 국가별, 집단별로 비교함.

- 육아지원기관 대상 설문 및 면담 결과를 토대로 재외동포 영유아 교육 실태를 파악함.
- 재외동포 가정의 육아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함.
 - 교육 기회의 확대, 육아지원기관의 질 향상,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재외동포 영유아 대상 연구 강화를 중심으로 제안함.

다.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함.
 -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함.
- 재외동포 영유아가 이용하는 현지의 육아지원기관(베트남 총 9개 기관, 우즈베키스탄 총 5개 기관)을 방문하여 재외동포 영유아의 교육 현장과 재외동포 영유아의 기관 생활 및 활동을 관찰함.
 -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사립한인육아지원기관(한국교육원 내 유치원 포함), 현지유치원, 주말한글학교 등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교육 실태를 조사함.
-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 및 교사를 심층 면담함.
 -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 35명 대상으로 현지 교육 및 양육 현황과 요구 사항에 대해 심층 면담함.
 - 양쪽 부모가 한국인 가정뿐만 아니라 한베가정(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로 구성)과 한우가정(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어머니로 구성) 학부모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가정을 포함함.
 - 한국학교 및 사립한인유치원, 현지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15명 대상으로 교육 여건 및 정책적 요구에 대해 심층 면담함.

-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 및 육아지원기관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재외동포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베트남 525명, 우즈베키스탄 509명으로 총 1,034명 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내용은 가족 구성, 자녀에 대한 정보, 언어 사용, 양육 가치관, 양육 실제, 아버지의 육아참여, 육아지원기관 이용, 부모교육, 자녀의 정체성, 정부지원에 대한 경험과 요구 등을 포함함.
 -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실태를 현지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가정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현지 가정을 설문대상에 포함함.
 - 육아지원기관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함.
 - 베트남 11개, 우즈베키스탄 8개 기관, 총 19개 기관이 참여함.
 - 설문 내용은 기본적인 시설환경, 영유아 및 교직원 현황, 기관운영 철학, 프로그램, 재외동포 영유아의 발달상태 및 기관적응 실태, 지원정책 관련 요구 등을 포함함.
-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 학계전문가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담당 공무원, 지원 사업 담당자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방향 설정, 설문조사 내용과 방법, 절차, 연구결과 분석에 따른 지원정책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2. 이론적 배경

가. 재외동포의 현황

- 2011년 재외동포는 726만 8,771명으로 90%가 중국,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다수의 재외동포가 현지 체류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경우, 체류자 중심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자를 가진 재외동포는 거의 없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체류자보다는 거주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중심으로 재외동포가 형성되어 있음.

- 한배, 한우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으로의 귀국 의사가 강한 편임.
- 재외동포가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재외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의 정규과정을 가르치는 한국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한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기관, 재외동포가 자율적으로 주말에 운영하는 한글학교, 현지 학교로 나뉨.
-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재외동포 교육기관은 지나치게 규모가 작으며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나. 재외동포 지원정책과 사업 현황

- 재외동포교육 관련법 및 지원체계
 -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어 재외동포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함.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한국학교 유치원 병설 운영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재외동포교육의 지원체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으로 나뉨. 국내의 재외동포교육 관련기관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로 구분되며, 현지교육기관으로는 크게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로 구분됨.
-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전년도 한국학교 지원 예산 523억에 비해 2011년도 예산은 423억 가량으로 감소하여 재외국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이 축소되었음.
- 재외동포 지원정책 및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재외동포 관련 정책영역은 보호, 지원, 교육·문화, 고용, 법적지위 등 5개 영역으로 분류되며, 정책 주요 추진방향은 모국과 동포 사회 간 호혜적 발전으로 관계 증진, 네트워크 활성화,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및 교육·문화교육교류 확대로 구분될 수 있음.
 - 재외동포의 주요 사업들은 자녀양육, 자녀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됨.

다. 선행연구

-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어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재외동포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제반 연구가 미흡한 수준임.
-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법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한배가정과 한우가정의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육의 중요성 지적됨.
-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인 2, 3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지역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62.4%가 한국은 조상의 나라라고 인식하였으며, 한국을 조국이나 모국으로 응답한 사람은 5.3%에 그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짐을 지적함.
- 재외동포 양육 및 교육 관련 연구들은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재외동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가와 지역의 현지 사정 및 조건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함. 과건공무원의 법적 지위 강화 및 국가차원의 재정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요구도가 있음.

3. 재외동포 거주국의 육아지원 정책과 현황

가. 베트남

- 베트남의 육아지원 기관은 공립, 민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공립기관 월 평균 \$25, 사립기관 \$75-\$250의 학비를 지불함. 대부분의 학부모는 교육의 질이 높은 사립 육아지원기관을 선호함.
- 취학 전 교육의 형태로 유아원과 유치원이 존재하며, 취학 전 만 5세의 원아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9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임.
- 베트남은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아교육을 산업화·현대화하는 추세이며, 육아지원기관은 매년 증가하며 2011년 현재 12,908개이며 공립은

64.5%, 사립은 35.5%로 나타남. 유아교육은 교육·훈련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관장하고 있음.

- 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학과는 2·3·4년제 사범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으로 나타남. 베트남의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훈련받은 교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임.

나.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지원 기관은 국공립, 민립, 가정시설로 구분되며 정부 및 각 지방 자치제, 사립기관,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취학 전 교육의 형태로 유아원과 유치원이 존재하며 유아교육은 교육부(Ministry of Public Education)의 유아교육 담당부서가 관장하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정부 당국의 유아교육의 관심 저하 및 사립화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은 급속히 감소했으며 2009년 유아 취원율은 26.2%였으며 취약 계층 유아의 취원율은 5%로 나타남.
-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는 20%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과정만 수료한 종사자들이 77%로 집계됨.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9명이나 이는 취학 전 육아지원기관의 수와 유아 취원율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4.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가치관

가. 부모의 자녀 양육관

-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한국에서보다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함.
- 거주한국가정은 한베, 한우, 고려인, 현지가정에 비해 개인적 가치를 선호함.
 - 자녀가 웃어른이나 부모에 대한 존경,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적인 행복이나 자아 존중감을 갖기를 원함.

- 한베가정, 한우가정, 고려인가정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거주한국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보수적인 양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자녀가 버릇없이 행동할 경우 체벌이 필요하거나 자녀 교육 문제에 부모 판단이 중요하다는 데에 가장 많이 동의함.
- 육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가정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았으나,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 한우가정의 경우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은 자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학교 유치원이나 한인유치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우가정이나 한베가정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인유치원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기관을 선택함.
 - 한우가정이나 한베가정은 사립한인유치원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기관을 선택하나 한우가정은 자녀가 한글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다수라 한국유치원을 선호함.
 - 고려인가정은 한글을 배워야한다고는 생각하나, 기관 선택에서는 프로그램이 좋은 러시아유치원을 가장 선호함.

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 전체적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개인적 행복 추구(남을 생각하는 마음,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행복(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보다 높게 나타남.
- 아들, 딸에게 기대하는 학력이나 직업은 한국가정을 제외하고 차이를 보여 딸보다는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음.

다. 자녀의 정체성

-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 한우가정, 고려인가정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함.

-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함.
- 한베가정, 한우가정에서는 부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원하지만 현지 출신 어머니는 베트남인이나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과 현지인으로서의 이중정체성 혹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견이 많았음.
- 고려인가정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의 자녀 정체성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으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선호도 23%에 달함.
-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면 베트남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정서가 더 긍정적임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지에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인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됨.
- 고려인가정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이주 3, 4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및 한국어보다는 현지의 문화나 언어 습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한국어 습득에 대한 열망이 큼.

5.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실태와 요구

가.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실태

- 거주한국가정의 자녀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베, 한우가정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어나 우즈베키스탄어를 배우는 것에 부정적이며,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가 많음. 우즈베키스탄보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더 염려함.
- 현지 거주한국가정이나 한베가정, 한우가정 부모는 전반적인 자녀 양육, 교육면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덜 느낌.
- 단기·장기 체류 후에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가 많

기 때문에 자녀의 대입이나 취직 문제로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교육열은 여전히 높은 편임.

- 베트남에 단기 체류자가 많고, 교육적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되어 있지만 재외동포의 전반적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더 높음.
- 고려인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지만, 한국어 교육보다는 일반적인 학습과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음.
- 한배가정, 한우가정에서는 교육에 관하여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가 한국적 정서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짐.
-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보다 적극적임.
 - 저녁 시간에도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특히, 한배가정이나 한우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음.

나.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관련 요구

- 수업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영유아 건강관리, 특히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함.
 -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재외동포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함.
- 영유아들이 읽을 만한 동화책의 구비와 접근성이나 이용 시간의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편리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원함.
- 부모 교육이나 부모 교육 관련 자료를 강의, 책,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함.
 - 한배가정, 한우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이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아버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한배가정, 한우가정 자녀의 기관 적응을 위한 교육적 관심을 요구함.

다. 육아지원기관의 재외동포 영유아 지도 실태

- 재외동포의 육아지원기관 선정을 보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위계적으로 자녀의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함.
 -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국제학교와 한국학교, 한인유치원을 선택함.
 -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자녀들은 국제학교, 병설유치원(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사립 한인육아지원기관, 베트남 공·사립 육아지원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영어나 베트남어, 예체능 교육을 위해서 부가적인 사교육에 참여함.
 -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국학교가 없고, 사립한인유치원과 주말한글학교가 각 1기관 운영되고 있음. 한국학교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들은 국제학교유치원, 한국유치원, 사립 러시아유치원을 다니면서 주말한글학교에 참여함. 전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어 자녀 교육은 대부분 사립기관과 방과 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
- 대부분 재외동포 영유아의 기관 적용은 보통인 수준이나 가정별로 약간 차이를 보임.
 - 한베가정, 한우가정 자녀의 경우 정서적인 불안정이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 고려인가정의 경우 정서나 의사소통 문제보다는 농촌지역 조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재외동포 영유아 지도관련 요구

- 재외동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현지 육아지원기관의 공통적인 요구는 수업료 지원, 교사 파견, 교직 경력 인정, 현지 교사 연수, 교육·교재 지원임.
 - 특히, 한베가정, 한우가정 영유아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저소득층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비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함.

6. 재외동포 육아지원 방안

가. 정책 방향

- 생애초기부터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의 생애 민족적 유대감 강화와 제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둠.
- 한국 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양육 문화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교육 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과 네트워크를 지원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국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
- 재외동포 영유아 및 가정의 육아지원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여러 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요구함.

나. 세부 정책과제

-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 교육 기회를 확대함.
 - 저소득 재외동포 가정에 교육비 지원 기준 설정 및 지원을 활성화 할 필요 있음.
 -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확대 및 비영리한인유치원 설치 지원이 필요함.
- 재외동포 영유아 이용 육아지원기관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적합한 시설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함.
 - 정기적으로 무상, 또한 실비로 안정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보급시스템 구축 필요함.
 - 파견한인교사의 안정적 수급 및 현지인 교사 연수와 활용이 급선무임.

-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함.
 -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 거주 지역에서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서 기능하도록 허브 역할을 강화함.
 - 취학 전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기관생활 적응 지도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한배, 한우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언어 교실 운영이 필요함.
 - 현재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정규교사들이 지역사회의 한국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무엇보다도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기관장의 리더십과 사명감이 매우 중요함.
- 재외동포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를 구축함.
 - 공공기관(도서관 등)에 영유아용 한국도서를 비치함.
 -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을 확충함.
 -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별로 '보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보육도우미, 시간제 보육(탁아)시설 등을 운영
 - '한인육아나눔봉사단(가칭)' 구성 및 운영
 - 육아친화적 가정(부모)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함.
 - 재외동포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
- 재외동포 영유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를 강화함.
 -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영유아와 가정의 기본 현황 파악 및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필요함.
 - 현지 한인 여성단체, 사회단체, 현지진출 한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적 자원 및 네트워크에 관한 리스트나 DB를 확보, 이를 정책개발과 연구에 활용함.
 - 전 세계적으로 15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 운영의 실태조사 및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중앙아시아국가에 거주하는 다수의 고려인 가정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함.

- 향후에는 연구과정에 재외 육아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재외동포 자녀 양육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양육실태와 문제점, 부모의 가치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연구주제를 심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용어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2
1. 재외동포의 현황	12
2. 재외동포 지원정책과 사업 현황	15
3. 선행연구 검토	23
4. 소결	29
III. 재외동포 거주국의 육아지원 정책과 현황	31
1. 베트남	31
2. 우즈베키스탄	41
3. 소결	49
IV.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51
1. 응답자 특성	51
2. 부모의 자녀 양육관	57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63
4. 자녀의 정체성	67
5. 소결	70
V.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실태와 요구	72
1.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실태와 요구	72

2. 육아지원기관의 재외동포 영유아 지도 실태 및 요구	103
3. 소결	125
VI. 재외동포 육아지원 방안	128
1. 요약	128
2. 정책 방향	130
3. 세부 정책과제	131
참고문헌	140
부 록	145
1.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조사 설문지	147

표 차례

<표 I -3-1> 심층 면담 대상자	4
<표 I -3-2> 설문 조사 대상-부모	5
<표 I -3-3> 부모 대상 설문 내용	5
<표 I -3-4> 설문 조사 대상-육아지원기관	7
<표 I -3-5> 육아지원기관 대상 설문 내용	7
<표 I -4-1> 재외동포 법률 정의	8
<표 I -4-2> 재외동포의 구분	9
<표 II-1-1> 주요국의 한국재외동포현황	13
<표 II-1-2>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현황	14
<표 II-2-1> 법률 제12조	15
<표 II-2-2> 재외한국학교 내 유치원 운영 현황	17
<표 II-2-3>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19
<표 III-1-1> 베트남의 전체인구 대비 만5세 미만 아동 비율의 변화	31
<표 III-1-2> 베트남 1인당 GDP 현황	32
<표 III-1-3> 베트남 연도별 육아 및 교육 관련 정책 변화	34
<표 III-1-4> 베트남 설립유형별 기관규모 및 교육비	36
<표 III-1-5> 베트남 연도별 육아지원기관 현황	37
<표 III-1-6> 베트남 설립유형별 취원아 수 추이	38
<표 III-1-7> 베트남 연도별 육아지원기관수, 아동수, 교사당 아동수	39
<표 III-1-8> 베트남 취학 전 교육 여교사 비율	40
<표 III-2-1> 우즈베키스탄 설립별 취학 전 교육 취원아와 입학률 추이	46
<표 III-2-2> 우즈베키스탄 취학 전 교육 여교사 비율	48
<표 III-2-3> 우즈베키스탄 훈련된 취학 전 교사 비율과 교사 1인당 아동 수	48
<표 III-2-4>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과 보육 비교	49
<표 IV-1-1> 베트남 응답자 특성	52
<표 IV-1-2> 우즈베키스탄 응답자 특성	53
<표 IV-1-3> 재외동포 가정 유형별 가족 구성	54
<표 IV-1-4> 가정 유형별 자녀 국적 현황	55

<표 IV-1-5> 자녀의 한국 방문 경험 여부	56
<표 IV-1-6> 자녀의 한국 방문 경험 횟수	56
<표 IV-1-7> 자녀의 주 양육자	57
<표 IV-2-1> 육아와 부모 인생의 중요성	57
<표 IV-2-2> 엄마에 의한 직접 양육의 중요성	58
<표 IV-2-3> 육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58
<표 IV-2-4> 육아에 대한 부모 의견 반영 정도	59
<표 IV-2-5> 자녀 잘못에 대한 체벌 허용 수준	60
<표 IV-2-6> 자녀의 능력에 대한 선천적·후천적 영향	60
<표 IV-2-7> 자녀가 다니는 기관 선택 이유	61
<표 IV-2-8> 어른에 대한 존경심 vs. 개인적 행복 추구	62
<표 IV-2-9> 개인의 희생 vs. 자아 존중감	62
<표 IV-2-10> 타인에 대한 봉사 vs. 자기 일에 대한 성취	63
<표 IV-3-1> 자녀에 대한 부모 기대	64
<표 IV-3-2> 가정특성별 자녀에게 바라는 최종학력 수준	66
<표 IV-3-3>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	67
<표 IV-4-1>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민족 정체성	68
<표 IV-4-2> 거주기간에 따른 자녀의 민족 정체성 선호도	68
<표 IV-4-3> 한국에 대한 태도	69
<표 V-1-1> 부모의 일상생활 언어	72
<표 V-1-2> 자녀의 일상생활 언어	73
<표 V-1-3> 자녀의 현지어 능력	73
<표 V-1-4> 자녀의 현지어 능력에 대한 염려 정도	74
<표 V-1-5> 자녀의 한국어(고려어) 능력	74
<표 V-1-6> 자녀의 한국어(고려어) 능력에 대한 염려 정도	75
<표 V-1-7>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정서	77
<표 V-1-8>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79
<표 V-1-9> 자녀 양육 실제	81
<표 V-1-10> 자녀와의 실외체험활동 월 평균 횟수	83
<표 V-1-11> 부모로서의 역할 평가	83
<표 V-1-12> 부모로서의 역할 중 부족한 부분	84

<표 V-1-13>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84
<표 V-1-14>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	86
<표 V-1-15> 1일 아버지 육아참여 시간	87
<표 V-1-16> 1주일 평균 아버지와 자녀의 식사 횟수	87
<표 V-1-17> 한국 생활과 비교한 아버지 육아참여 정도	88
<표 V-1-18> 거주기간별 아버지 육아참여도	88
<표 V-1-19> 현지 육아정보 습득 정도	89
<표 V-1-20> 육아정보 습득 경로	90
<표 V-1-21> 한글학교 이용 여부	91
<표 V-1-22> 거주 기간과 자녀 민족정체성 선호도에 따른 한글학교 참여도 회귀 분석	91
<표 V-1-23> 한글학교 1주일 평균 이용시간	92
<표 V-1-24> 한글학교 회당 이용시간	92
<표 V-1-25> 한글학교 이외의 한글교육이나 문화 활동 참여 여부	93
<표 V-1-26> 자녀 정체성 선호도와 한글학교 참여에 따른 한글학교 이외의 참여 여부 회귀분석	93
<표 V-1-27> 자녀의 사교육 참여 여부	94
<표 V-1-28> 자녀 성장 시 유학에 대한 의견	95
<표 V-1-29> 자녀 유학 시 선호하는 국가	95
<표 V-1-30> 3년 이내 한국 귀국 및 취업 의사 여부	96
<표 V-1-31> 한국 귀국의 주된 목적	96
<표 V-2-1> 한국정부 지원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여부	97
<표 V-2-2> 한국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98
<표 V-2-3> 자녀를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부문	99
<표 V-2-4>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99
<표 V-2-5> 선호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100
<표 V-2-6> 선호하는 부모 교육 방법	101
<표 V-3-1>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유치원 유아 현황	103
<표 V-3-2>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유치원 시설 현황	104
<표 V-3-3> 베트남 사립한인육아지원기관 일반적인 정보	104
<표 V-3-4> 만3·4세 일일 활동 교육 시간표의 예시	105
<표 V-3-5> 베트남 현지 육아지원기관 일반적인 정보	105

<표 V-3-6> 우즈베키스탄 사립한인유치원 일반적인 정보	106
<표 V-3-7>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립유치원 일반적인 정보	108
<표 V-3-8>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말한글학교 일반적인 정보	108
<표 V-3-9> 자녀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110
<표 V-3-10>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111
<표 V-3-11>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112
<표 V-3-12> 기관에 보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염려	112
<표 V-3-13> 자녀가 다니는 육아시설 형태	113
<표 V-3-14> 자녀가 육아시설을 처음 이용한 시기	114
<표 V-3-15>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시간	114
<표 V-3-16> 자녀 1인당 기관 이용 월평균 비용	115
<표 V-3-17>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	116
<표 V-3-18>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장점	117
<표 V-3-19>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개선 사항	118
<표 V-3-20>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 기관에서의 적응 실태	118
<표 V-3-21> 우즈베키스탄 영유아 재외동포 기관에서의 적응 실태	120
<표 V-4-1>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 이용 기관의 시설 현황	121
<표 V-4-2>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기관의 요구	122
<표 V-4-3> 우즈베키스탄 영유아 재외동포 이용 기관의 시설 현황	123
<표 V-4-4> 우즈베키스탄 영유아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기관의 요구	124
<표 VI-2-1> 재외동포 가정별 및 육아지원기관별 지원 요구	132

그림 차례

[그림 II-2-1] 재외동포지원 정책의 주요추진방향	21
[그림 VI-3-1] 재외동포가정 영유아 육아지원 방안	139

부록 차례

<부록 1>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조사(학부모용) 1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정부의 본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역사는 불과 15년 남짓하다. 1990년대 말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활발히 대두되면서 재외동포정책이 법제화 된 이후 동포정책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재외동포의 참정권과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이 법제화 되는 등 정치적·사회적 권리 신장을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발전에 대한 참여의 길이 확대되었다.

2011년 외교통상부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169개국에 약 73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가별·지역별·자격별 재외동포의 분포현황 등에 관한 통계자료는 있으나, 취학 전 영유아의 숫자나 육아 관련 자료나 통계 등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에 비로소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개국에 설립된 총 30개 한국학교 가운데 16개교에 유치원이 개설되었다. 전체 한국학교 이용학생의 5.9%인 665명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등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현지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상당수에 이르며, 이러한 가정의 영유아들은 재외동포가 아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므로 정부의 즉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베트남 등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현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한국어 습득하지 못하여 한국인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동포 여성의 경우, 갈수록 현지에서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참여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 역량이 사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정부 부처별 기능적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영유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세분화된 정책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외동포 인재유입과 모국연계 강화 차원에서 차세대 동포지원과

민족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부의 사업 역시 재외동포 여성네트워크 구축에 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해외한인 입양인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정책의 성격상 영유아 육아문제가 정책대상의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영유아 및 영유아를 둔 부모, 육아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외동포 부모의 자녀 양육관 및 청소년의 정체성 교육관련 등이 주로 연구주제가 되어왔을 뿐, 재외동포 영유아에 대한 기본 현황 및 육아 실태에 대한 정보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양육 가치관 및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한 이유는 베트남은 단기 체류인, 대부분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이고,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후손이 다수 정주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국가에서는 한배가정과 한우가정의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두 가지 유형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 유형에 따른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 영유아를 육성,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첫째,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지원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재외동포 취학 전 자녀 현황을 파악한다.

넷째,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주요 육아지원정책 이력 및 최근 동향을 비롯하여 육아지원기관의 유형, 관련 법, 담당행정기관, 프로그램, 교사 훈련 및 자격 기준 등을 비교한다.

다섯째,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의 자녀 양육 가치관 및 실태와 요구를 비교 분석한다. 이는 개별 가정과 현지 육아지원기관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여섯째, 재외동포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재외동포 관련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검토하였으며 재외동포 양육 및 교육 관련 연구를 통해 재외동포의 양육 실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국으로 선정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과 체제 등에 관한 정보를 UNESCO 자료 및 현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전문가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나. 재외동포 거주국 육아지원기관 방문

1) 베트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

하노이 한국학교, 한인유치원, 현지 공·사립 유치원을 방문하였으며,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내에 위치한 병설유치원, 한인유치원, 현지 공립유치원, 주말 한글 학교를 방문하여 재외동포 영유아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현지 유치원교육과 비교하였다. 베트남에서 보육시설은 보호위주의 탁아시설이며, 일반적으로 영아는 가정에서 돌보거나 만2세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므로 주로 유치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지원기관 방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한국교육원 내에 위치한 한국유치원, 주말한글학교, 현지 공·사립 유치원(고려인 영유아 재원인 기관 포함)에 재원 중인 재외동포 영유아들을 관찰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인 고려인 영유아들의 양육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상의 방문한 여러 기관들에는 본 연구소에서 개발, 제작한 다문화부모교육 안내책자(베트남어와 우즈베키스탄어판) 및 30개의 주제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핸드북 세트를 제공하였다.

다. 재외동포 학부모 및 교사와의 심층 면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학부모와 한국학교 및 한인 유치원, 현지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를 심층 면담하였다. 학부모 면담 대상자는 양쪽 부모가 한국인가정뿐만 아니라 한베가정(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과 한우가정(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어머니) 부모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가정을 포함하였다.

<표 1-3-1> 심층 면담 대상자

단위: 명

지역	구분	학부모	교(원)장/교사	합계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한국학교	5	1	6
		한국유치원 1	3	1	4
		한국유치원 2	-	1	1
		현지사립유치원	-	1	1
		현지공립유치원	-	1	1
	호치민	하노이병설유치원	6	2	8
		현지공립유치원	-	1	1
		주말한글학교	4	1	5
소 계		18	9	2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유치원	3	2	5	
	주말한글학교	5	2	7	
	현지사립유치원 1 (고려인 유아 재원)	9	-	9	
	현지사립유치원 2 (고려인 유아 재원)	-	1	1	
	현지사립유치원	-	1	1	
소 계		17	6	23	
합 계		35	15	50	

라. 설문 조사 실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육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현지 교육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하며 현지 교육 관련 전문가는 표본 선정, 설문지 배부, 수거, 응답 번역에 이르는 제반 과정을 담당하였다.

1)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재외동포 개별가정의 부모(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를 대상

으로 각 국가별로 600명씩, 총 1,200명이었으며, 실제 응답한 부모는 총 1,034명으로 하노이 거주 228명, 호치민 거주 297명, 우즈베키스탄 거주 509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대상으로 단기 및 장기거주 한국가정(양쪽 부모가 모두 한국인), 한베, 한우가정(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현지인 어머니로 구성),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부모나 부나 모가 고려인으로 구성), 현지가정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지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가정 부모를 포함한 이유는 재외동포 가정 부모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과 실태를 비교하여 결과 해석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단, 국가별 비교 분석에서는 현지가정은 제외하고 재외동포 가정(즉 거주한국가정, 한베가정, 한우가정, 고려인가정)만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대상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설문지는 <부록 1> 참조).

<표 1-3-2> 설문 조사 대상-부모

단위: 명

지역		구분	계	부	모
합계			1,034	453	581
베트남	하노이	거주한국가정 부모	104	50	54
		한베가정 부모	68	34	34
		현지베트남 부모	56	27	29
	호치민	거주한국가정 부모	159	52	107
		한베가정 부모	74	38	36
		현지베트남 부모	64	25	3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부모	327	144	183	
	거주한국가정 부모	57	25	32	
	한우가정 부모	22	10	12	
	현지우즈베크인 부모	103	48	55	

설문내용은 가족 구성, 자녀에 대한 정보, 언어 사용, 양육 가치관, 양육 실제, 아버지의 육아참여, 육아지원기관 이용, 부모교육, 자녀의 정체성, 정부지원에 대한 경험과 요구 등을 포함하였다.

<표 1-3-3> 부모 대상 설문 내용

항 목	설문 내용
응답자 정보	- 나이, 국적, 출생 지역, 거주 기간, 학력, 현재직업, 가구소득, 결혼 상태
가족 구성	- 가족 수, 가구유형, 부부의 출신 민족별 유형
자녀 정보	- 자녀의 국적, 거주기간, 한국 방문여부, 한국거주 여부, 주 양육자
언어 사용	- 부모·자녀의 일상적 언어 사용 부모·자녀의 현지어 능력

(표 I-3-3 계속)

항 목	설문 내용
	- 부모·자녀의 한국어 능력 및 능력에 대한 염려 정도
양육 가치관	-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 어려움
자녀 양육 실제	- 양육 실제, 실외체험활동 빈도, 자녀 양육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기대	- 부모의 기대 수준, 가정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자녀의 특성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
아버지의 육아 참여	- 자녀교육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 저녁식사 횟수, 이전의 한국 생활과 비교한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
영유아의 기관 이용	- 이용 여부, 기관의 형태, 기관 이용 및 미이용 이유, 기관 미이용 자녀에 대한 염려, 기관이용 최초 시기, 1일 평균 이용시간, 지불 비용, 기관이용 만족도, 이용 기관의 장점 및 개선사항
부모교육	- 참여 여부, 선호 내용 및 방법
정체성	- 한국이란 나라의 의미, 부모가 선호하는 자녀의 정체성, 한글학교 이용 여부, 한글학교 외 행사 및 활동 참여여부
정부의 지원	- 한국 정부지원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여부, 지원받고 있는 활동 종류, 희망하는 지원의 종류
기타	- 사교육현황, 유학 선호 여부 및 선호 국가, 한국 귀국·취업 희망 여부 및 목적, 현지 육아정보 취득 수준, 육아정보 취득 경로

2) 양육 가치관 및 양육 실제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부모용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질문지는 관련 기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모 정보, 부모의 양육 실제 및 양육 가치, 양육 신념, 양육 목표, 아버지의 육아 참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 가치관에 관한 문항은 개인주의적 양육 가치 및 집합주의적 양육 가치 척도, 순응적 양육 가치 및 자기 지도적 양육 가치 척도(이은주, 2006; 김미정, 2001; 이순형, 1996)를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설경옥·문혁준(2006) 등의 양육 신념과 부모 정서, 아버지 양육 관련 문항들을 일부 추출하여 재외동포 부모 대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이외에 재외동포 부모로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는 자녀 정체성 및 한국어 언어 사용 및 교육에 관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부모의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녀의 육아지원 기관 이용 실태 및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 한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요구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3) 육아지원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모두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고려인 후손 포함)가 재원 하는 곳으로, 베트남 11개, 우즈베키스탄 8개로 총 19개 기관이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은 <표 I-3-4>와 같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립 한인육아지원기관, 현지 공·사립 육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호치민에서는 한국학교 내 위치한 유치원을 포함하여 사립 한인육아지원기관, 현지 공·사립 육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립한인유치원, 현지 공·사립 육아지원기관, 한국교육원 내 주말한글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I-3-4> 설문 조사 대상-육아지원기관

국 가	대상 기관
베트남	- 한국 국제학교 유치원 1기관 - 현지 공립 육아지원기관 2기관 - 현지 사립 육아지원기관 4기관 - 사립 한인 육아지원기관 4기관
우즈베키스탄	- 현지 공립 육아지원기관 4기관 - 현지 사립 육아지원기관 2기관 - 한인유치원 (한국 교육원에 위치) 1기관 - 한인 주말한글학교 1기관
합계	총 13개 기관

기관대상 설문내용은 선행연구 및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현장관찰 및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표 I-3-5> 육아지원기관 대상 설문 내용

항목	설문 내용
기관 정보	- 기관명, 주소, 소재지, 기관 종류, 설립연도
영유아 현황	- 재원 영유아 현황, 학급 수
교직원 현황	- 교직원 수, 교원 현황, 교원 급여
교육 과정	- 교육 철학, 교육과정 내용·프로그램, 활동 - 기관 시설 평가, 시설 개선 요구 사항, 하루 일과 운영
시설 및 환경	- 건물 건축 연도, 건물형태, 건물 층수, 기본 시설, 화장실 시설 설치, 놀이터 여부

이외에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 외국인 지원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우리나라 재외동포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관련하여 현지 공무원 및 유관단체를 면담 시도 및 번역된 설문 조사지를 전달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해당 지원정책이 거의 부재한 상태라는 사유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마. 자문회의 개최

연구의 방향 설정, 재외동포 대상 설문조사 문항과 실시 방법, 결과분석 및 지원정책 방안 관련하여 학계 전문가와 재외동포사업단체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공무원 등과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4. 용어 정의

가. 재외동포의 개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교포, 해외교포, 동포, 해외동포, 교민, 재외국민, 재외한국인, 재외동포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재외국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외국민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재외한국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재외동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진동섭·윤여탁·모경환·홍창남, 2006).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 1999. 9. 2., 일부개정 2008.12. 19., 법률 제9140호)에서는 재외동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4-1> 재외동포 법률 정의

<p>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위 정의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법류 제2조 1항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였으나 영주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영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단기 체류 수준을 넘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개념에는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 2세와 3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외동포는 먼저 국적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소유한 자를 뜻하고, 외국국적동포는 전체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계를 총칭한다. 그 중에서 재외국민은 다시 거주 목적에 따라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로 나눌 수 있다(진동섭 외, 2006).

영주권자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처럼 거주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만을 소유한 동포로써 이들은 법적으로 거주국 영주권과 함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한편, 외국국적동포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며 외국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주 1세대이거나 아예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 2세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 1세대와는 다르게 이주 2세대 이상은 한국보다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더 익숙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기도 한다(조태린, 2009).

<표 1-4-2> 재외동포의 구분

	1차 구분	2차 구분	소지국적	영주의사	일상적 용어
재외동포	재외국민	일시 체류자	한국	일시체류	체류민
		영주권자	한국	영주	교포 또는 동포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거주국	영주	

자료: 진동섭·윤여탁·모경환·홍창남(2006). 재외동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나. 본 연구의 재외동포 관련 용어 정의

1)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베트남에 거주하는 양쪽 부모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직장으로 인하여 3년 내외로 단기 체류하는 집단과 실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장기 체류집단으로 분류된다.

2) 한베가정

한쪽 부나 모가 한국인이고 나머지 한 쪽이 베트남 출신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거주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을 뜻하며,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로 이루어져 있다. 한베가정 어머니의 학력 및 나이는 다양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은 편이다. 베트남 거주 한베가정의 어머니 중에는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고학력, 고소득인 경우도 있다.

3)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말하며, 기업체 주재원이거나 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 한우가정

한쪽 부나 모가 한국인이고 나머지 한 쪽이 우즈베키스탄 및 타민족 출신으로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우즈베키스탄(타민족 포함) 다문화가정을 의미한다.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와 우즈베키스탄 및 다른 민족 출신의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5) 고려인가정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고려인가정은 강제 이주 3, 4세대로서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심각하여 우즈베키스탄 내 거주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취업을 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거주 고려인가정 부모가 다른 도시나 국외에서 취업을 하고 있어 조부모와 사는 고려인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고려인 조손가정의 80-90%가 농촌에 거주한다.

6) 현지가정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현지가정은 각각 양쪽 부모가 모두 베트남인 또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된 현지거주가정을 지칭한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의미하며 베트남

과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기관은 모두 교육부에서 관장하므로 유아교육기관, 취학 전 교육기관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외동포의 현황

가. 재외동포의 현황¹⁾

2011년 전체 재외동포는 726만 8,771명으로 2009년 682만 2,606명보다 6.54% 증가했다. 각 국가별로 분석한 한인 동포 수는 중국 270만 4,994명, 미국 217만 6,998명, 일본 90만 4,806명, 독립국가연합 53만 5,679명 등 순이다. 이들 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의 규모는 전체 재외동포의 해외동포의 무려 90%에 이르며, 그 밖에 나머지 10% 내외는 세계 각지의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재외동포 선거권을 가진 인구는 전체의 39% 수준인 279만 9,624명이다.

전체의 61%에 달하는 447만 2,747명은 거주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영주권자 114만 8891명과 장, 단기 체류자 131만 7554명, 유학생 32만 9579명 등 재외동포 선거권을 가진 인구는 전체의 39%인 279만 9624명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를 거주자격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다수의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중국, 북미, 일본, 구주 및 아주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유학생 수는 북미가 가장 많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유학생보다 일반 인구의 해외 진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1).

아래 <표 II-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체류자나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많은 나라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미국 등이며 최근 재외동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체류자보다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가 다수다.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²⁾에 의하면, 베트남 한국학교 학생 수는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을 합하여 1,454명이며, 호치민 한국학교 유치원에 31명이 등록되어 있다.

1) 외교통상부, 한국재외동포현황(2011년 10월 30일 기준)에 의한 수치임.

2)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2010년 11월 기준)에 의한 수치임.

<표 II-1-1> 주요국의 한국재외동포현황

단위: 명

국가별	재외국민				시민권자 (외국국적)	총계
	계	영주권자	일반체류 자	유학생		
중국	369,026	4,161	307,142	57,723	2,335,968	2,704,994
일본	578,135	471,627	96,146	20,362	326,671	904,806
카자흐스탄	107,600	109	1,716	70	1,895	105,235
우즈베키스탄	4,600	2,150	150	2,300	171,300	173,600
필리핀	96,606	757	66,304	29,545	26	96,632
베트남	83,638	0	81,126	2,512	2	83,640
캐나다	128,826	85,951	22,084	20,791	102,666	231,492
미국	1,082,708	464,154	152,938	105,616	1,094,290	2,176,998
아르헨티나	14,934	14,340	590	4	7,420	22,354
브라질	25,819	23,794	1,876	149	24,954	50,773
러시아	218,956	253	3,733	1,950	5,936	213,020

자료: 외교통상부, 한국재외동포현황(2011)

우즈베키스탄의 한인학교 수는 78개이며, 학생 수는 4,674명이며 유치원에 재학하는 유아는 267명으로 집계된다. 교원 수는 약 75명이다. 한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의 한국학교는 전체 재외동포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한국학교 재학률을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한국학교에는 전체 학생 335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181명을 차지하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121명 중에 45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0c).

재외동포 교육기관은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학교는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내 및 현지의 정규과정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한글학교는 동포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해 주로 동포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해 주로 주말에 운영되는 기관으로 주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부분적으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게 교육과정, 교과서,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재외동포 교육기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한국문화 소개, 현지 한국교육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재외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열악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0년까지 대폭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교육

과학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예산'을 69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 중 한인학교지원예산은 523억 원이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국고지원예산은 거의 증가되지 않아 재외 한국학교 교육 환경이 낙후된 실정이며, 재외동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수요가 증가될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예산은 433억원 가량으로 오히려 증감되어 재외 한국학교를 위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II-1-2>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2010 예산액(A)		2011 예산액(B)		증감
한국학교 지원		52,371		43,380	△8,991
과건교원 인건비	40명×127,270천원	5,091	26명×135,692천원	3,528	△1,563
현지채용교직원 인건비	890명×14,315천원	12,740	978명×26,817천원	16,227	3,487
학교운영비	30개교×236,567천원	7,097	30교×221,133천원 13교×30,000천원	7,024	△73
학교임차료	8개교×85,875천원	687	10교×58,100천원	581	△106
저소득층자녀 학비	535명×2,222천원	1,189	597명×2,499천원	1,492	303
대수선비	5개교×249,000천원	1,245	10교×134,900천원	1,349	104
도서실·과학실 현대화	30개교×70,000천원	2,100		-	△2,100
한국학교 방과후 수업지원	-	-	30교×25,000천원	750	750
신·증축 시설비	8개교	22,222	7개교	12,429	△9,79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1) 내부자료.

재외동포의 사회문화 적응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변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주 초기에는 소수민족이 흔히 겪는 인종, 사회적 차별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으나 한인들의 특성이 근면성, 신분상승의 욕구, 교육열로 인해 점차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은 완전한 동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류층의 진입한 재외동포의 수는 거의 없다. 둘째, 재외동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종적 차별의 소지가 적은 자영농업 또는 자영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북미의 경우 대부분 2, 3세들의 주류사회에 동화하여 직에 종사한다. 넷째, 한인들은 민족정체성이 뚜렷하며 집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재외동포가 2, 3세로 넘어가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강일규, 2007).

2. 재외동포 지원정책과 사업 현황

가. 재외동포교육 관련법 및 지원체계

재외동포교육은 주체, 대상, 장소 등을 막론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우리 정부 내지 민간단체하의 교육체제를 의미한다(김애원, 2003). 재외동포 자녀가 우리의 말과 글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를 배우고 올바르게 인식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된 대통령령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이 규정에는 예산 지원,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정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6장 4절 42개조)은 2006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07년 1월 3일자로 공포되고,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7월 18일에는 동법률 시행령(20개조)이, 2007년 8월 14일에는 동 법률 시행 규칙(40개조)이 각각 공포·시행되어 재외동포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한국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관리 운영, 지도감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학교의 운영'에 관한 조항 중 한국학교에 유치원을 병설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법률 제12조) 제시되어 있다.

<표 II-2-1> 법률 제12조

제12조 (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재외동포교육의 지원 체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국내 교육과 국외 교육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국내 기관

국내의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모국어의 대한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각 기관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를 포함하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다(재외동포재단, 2006, 2010b).

대표적인 재외동포교육 관련기관들을 살펴보면, 먼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한국어 활성화이다. 한국어 교육 사업으로는 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재외한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연수사업,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민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교·자재 지원, 재외동포 장학 사업 등이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 국제교육 교류·협력의 활성화, 교재 보급 및 국제교육 정보 제공,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치 활성화, 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기초 분석 자료 구축, 한국어능력시험의 숙달도 기준과 관련성을 가진 교재의 위계화 연구,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어문 정책 전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의 어문 규정 뿐 아니라 현지 동포 한국어 교사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원자격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모국문화 이해와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재외동포재단, 2006, 2010b).

2) 현지 교육기관

현지 외국동포교육기관에는 크게 한국학교·한국교육원·한글학교가 있다(김애원, 2003; 재외동포재단, 2010b). 한국학교는 정규 학교로서 모국어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학교의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 병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에 비로소 15개국에 설립된 총 30개 한국학교 가운데 16개교에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설립된 유치원에는 총 39명의 전임 교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한국학교 이용학생의 5.9%인 665명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한국학교 내 유치원 운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2> 재외한국학교 내 유치원 운영 현황

단위:명

관할 재외공관	학교명	설립 연월일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일본(대)	동경한국학교	'54.04.26	1,119(28)	-	628(16)	244(6)	247(6)	59(1)	-	34	25(1)
오사카(총)	교토국제학교	'47.05.13	157(8)	-	-	41(3)	116(5)	18	-	-	18
	오사카금강학교	'46.04.05	330(17)	8(2)	166(6)	92(3)	64(6)	32(1)	1	11	20(1)
	오사카건국학교	'46.03.01	416(22)	24(4)	165(6)	114(6)	113(6)	44	5	10	29
소 계 (4개교)			2,022(75)	32(6)	959(28)	491(18)	540(23)	153(2)	6	55	92(2)
중국(대)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1,173(42)	76(4)	560(18)	245(9)	292(11)	40(1)	5	-	35(1)
	연변한국학교	'97.12.01	208(12)	-	87(6)	61(3)	60(3)	23(1)	-	11	12(1)
	칭진한국국제학교	'01.03.07	911(39)	106(5)	432(18)	185(9)	188(7)	89(2)	13	36(2)	40
상하이(총)	상해한국학교	'99.09.01	1,062(44)	-	537(24)	198(8)	327(12)	94(1)	-	47	47(1)
	무석한국학교	'06.09.04	189(12)	19	101(6)	35(3)	34(3)	28(1)	3	10	15(1)
홍콩(총)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72(14)	33(2)	64(6)	14(3)	61(3)	65(1)	4	30	31(1)
칭따오(총)	연대한국학교	'01.03.01	665(22)	-	282(10)	170(6)	213(6)	54(1)	-	22	32(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25	576(30)	-	295(14)	139(7)	142(7)	46(1)	-	14	32(1)
선양(총)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402(22)	-	192(10)	111(6)	99(6)	38(1)	-	17	21(1)
	선양한국국제학교	'06.03.01	215(15)	43(3)	101(6)	41(3)	30(3)	29(1)	7	6(1)	16
소 계 (10개교)			5,573(250)	277(14)	2,651(118)	1,199(57)	1,446(61)	506(11)	32	193(3)	281(8)
타이베이 대표부	타이베이한국학교	'62.02.01	72(8)	25(2)	47(6)	-	-	9(1)	2	7(1)	-
	고웅한국학교	'61.01.25	42(6)	-	42(6)	-	-	6(1)	-	6(1)	-
소 계 (2개교)			114(14)	25(2)	89(12)	-	-	15(2)	2	13(2)	-
베트남(대)	하노이한국학교	'06.04.24	373(18)	-	217(12)	88(3)	68(3)	21(1)	-	11(1)	10
호치민(총)	호치민시한국학교	'98.08.04	1,081(20)	31(2)	515(18)	243	292	73(3)	3	31(1)	39(2)
소 계 (2개교)			1,454(38)	31(2)	732(30)	331(3)	360(3)	94(4)	3	42(2)	49(2)

(표 II-2-2 계속)

관할 재외공관	학교명	설립 연월일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췌다(총)	췌다 한국학교	'76.09.18	9(4)	3(1)	6(3)	-	-	3(1)	1	2(1)	-
사우디(대)	리야드 한국학교	'79.04.24	11(7)	2(1)	9(6)	-	-	4(1)	1	3(1)	-
소 계 (2개교)			20(11)	5(2)	15(9)	-	-	7(2)	2	5(2)	-
인도네시아 (대)	자카르타 한국국제 학교	'76.01.05	1,060(40)	-	468(19)	241(9)	351(12)	88(1)	-	42	46(1)
싱가포르 (대)	싱가포르 한국학교	'93.02.17	104(7)	-	104(7)	-	-	16(1)	-	16(1)	-
태국(대)	방콕한국 국제학교	'01.03.31	147(12)	-	79(6)	40(3)	28(3)	20(1)	-	9	11(1)
필리핀(대)	필리핀 한국학교	'05.07.11	90(11)	10	47(6)	22(3)	11(2)	24(1)	1	8	15(1)
파라과이 (대)	파라과이 한국학교	'92.03.01	106(9)	27(2)	79(7)	-	-	9(1)	1	8(1)	-
아르헨티나 (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95.01.23	335(16)	181(9)	154(7)	-	-	57	32	25	-
상파울로 (대)	브라질 한국학교	'98.03.01	121(6)	45	76(6)	-	-	10	3	5	2
러시아(대)	모스크바 한국학교	'92.03.01	78(8)	32(2)	46(6)	-	-	8(1)	2	6(1)	-
이란(대)	테헤란 한국학교	'76.04.30	36(6)	-	36(6)	-	-	3(1)	-	3(1)	-
이집트(대)	카이로 한국학교	'79.12.05	42(6)	-	42(6)	-	-	6(1)	-	6(1)	-
소 계 (10개교)			2,119 (121)	295 (13)	1,131 (76)	303(15)	390(17)	241	39	128(5)	74(3)
합 계	15개국, 30개교		11,302 (509)	665 (39)	5,577 (273)	2,324 (93)	2,736 (104)	1,016 (29)	84	436 (14)	496 (15)
			10,637(470)						932(29)		

외국동포 교육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교육원은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주로 성인이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며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이며 주로 주말에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국사·전통 문화 등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활발한 한글학교의 운영을 위해 정부는 교육공무원 파견, 운영비지원, 교재·교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애원, 2003; 재외동포재단, 2011). 2010년 기준으로 재외동포 교육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한글학교에 관한 영유아반의 구체적 현황은 현재 제공되어 있지 않다.

<표 II-2-3>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단위: 명

지역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교육과학·문화관실	
	학교수	교원수 (과건)	학생수 (학급수)	교육 원수	과건 인원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기관수	과건 공무원수
아주	22	916 (23)	10,454 (447)	19	19	3,710,553	355	2,636	25,831	4	5
북미	-	-	-	7	8	2,325,605	1,052	9,598	57,525	2	3
중남미	3	76(1)	562(31)	3	3	107,029	74	623	4,335	-	-
구주, CIS	1	8	78	10	10	655,843	358	1,306	17,406	7	8
아프리카 중동	4	16(4)	98(2)	-	-	23,576	46	295	1,413	-	-
계	15개국 30개교	1,016 (9)	11,302 (509)	14개국	40	6,822,606	1,885	14,458	106,510	9개국 13기관	16

나. 재외동포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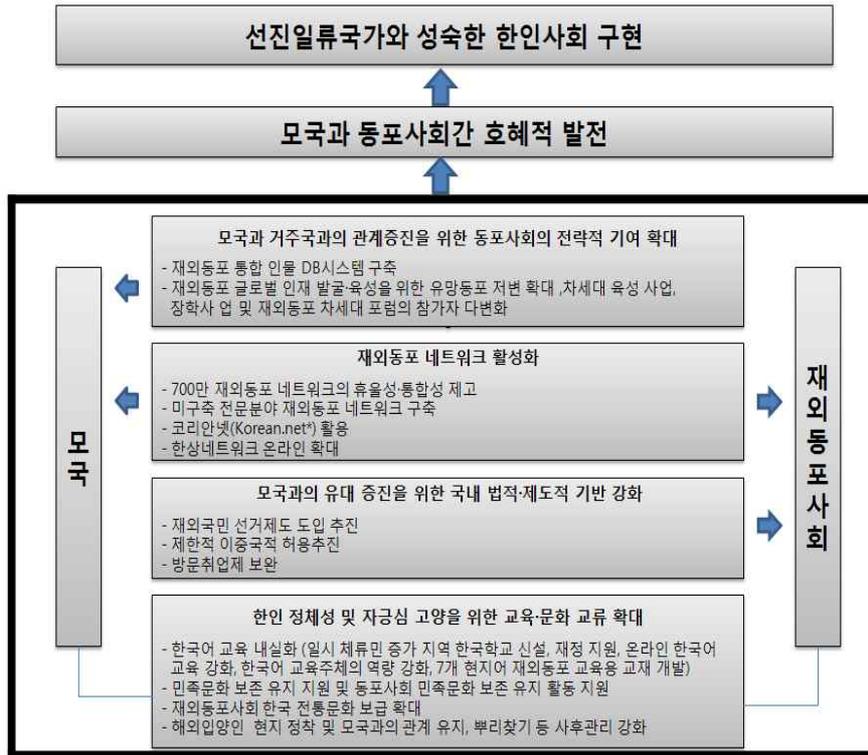
2011년 기준,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우리 재외동포는 726만명을 넘어서 남북한 총인구의 1할을 점유하고 있는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모국과 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끌어들이느냐는 국가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외동포 정책의 시대별 특성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정부가 표방한 재외동포 정책은 현지화정책이었다.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지에 적응하여 거주국의 모범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이주비용의 극소화, 한국에서의 법적지위 말소, 대정부건의 자체 유도 등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교민우대정책이 남발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실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의 변천과정은 이민 장려 등의 소극적인 차원에서 민족자원 활용, 세계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의 적극적인 차원으로 변화한 까닭이다(재외동포재단, 2006). 1999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쉽게 엿볼 수 있는데,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 문턱을 낮추고, 재외동포의 생활권 광역화와 국제화, 국내 경제회생 동참 유도,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요구에 따라 애로사항 수용,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책 유도의 정책목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국민 보호·육성 & 해외이주'(1983) 단계를 거쳐 '재외국민 보호·지원 & 이민'(1998)으로 변경되었으며, 담당 전문부서는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국민형사국'(1998)과 민간기구성격의 '재외동포재단'(1997)으로 발전해왔다(이광규 2008). 해외교포문제연구소(2008)에 따르면, 이전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영역은 크게 보호, 지원, 교육·문화, 고용, 법적지위 등 5개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핵심 추진과제는 모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①재외동포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②거주국에서나 모국 생활에서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제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③모국과의 유대감과 민족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 언어·문화, 교육·홍보를 지원하며, ④그 법률에 따라 해당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인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서 재외동포 인재풀(pool)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를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한인 사회 구현'에 두었다. 이러한 목표에 근거한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교류 확대로서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교류 확대에서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의 내실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사업(TaLK)확대, Korean Festival 확대개최, 재외동포 민족문화 활동 육성 및 지원 강화, 재외동포사회 한국 전통문화 보급 확대, 해외입양인 현지 정착 및 모국과의 관계 유지, 뿌리 찾기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 민족문화활동 육성 및 지원 강화의 지원 정책도 꾸준히 실현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사회 모국어 문학 창작활동 지원, 재외동포 문학공모사업지원, 민족문화 보존 유지 지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 보급 확대에서도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 가능한 전문가 파견 및 차세대동포 중심 우리문화 체험 및 습득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재외동포사회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만간 1000만 해외동포시대가 예견됨에 따라 재외동포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재단(2010a)에 따르면, 8촌 이내의 친척 가운데 재외동포가 있다는 응답은 16.9%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재외동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실제 주변의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1-2-1] 재외동포지원 정책의 주요추진방향 (재외동포 위원회 2010)

따라서 각계에서 제기된 정책의 문제점과 장·단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제언 사항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재외동포재단(2010b)과 해외교포문제연구소(2008)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전환점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 간의 재외동포정책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민족적 유대감 강화 및 제반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서야한다. 셋째, 재외동포는 모국에서는 동포애의 초점을 맞추어 중요한 민족자산임을 지각해야한다. 넷째, 앞으로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늘이기 위해 장기적인 인적자원 개발계획과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방안,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다. 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업 현황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주요 사업을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재외동포

재단이다. 1997년에 발족한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조사연구, 교육, 문화, 차세대 한상, 한인회, 정보화, 홍보사업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초청, 협력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중점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라인 한민족 공동체 형성 사업이다. 본 사업은 각 국가별·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상호간 의사소통 및 교류 활성화, 유관기관, 단체 연계를 통한 신뢰성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인물·단체 정보 확보 및 공유기반 조성, IT 인프라 고도화와 보안 강화를 통해, 사용자들의 편의성 증대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다.

둘째, 세계한상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경제 번영 추구이다. 이를 통해 무역, 상공, IT, 벤처 등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구축, 세계한상대회와 연계, 상시 비즈니스 교류 지원 및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한인정체성 함양 및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 강화이다.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사이버 한국어 강좌 개발 및 운영,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민족학교 지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외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한인교육 강화, 재외동포 기초 한글교육기관인 한글학교 교육 내실화,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재외동포보고서에 따르면, 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은 총 77억 원으로 144개국의 1,8885개 한글학교를 지원하였다. 재외한글학교 교사 육성 또한 중요한 교육지원 중의 하나로써 2010년 한해 총 31개국의 60사례의 교사연구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한글학교 교차 초청 워크숍은 53개국 168명의 교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였다. 민족학교의 중국, 러시아, CIS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조선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족학교 9개교에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넷째,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이다. 재외동포사회 사이, 재외동포사회와 거주국 주류사회 사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의 각종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며,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재외동포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동포 사회 조사 협력 강화이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재외동포 관련 국내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안정 정착 및 모국 방문 사업을 지원하고, 재외동

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기획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어 뉴스 세계 위성방송망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재외동포재단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재외동포 자녀가 한국을 이해하고 민족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며 '2011년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248호). 공모대상 교재로는 현지 맞춤형 한국어교재(프랑스어판 6권, 베트남어판 6권)와 유아용 교재(기본교재 1권, 놀이교재 1권, 교사용 지도서 2권, CD종)로 재외동포 유아를 위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와 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은 2010년 재외국민 경제교육에 관한 경제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세계 15개국 30여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외한국학교 학생 약 1만 1,300여명에게 '아하경제' 신문이 배포될 예정이다. 이들 외에 14개국 39개 한국교육원에서도 PDF 파일 형태의 '아하경제' 콘텐츠가 보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콘텐츠를 받아보게 될 재외동포 자녀는 약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양육, 자녀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또한 초·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다. 영유아 대상의 조기 한국어 교육이나 취학 전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가 실태조사 및 재외동포교육에 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외동포 양육 및 교육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양육이나 교육에 관련된 논문이나 보고서들이 단일연구과 비교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재외동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가. 재외동포 연구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한국어 교육(김윤주, 2010; 윤인진, 2010; 정명숙, 2010; 최선영, 2010; 류재택, 2002; 조형숙, 2007)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김성학, 2004; 김태기, 2007)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재외동포교육에 관한 연구 역시 두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교육 관련 재외동포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라 영유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1)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재외동포 연구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는 한글 교육 및 한글이용 현황 조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글학교 운영, 교사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 교육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주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윤주(2010)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가 재외동포 아동의 발달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재외동포 아동학습자에게 아동 문학 작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교재 내에 구현할 방법을 모색하고 단원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윤인진(2010)은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초국가주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은 민족교육이지만 민족교육은 세계화, 인권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명숙(2010)도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어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 유발, 학습자의 언어 발달 및 문자 발달 단계 고려하여 교육 내용 선정, 수업활동에 끊임없는 변화 등 재외 동포 유아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교수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최선영(2010)은 해외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담당 교사, 교육 방법, 행정·재정 지원에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인지적·학문적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양국 문화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문화간 소통 능력, 한국어 학습을 평생 자발적으로 즐기는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능력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성이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에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이중언어능력에 관한 연구는 특히 한배가정이나 한우가정 자녀들의 언어 교육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현지어로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면서도 한국어를 습득하는 일이 중도입국이나 아버지와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재외동포 연구

정체성과 관련된 재외동포 연구는 장기 체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 체류 재외동포는 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만큼 해외 거주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체성 연구는 주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2세, 3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고려인 대상 연구 중 많은 부분이 고려인의 정체성 연구인 점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2010년 재외동포재단에서 독립국가연합지역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독립국가연합지역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였다. 이들 재외동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62.4%가 한국을 조부모, 또는 부모의 나라, 조상들의 나라라고 인식하였으며 한국을 조국이나 모국으로 응답한 사람은 5.3%에 그쳤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3.1%로 조사되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79.7%가 러시아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며 한국어 사용 비율은 19.7%로 집계되었다. 독립국가연합지역에는 단기 체류보다는 정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성학(2005)은 한국 이민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분석하였는데, 높은 교육열, 문화동결, 집거 현상, 진자의 범칙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류하고, 외교 교육정책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실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실제로 높은 교육열은 어느 재외동포 사회라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비롯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재외동포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나. 재외동포 양육 및 교육 관련 연구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 중에서 양육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룬 문헌은 드물다. 양육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재외동포의 실태조사에서 몇 단락이나 몇 페이지의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재외동포재단에서 2009년에 발간한 「유럽·대양주·중남미 지역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결

과보고서」와 「CIS 지역과 중국 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한글학교 교육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는 여러 지역에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적 활동, 가정 및 건강, 언어 및 교육, 한국에 대한 관심 정도, 생활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제공한다. 두 보고서는 재외동포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를 동시에 연구하여 비교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는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및 실제, 어머니의 만족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를 비교하고 문화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기숙 외(2008)의 연구로부터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된 진동섭 외(2006)의 연구도 재외동포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재외동포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구 대상 국가는 브라질, 이집트, 유럽3국(영국, 프랑스, 독일), 독립국가연합지역(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 4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으로 총 13국이었으며, 이 나라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동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들을 담고 있다. 진동섭 외(2003)의 연구에서도 재외동포 교육 통계를 다양하고 폭넓게 기술하고 있는데, 25개 한국학교 379명의 교원, 45명의 파견공무원 및 11명의 교육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진곤 외(1997)의 연구는 전 세계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본, 북미, 중국, 독립국가연합, 유럽, 동남아 및 태평양, 중동, 중남미 등 8개 지역으로 나눈 뒤 각 지역동포들의 역사적 배경, 동포사회의 특성, 교육 현황, 현지 동포의 교육 수요, 재정 여건 등에 초점에 맞춰 비교적 지역 실정에 맞는 동포교육의 방안 및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특성을 감안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지역별 평균적으로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 검토한 문헌은 여러 국가에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문헌들 또한 찾을 수 있다. 박상희(2003)는 재외동포재단 2003년도 지원과제, 「우즈베키스탄 한인아동의 언어와 생활」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한국어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고려인 아동의 생활 및 교육적 상황, 재외동포 아동의 언어와 생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베트남 재외동포 연구로는, 신숙정(2011)의 연구가 있는데, 저자는 제 3문화 아이들의 의미와 정체성을 중점으로 베트남 하노이 한인 학교의 학교생활과 학생 삶의 특성을 현장연구를 통한 참여관찰 및 교사 일지 기록,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아이들의 삶의 측면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이해를 통한 한인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이나 보고서 외에도 재외동포의 역사 및 삶을 다루고 있는 시중에 출간된 책들도 재외동포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우영란(2008)이 집필한 「중국의 한겨레」는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문화생활을 다루면서 조선족의 교육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재외동포 유아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최근 서문희 외(2010)의 연구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 연구」는 국내의 중국 재외동포의 자녀 양육 실태 및 관련 가치관을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는 보육 및 교육 기회의 확대, 의료 지원, 신분상의 안정,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재외동포 지원 정책 외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중국 거주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는 조선족유치원을 통한 민간 지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문희 외(2010)의 연구는 해외에서 민간 지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국가 간의 외교적인 교류를 통해 재외동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현실적으로 민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재외동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재외동포 양육 및 교육 관련 연구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저출산·세계화 시대에 주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 자녀 양육 실태를 알아보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미래의 인적 자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 재외동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외동포교육의 문제점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동섭 외(2006)는 설문조사와 현지방문조사를 바탕으로 확인된 재외동포 교육의 문제점을 법령체계, 기관설치, 기관운영, 파견공무원, 예산, 행정지원체계의 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재외동포교육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하며,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설치는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직접적인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을, 교육행정 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교육관을 설치하거나 파견하도록 제안하였다. 인력관리측면에서는 파견공무원의 법적 지위 강화 및 교육의 질 확보, 재정측면에서는 국가차원의 재정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 기관의 종류, 분포 현황, 학생 수, 교사 수 등을 조사하는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옥선화, 백희영(1999)의 「재미동포 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사용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집안에서 부모-자녀 간의 사용하는 언어,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정도, 자녀세대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견해, 한국어 교육 상황,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 선호도, 자녀의 한국어 구사력, 한국 정부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바라는 사항에 관련된 조사를 바탕으로 동포교육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심순실(2002)은 4개 학교를 비교 분석하여 귀국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설계안을 제시하였는데, 언어사용 기능 영역 통합 교수 학습과 학습 주제 통합 학습을 교육 및 구체적인 지도안과 교육 자료,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윤인진과 이종철(개인면담, 2011. 3. 3)은 재외동포의 다양한 유형을 간과한 채, 하나의 범주 안에 포함하려는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윤인진(2006)은 사회조사방법을 통한 재외한인연구를 방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기존의 재외한인 관련 조사방법을 '비 확률표본 사용에 위한 대표성 결여, 비교 가능성 결여, 표준화된 척도 부재, 기술통계 수준의 분석, 부적절한 질문 문항, 연구자들의 주관적 가치관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적, 확률표집을 시도하고, 국제간 비교 가능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가치중립적이고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질문 문항을 개발하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을 추구하고,

외국의 공신력 있는 정부 혹은 민간 기관의 2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들었다. 이와 같은 재외한인연구의 방법론적 검토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재외동포 양육가치관과 실태를 비교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에서 여러 연구·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4. 소결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지원정책은 2011년 현재 726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규모에 비해 예산, 인력, 지원체계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한글교육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외한국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예산의 감소로 인해 재외동포 정체성 및 교육권 보장은 낙후한 실정이다. 이는 재외동포의 교육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더욱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낙후한 실정은 재외동포 교육 관련법 및 지원체계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정한 재외동포 교육에 관한 규정은 1977년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재외한국학교의 재정지원 및 파견공무원 부족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련부처들의 지원정책은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질책을 받아왔다.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는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석·박사 논문 등 개인연구들이 대다수이다. 무엇보다 재외동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가 적고, 관련 전문기관들이 극소수이다. 또한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재외동포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재외동포 양육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오래전에 수행되어 그 연구결과 또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의 취학 전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으로, 재외동포 영유아의 취학 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재외동포 육아가치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기존의 재외동포 연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재외동포가 분포하는 북미, 일본, 중국에서 성장한 2, 3세대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체성에 영향을 받을 만큼 해외 거주기간이 길지 않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3, 4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검토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국학교,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동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초점에 맞춰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육관에 대해서는 주로 양육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집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및 한국어 학습과 정체성에 관한 부모의 견해,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정부에 바라는 사항 등을 공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재외동포 대상으로 선행연구로부터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도출·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Ⅲ. 재외동포 거주국의 육아지원 정책과 현황

1. 베트남

가. 베트남의 인구 개요

베트남은 20여 년간(1955~1975)의 전쟁을 겪으면서 158만명이 사망했다. 전쟁이 끝난 1976년의 인구는 4,900만명이었으나 전쟁 3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베트남 인구는 8,800만명으로 무려 80%가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35세 이하의 전후 세대가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가운데 15세 이하는 25%, 5세 이하는 8.4%인 반면 65세 이상은 6.6%이다. 민족은 베트남족을 중심으로 54개의 소수 산악 민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이다.

연간 인구증가율은 1986년 2.21%이었으나 90년대부터 2%이하로 감소하여 2010년 1.06%이다. 출산율은 1995년 2.72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2.0명이다. 1세 이하 영아사망률은 2001년 31.0%이었으나 2000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여성과 아동지원 사업으로 2003년은 21.0%, 2010년 현재는 15.8%로 많이 줄었으며, 도시는 9.2%인 반면 농촌은 여전히 18.2%로 높은 실태이다. 2011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인구는 총 9,0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0%가 16세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베트남 인구 및 가족계획청, 2011).

남녀성비는 통일이전의 전쟁세대에서는 여자가 많으나, 남아선호사상으로 20세 이하에서는 남자가 많다. 성비 불균형은 5세 이하가 가장 심해 111.5에 달한다.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나 가임 여성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5세 이하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1-1> 베트남의 전체인구 대비 만5세 미만 아동 비율의 변화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7.54	7.42	7.45	7.49	7.7	8.5	8.4
남	7.5	7.80	7.84	7.91	8.2	9.0	8.9
여	7.14	7.04	7.08	7.07	7.2	7.9	7.9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1), 베트남 인구센서스.

나. 베트남의 경제 지표

베트남은 1976년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지만 경제기반 시설은 물론 폐허를 복구할 자원조차 부족한 상태였다. 더구나 1977년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으로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중국군이 베트남 북부국경지역을 침공함으로써 다시 또 10년간의 서남부와 북부국경지역 분쟁을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 12년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던 베트남 경제는 냉전시대 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마지막 지원국이었던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조차 끊기자 스스로의 경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그 결과 1986년 '도이모이(개방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베트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2004년 ASEM회의 개최, 2006년 APEC 개최, 2007년 WTO 가입을 통해 베트남은 드디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제 후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 세계 각국에서 투자를 하려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어 2010년도에도 베트남 투자 1위국이다.

6.8%의 경제성장에 따라 1인당 GDP도 2005년 \$638에 비해 2010년은 2배 가까이 증가한 \$1,168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도 11.75%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져 베트남 제1의 경제도시 호치민의 1인당 GDP는 \$2,800이며 수도 하노이는 \$2,000이다(베트남 통계연감, 2011).

<표 III-1-2> 베트남 1인당 GDP 현황

구분	1986	1995	2003	2005	2007	2009	2010
1인당 GDP (USD)	86	288	492	638	843	1064	1,168
경제성장률 (%)	2.8	9.5	7.34	8.44	8.46	5.32	6.7
소비자물가지수 (CPI,%)	-	-	3.0	8.4	12.6	6.5	11.75

자료: 1) 베트남 통계청, '도이모이 20년의 베트남 발전 경제지표 1986-2005'(2006).
2) 베트남 통계청, '2000-2010 연감'.

다. 베트남 유아교육의 발전 과정³⁾

1) 1960 ~ 1980년 : 유아교육은 국가의 책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교육을 비롯한 모든 복지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기관 설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62년 4월

3) 베트남 교육부(2006), 베트남 유아교육 60년사.

이며 중앙당은 집단농장과 군부대, 모든 직장에 영유아 육아지원 기관 설치에 대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법령'을 발행하고 육아지원 기관의 설립과 관리 책임을 총 노동 연맹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유아교육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이며 유아교육 분야는 전쟁 전후(1975년 전후) 잠시 감소되었지만 유아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직장 내 보육시설은 1965년 2,100개에서 1980년 13,178개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집단농장은 1965년 8,245개에서 1980년 33,586개로 4배 이상 증가되었다.

2) 1981년 - 1989년 : 유아교육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

이 시기는 전쟁의 폐허로 국가는 복지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1981년 복지예산 감축 중 가장 먼저 집단농장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던 급여를 받지 못했고 어린이들은 점심을 굶게 되었다. 이후 많은 교사가 시설을 떠나게 되었고 집단농장의 보육시설은 점차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직장 내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13,178개에서 1986년에는 14,930개로 1,752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한 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개방개혁)' 정책을 발표하였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사회·경제 분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배급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의료·교육은 국민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국가 자체에 시장경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되어 물건을 사고팔고 이윤을 내는 것 즉 시장경제에 익숙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었던 시대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책임이 된 교육의 투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해 유아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 분야가 퇴보하기 시작하였다.

3) 1990년 ~ 2000년 : 유아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교육의 사회화』 정책

전쟁 후 인구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자 가장 큰 문제는 유아교육기관 부족이었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이 규정을 몇 배씩 초과하게 되자 정부는 1990년부터 지역사회 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사회화'와 '시설의 다양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투자로 민

립,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 정책은 유아교육 기관의 부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교육비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표현하는 ‘사회화’는 어떤 책임이 개인에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되어 개인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사회화’는 그 의미가 달라 국가의 책임이었던 것이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2001년 ~ 2011년 현재 :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시기

2000년대에 들어서며 베트남은 공업화 현대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많은 공업 단지가 생겨났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무자격 교사에 의한 구타 및 사고 발생이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육아지원기관이 유아를 맡기는 단순 탁아가 아니라 교육을 해야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모았다.

연도별 주요 육아 및 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 베트남 연도별 육아 및 교육 관련 정책 변화

연도	주요 정책	주요 정책 내용
1962	• 직장 내 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법령	- 전국노동연맹은 기관과 사업체, 공장에 어린이집과 유아반을 개설할 책임이 있음
1964	• 중앙유아교육사범대학 설립	-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신설
1976	• 유아교육과 보육법 제정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최초의 법 제정
1981	• 집단농장의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폐지	- 육아교육기관 지원비와 식비지원 중지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 및 퇴직교사 증가
1990	• 유아교육 목표 제정	- 유아교육의 사회화로 지역사회의 투자 촉구 - 유아교육기관의 다양화(공립 이외 민립, 사립 기관)
1998	• 유아교육법 개정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중일반 운영 확대 및 지원 -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 강화
2002	• 교육발전 정책	- 유아교육의 사회화 및 시설 다양화의 구체적 방안 제시
2006	• 2006-2015 유아교육발전 계획	- 국제사회 가입 및 국가의 공업화·현대화 - 계획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계획 수립 - 취학 전 아동의 유아교육 의무화
2010	• 5세 아동의 교육 지원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지원 - 취학 전 아동 100% 수용을 위한 시설 투자

자료: 이계선(2010). 한국과 베트남 여성노동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 베트남 국립 하노이 대학교 박사논문.

교육부는 2002년 '국가 교육발전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에는 1990년 시행된 교육의 사회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의 다양화와 유아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 공립시설 외에 지역사회공동체 투자로 시설을 세우고 지방으로부터 예산을 보조 받는 민립 유치원과 개인이나 기구가 설립하는 사립 유치원 설립을 격려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교육제도와 '시설에 대한 국가 평가인증제' 등 다양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 다양화 정책에 따라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사립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었고, 1.5세부터 5세의 아동을 교육하는 어린이집도 2004년 3,290개에서 2005년 7,557개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1.5세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유아원은 대부분 폐쇄되어 2006년에는 단 63개만 운영되었다.

라. 육아지원기관의 유형과 현황

베트남의 육아지원기관은 공립, 민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광범위하게 민립은 사립에 포함된다(유치원, 어린이집은 단순히 대상의 연령에 따른 구분이다). 기관 설립은 시나 현의 인민위원장 승인이 있어야 하며, 공립기관은 가장 상위 행정기관인 교육청장의 지시를 받으며, 민립은 인민위원장, 사립은 인민위원회 산하의 교육실장이 관리한다.

1) 설립유형별 개요 및 교육비

공립 육아지원기관은 국가기관에서 설립하며 비품과 교사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와 현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민립 육아지원기관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설립하고 비품과 시설비를 지방예산에서 보조를 받으며 시의 구 인민위원회와 현의 읍, 면, 동 단위의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사립 육아지원기관은 개인 또는 기구 등에서 설립하여 국가예산이 아닌 자금과 학비로 운영하며, 시의 구와 읍, 면, 동 단위의 교육청 산하 교육실에서 관리한다.

공립기관은 정부의 예산으로 교사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을 충당하므로 식비를 포함하여 월 \$25의 저렴한 학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립 육아지원기관이 전체 기관의 64.5%를 차지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많다.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시설 보수와 비품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사립에 비해

저렴한 교육비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함으로써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교육이 아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립 육아지원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치적 교육향상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기관은 국가예산 지원 없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므로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평균 월 \$70(교육비 \$40 + 식비 \$30)의 학비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립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기관은 전체 기관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사립이라도 시설과 교육의 질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하노이의 경우 사립 육아지원기관 중 80%는 정부허가를 받았으나 약 20%정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사립은 공립보다 많은 월 \$75~\$250의 학비를 지불한다. 국가 평가인증시설인 경우, 월 평균 학비는 약 \$160(교육비 \$130 + 식비 \$30)이다.

최근에 수도 하노이시와 경제 제1의 도시인 호치민시에는 시설의 현대화와 컴퓨터교육과 영어교육 등을 실시하며 월 \$200이상의 수업료를 받는 기관도 다수 생겨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소득층에서는 월 \$700~\$1,000의 국제유치원을 보내는 가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학비가 저렴한 공립보다는 교육의 질이 높은 고급 사립에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도시 4인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이 \$400~\$500인 것을 감안하면 자녀에게 투자하는 교육비의 비중은 30~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육아지원기관별 규모 및 교육비를 정리하며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베트남 설립유형별 기관규모 및 교육비

형태	예산	규모 (기관별정원)	대상 아동	1개월 학비		
				교육비	식비, 차량	
공립	국가 예산	300-1000명	20개월 이상	\$25	교육비에 포함	
사립	비영리	지방 예산 및 학비	100-500명	18개월 이상	\$75-\$250 (국가평가 인증기관: 약 \$130)	식비:\$1-\$1.5/일 교통비:\$50/월
	영리	개인 자본 및 학비	50-300명	18개월 이상		

자료: 베트남 교육훈련부 (2011). 베트남 유아교육 실태조사.

2) 육아지원기관 현황

베트남은 1980년대 말부터 개방정책을 수립한 이후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였으나, 현재 베트남은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아교육을 산업화·현대화하여 모든 아동이 해당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곽효경·옥티투항, 2008).

육아지원기관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 현재 12,908개 기관으로, 공립 64.5%, 사립 35.5%의 비율을 나타낸다. 최근 대형 공립유치원이 2-3개로 분리되면서 학급이 증원되는 등 시설 및 투자를 증진시켜 부모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취학 전 교육의 형태로 유아원과 유치원이 존재한다. 유아원은 18개월부터 35개월 이전(즉, 만3세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은 만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아원, 유치원 모두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는 점이다. 이는 1998년 유아교육개정법 이후, 부모를 위한 지원 및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확대에 따른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유성상·Bihn, 2007; 이석희, 2007). 현재 베트남의 여성취업률은 51.9%이며 71.3%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은 10.5%에 이른다(UNESCO, 2010). 교육개정법 이전에도 이러한 농촌사회의 특성에 따른 기혼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양육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 및 산간 지역민의 유아들은 주로 친인척에 의해서 돌보아졌다. 현재에도 여성의 취업 시 유아는 대부분 친인척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유아를 탁아소나 유아원에 보낼 수 있는 부모의 경우에도 친인척이나 보모를 고용하여 집에서 양육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탁아소나 유아원의 교육의 질이 많이 낙후하여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세 미만 전체 유아의 약 87%는 가정에서 키워지고 있으며 주로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10).

<표 III-1-5> 베트남 연도별 육아지원기관 현황

단위: 개

년도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총계		9,715	10,453	11,509	12,190	12,357	12,908
Nursery 18-35개월 (유아원)	소계	157	67	65	43	41	39
	공립	108	58	44	22	29	23
	민·사립	49	9	21	21	12	16

(표 III-1-5 계속)

년도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Kindergarten 3-5세 (유치원)	소계	3,117	2,738	2,890	2,858	2,870	2,877
	공립	1,606	1,799	2,180	2,219	2,302	2,416
	민·사립	1,511	939	710	639	568	461
Pre-primary 1.5-5세 (취학 전 교육)	소계	6,441	7,648	8,554	9,289	9,446	9,992
	공립	1,885	2,637	3,236	3,950	4,704	5,895
	민·사립	4,556	5,011	5,318	5,339	4,742	4,097

자료: 베트남 교육부(2011). 베트남 교육통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취학 전 교육 취원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6> 참조). 특히, 취학 전 만 5세 취원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96년에 39%에 달했던 취원율이 2003년도에는 60%, 2004년도에는 9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취학 전 원아 등록률이며, 국가 전체가 유아교육에 대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지역사회 및 기업, 부모의 기부 등 사회의 참여 확대의 사회화와 유아교육의 산업화·현대화 발전 계획수립은 취원아 등록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UNESCO, 2004).

이석희(2007)에 의하면, 베트남의 취학 전 교육 등록자는 초기에는 국·공립 위주였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사립 육아지원기관 수가 국·공립 등록자 수에 이르면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표 III-1-6>에 제시된 최근 5년 동안의 등록자 추이는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성장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III-1-6> 베트남 설립유형별 취원아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형태	2005	2006	2007	2008	2009
사립	1,603,984	1,660,510	1,768,482	1,801,530	1,690,607
국·공립	1,150,110	1,218,544	1,344,760	1,394,201	1,614,784
계	2,754,094	2,879,054	3,113,242	3,195,731	3,305,391

자료: <http://stats.uis.unesco.org>.

마. 베트남 영유아 교원 양성 및 현황

1) 양성체제 및 교사 수급 문제

베트남의 대학체제는 2, 3, 4, 5, 6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의학계열은 6년 과정, 공학계열은 5년 과정이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은 4~2년 과정이다. 유아

교육학과는 4년제 사범대학에 17개 학과, 3년제 사범대학에 63개 학과, 2년제 사범대학에 6개 학과에서 유아교육 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졸업 후 별도의 국가자격고시 없이 졸업장을 취득한 사람은 유아교육 교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별도로 다른 계열의 학과 졸업생이 유아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에서 1년 또는 6개월 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베트남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 부족이다. 현재 전국에 25,000여 명의 유아교육교사가 부족하며, 하노이에서 3,000여명, 호치민시에서 2,000명이 부족하다. 이것은 정규 교사의 부족을 의미한다.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은 공립의 3-5세반의 경우, 40~60명이며 3세 미만 영아반도 평균 20명 이상이다. 따라서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성반 또는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2,398명의 비정규 교사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학생 선발인원을 제한하여 유아교육과의 학생 증원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사이공 사범대학의 경우 전체 선발인원 4,500명 중 초등교육학과 정원은 350명이나 유아교육학과는 120명이다. 이는 유아교육과의 대학선발 입시지원율이 타 학과에 비해 저조하며, 유아교육과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범대학에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증원이 어렵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지방예산과 학비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 유아교육 관련 학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여교사 비율

2010년 베트남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수는 291만 명이며, 학급당 평균 아동 수는 27.3명이다.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명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하여 다소 줄어들었지만 베트남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교사 부족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7> 베트남 연도별 육아지원기관수, 아동수, 교사당 아동수

단위: 개, 명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육아지원기관 수	9,715	10,453	10,927	11,509	11,696	12,190	12,357
아동 수	214만	233만	242만	252만	259만	277만	291만
학급당 평균 아동수	24.5	25.0	25.8	25.9	26.0	26.7	27.3
교사 1인당 아동수	20.7	20.6	20.7	20.5	19.9	20.1	20.1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0). 베트남 교육실태.

유아교육에서 여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표 III-1-8>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로 남교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도 여교사의 비율이 98%로 낮아지면서 약 2%정도의 남교사가 있는 것은 취학 전 교육의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표 III-1-8> 베트남 취학 전 교육 여교사 비율

단위: %

연도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교사 비율	100	100	100	100	100	98.0	98.3	99.1	98.7	98.3

자료: <http://stats.uis.unesco.org>.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0.5명씩 줄어들었다. 취학 전 교육기관 취원아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교사 수가 아동 수의 증가에 맞추어 보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수민족 유아를 위한 교사연수

2005년도에 개정법 이후, 베트남의 소수민족을 위한 취학 전 교육은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 중의 중요한 사항으로 채택되어, 베트남 언어 뿐 아니라 소수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수민족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다. 교육·훈련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는 Gia Lai 교육훈련 서비스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5세부터 2년 동안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방안으로 26주간에 걸쳐 소수민족 언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점차적으로 베트남 언어를 늘려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사 연수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Gia La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는 베트남어를 제 2외국어로 하는 유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 연수를 제공받는다. 이는 초등학교의 원활한 연계 방안으로 Gia Lai 교육훈련 서비스를 받은 유아들의 80%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베트남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베트남 또래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10).

베트남의 취학 전 교육에 관한 통계 및 문헌은 그 동안 베트남이 추진해 온 교육혁신을 보여준다. 취학 전 교육기관 취원아 수, 교사 1인당 아동 수, 취학 전 교사의 성비 및 양성에 관한 자료는 베트남의 개방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가운데 취학 전 교육의 구체적인 발전과정을 나타낸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확대는 사회주의 체제에 머물렀던 취학 전 교육을 다양화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이해는 베트남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양육가치관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

가.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개요

중앙아시아에는 러시아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17만 이상의 고려인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구소련내 한인들(약 477,400명)의 약 68%내지 70%가 거주하고 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전체 한인들의 90%가 몰려있는데, 2009년 외교통상부 통계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는 103,952명, 우즈베키스탄에는 175,939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우즈베키스탄이다(임영상, 2007; 최한우, 2000). 임영상(2007)에 의하면,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가 18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은 최소한 4세대에서 6,7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1937년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2, 3세로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고려인이 개척한 농장이 상당히 많으며, 고려인이 운영하는 국영농장 및 집단농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고려인은 주로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기술 인력이 많으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어 구사 문제, 우즈베키스탄인이 우선권을 가지는 승진차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등 고려인들 사이의 실업률은 심각한 편이다(권희영·Han·반병률, 2001).

우즈베키스탄의 총 인구는 2780만명으로 인구의 37%가 도시에 거주하며 63%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분포를 보면 전체 인구의 80%가 우즈베키스탄인, 러시아인 5.5%, 타직인 5.0%, 기타 소수족 9.5%이며 125개의 소수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45%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로 구

성되어 있다(UNICEF, 2010; Fazylov & Smirnova, 2008).

연간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며 2011년도에는 0.94%의 증가율을 보였다. 출산율(TER)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1991년 3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1년 1.7명이다. 5세 이하 영아 사망률(IMR)은 1990년도에는 74%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36%로 감소하였으며 1세 이하 영아 사망률(IMR)은 2011년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1.92명으로 나타났다.

남녀성비는 2011년도 기준으로 1.06/1.0으로 남성의 비율이 많은 편으로 남녀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나나 15세부터 64세까지의 남녀성비는 0.99/1.0로 청장년층의 남녀성비의 불균형은 거의 없다. 유아의 남녀성비의 차이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

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지표

구소련 해체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은 경제·투자의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경제성장률에서 지난 5년간 8.5%로 중앙아시아의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산업화 정책과 외국인의 직접 투자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비교적 모범적인 경제 지표를 마련했으며 다른 중앙아시아권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편이다.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0년 기준으로 8.5%의 성장률을 보였다. 1인당 GDP는 2010년 3,100달러 수준으로 2008년 2,700달러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5년도 이후부터 점차 경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GDP로는 세계 209 국가 가운데 169위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27%가 국가가 정한 빈곤기준보다 낮은 수치에 속하며 빈부격차도 심하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도 2010년도 기준으로 15%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CIA Bank Factbook, 2011; UNICEF, 2010).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산업은 면과 금으로 면 산업은 세계에서 2번째 수출국이며 5번째로 큰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 체제보다는 과거의 사회주의하의 계획경제에서 통제적 시장경제로의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이다(CIA Bank Factbook, 2011). 서구경제체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 구조적 계획화로 인해 2010년 GDP(PPP)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86억 7000만불로 경제는 매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160만명 가량

의 노동인구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구의 28%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은 GDP의 24%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의 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전체 실업률 또한 2010년도 기준 1.1%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경제개혁의 기본방침인 자유 시장경제 도입 및 독립적 금융 및 조세정책에서 빠른 개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폭등,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박상희 2003).

다.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의 발전 과정

1926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내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군이 형성되었으며, 이때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교육기관은 국유화되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1992년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교육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법안에 아동 권리와 보호의 강화, 교사 권리를 강화한 교사연수, 교육기관의 재정 자유화, 사립학교제 도입 등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개혁과 학교설립 면허 및 인가의 새로운 법을 확립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어 사용, 비즈니스, 경제 등 실무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법 제41조에 의하면, '모든 이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정부는 무상 의무제도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해야하며, 학교교육은 정부의 지도하에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무상 의무교육 제도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교육법 제3조, '교육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는 교육의 강조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법 제4조에 의하면, '모든 이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성별, 언어, 나이, 인종, 민족, 정치, 지역, 계급, 사회적 지위, 우즈베키스탄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1992년도 교육개정안은 1997년 국회법으로 통과되어 다양한 대응책으로 실행되었다. 새로운 육아지원기관과 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으로 유아들에게 외국어와 컴퓨터 과학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11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지원기관의 대상 연령을 3~6(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육아교육기관은 유치원 및 가정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의무 교육은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다(UNESCO, 2011).

2003-2005년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 육아지원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제정안

이 마련되었는데, 유아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교사 훈련 및 연수 제도, 자격증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제시 등의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교육 및 육아지원기관 질적 향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1992년 이후 600만 명이 넘는 아들이 초등학교 교육의 혜택을 누렸으며 50만명의 유아가 유치원에 취원하였다(UNESCO, 2011; 2003). 또한 유치원 학교(kindergarten-school)의 설립 과정의 정책방안으로 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사무직원의 도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유아기관에 등록된 유아취원율은 19,026천명에서 26,313천명으로 약 38%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취학 전 기관에 다니는 어린이 수는 오히려 50%가 감소하였으므로 구조적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취학 전 교육은 퇴보되었다는 견해가 강하다(신효숙 & Khan, 2007).

라. 육아지원기관 개요 및 현황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체제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띠며, 세 가지 유형인 코리코아(korikhona), 막تاب(maktab), 메드레세(medrese)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이석희 외, 2007). 우즈베키스탄의 대부분 육아지원기관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72개의 비정부 육아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의 134개 육아지원기관은 사립기관으로 지역사회공동체 시설과 가정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정부의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Fazylov & Smirnova, 2003). 지역사회공동체 및 가정시설은 최소 7-10명의 유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가 주 목적이다(UNESCO, 2003).

1) 취학 전 교육의 개요 및 현황

전반적인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은 1990년 초까지 과거 구소련의 교육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1992년도 독립 이후 정부가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개정안은 아동 권리 및 보호를 기반으로 한 우즈베키스탄어, 역사, 문학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2년 7월에 실시된 교육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설립인정과 공립학교의 수업료 징수 허가, 산학 협력체제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대부분의 개정안은 구소련시절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실시되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구소련시설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학제는 4-5-2-4, 즉 초등 4년, 중등 5년의 의무교육과 고등/전문교육 2년, 대학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체제는 그동안 교육발전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2004~5년도에 교육체제 및 프로그램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프로그램 개정 이후 29개의 교육기관이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시범운영 후 2005~6년도에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과 국가차원에서 교육표준지표의 틀을 마련하였다(UNESCO, 2011).

가) 언어 사용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130여개의 소수 민족이 모인 다민족 국가임을 인정하여 비록 국어는 우즈베크어로 사용되어지나 학교 교육은 부모가 희망하는 언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민족의 언어와 문학 교과서는 해당 민족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민족은 모국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기도 한다. 그 밖의 교과서는 해당 민족어로 번역되며, 러시아어 교재와 함께 카자흐어, 타지어, 키르키즈어 등의 교과서가 있지만, 한국어 교재는 아직 번역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장원창, 2006).

취학 전 교육에서도 우즈베크어가 국가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수민족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러시아어, 타지어, 키르키즈어, 카자크어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수준은 지극히 낮은 편으로 재외동포 2대, 3대로 이어지면서 한국어 사용수준이 현저히 줄어들어 1926년에는 98.8%, 1970년대는 74%로 하락하였고, 현재는 약 5%의 재외동포만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박상희, 2003).

나) 취학 전 교육의 목적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목적은 교육법 제11조에 제시된 바, '유아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인격형성 및 학교학습의 준비'로 유치원이나 여타의 기관에서 3~7세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목적에 따라, 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아들은 하루 3-5끼의 식사를 제공받는다. 또한 게임, 자연과 친해지기, 도덕교육, 신체운동, 음악·미술 활동, 화술 훈련,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수학, 읽기, 쓰기 교육과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부(The Ministry of Public Education)에서 제공받으나, 교육부의 동의 하에 자체적으로 활용, 개발할 수 있다(UNESCO, 2011; EFA, 2000).

다) 취학 전 교육기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유아원과 유치원이 존재한다. 유아원은 2~3세의 영아를 위한 기관이며, 유치원은 4~6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아교육은 교육부(Ministry of Public Education)의 유아교육 담당부서가 관장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제, 사립기관 및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육아지원기관은 'makhallas'라고 일컬어지며 지역사회공동체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취학 전 유아를 위한 교육 제공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집 육아지원기관을 권장하며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가정집 주인이 설립·운영하는 형태로 교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주로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UNESCO, 2011; UNESCO, 2006). 유치원에서는 그리기, 만들기, 노래하기 등을 하며,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 고려인이 많은 유치원에서는 한국어반이 만들어진 곳도 있다(장원창, 2006). 우즈베키스탄에는 우즈베키스탄어로 교육하는 취학 전 기관은 6,028개, 러시아어 기관 227개, 카라칼팍어 기관 227개, 타직어 기관 41개, 카자흐어기관 59개, 투르크멘어 기관 6개, 키르키즈어 교육기관이 2개로 집계되었다(신효숙 & Khan, 2007).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취학 전 교육은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취학 전 교육 대상자 대비 입학률은 26~27%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다. 육아교육기관은 주로 농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62.4%) 대부분이 국·공립 기관이다(Fazylov & Sumirnova, 2008).

<표 III-2-1> 우즈베키스탄 설립별 취학 전 교육 취원아와 입학률 추이

단위: 명

연도 형태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575,093	565,564	562,218	553,550	530,436
사립		3,486	3,036	2,459	3,281
국·공립	-	562,078	559,182	551,091	527,155
입학률(%)	26.5	26.9	27.3	27.2	26.2

자료: <http://stats.uis.unesco.org>.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취학 전 교육의 주요 문제는 교육기관의 수가 감소하는 점이다(이석희, 2007). 1986년 교육기관의 수가 8438개였으나

2005년에는 6495개로 감소하였는데 재외동포를 포함한 유치원과 기관의 아동수도 함께 감소하였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취원아 수는 1,125,2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565,6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50%이다. <표 III-2-1>에 따르면, 최근 취학 전 교육 취원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는 정부가 육아기관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지만, 1992년 독립 이후 정부 당국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 및 사립화 제도의 활성화와 후원기관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유아기관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 전까지 3-6세 유아의 취원율은 20% 남짓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2002년 이후의 취원율은 약 27%에 이른다. 농촌 및 산간지역의 취원율은 13% 남짓이며 남녀 간의 취원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 36-59개월 사이의 유아들의 취원율은 부유한 가정출신 유아의 취원율이 약 46%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유아의 취원율은 5%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26%만이 취학 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11).

UNESCO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자녀 발달 및 취학 전 기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의 부모가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65%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적인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UNESCO, 2006).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낮은 취원율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 취학 전 교육 예산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총예산 GDP의 10% 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2010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총예산의 약 12%를 교육에 투자하였고, 이는 전체 공공지출 50%를 차지하며 교육예산 지출 수준은 세계에서 7번째로 높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비의 지원 또한 시행되어 전체 인구의 15%가 취학 전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UNICEF, 2010; Fazylov & Sumirnova, 2008).

2) 교원 양성 및 현황

아래 <표 III-2-2>는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하는 여교사의 비율

을 제시한다. 여교사의 비율은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교사와 남교사 모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훈련된 교사이다.

<표 III-2-2> 우즈베키스탄 취학 전 교육 여교사 비율

단위: %

연도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여교사 비중	94.5	95.0	95.0	95.0	95.3

자료: <http://stats.uis.unesco.org>.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08년까지 9명대였으나 2009년에 들어서면서 8.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교사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보다 앞서 언급한대로 취학 전 교육기관의 수와 취원아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3> 우즈베키스탄 훈련된 취학 전 교사 비율과 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 명

연도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훈련된 여교사 비율	-	100	100	100	100
훈련된 남교사 비율	-		100	100	100
훈련된 교사비율	-		100	100	100
교사 1인당 학생 수	9.2	9.3	9.3	9.2	8.9

자료: <http://stats.uis.unesco.org>.

취학 전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는 90,000만 명이 넘으며 약 20% 정도가 고등교육을 수료하였으며, 77%는 교육과정만 수료한 교사이다. 교사 수 부족, 교사 전문적 자질 부족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사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우 재정과 교사의 질의 면에서 농어촌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가 서비스 질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졸업한 교사의 경우 도시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전문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UNESCO, 2011).

신효숙 & Khan(2007)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취학 전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 결과 취약계층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시 학업 및 발달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장원창(2006)은 우즈베키스탄의 시급한 교육적 과제로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으로부터 민주교육으로의 완전한 전환과 독립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에 맞는 교과서와 물질적·기술적 교육 환경의 확충을 들었다. 낡은 학교 시설의 보수,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교육자료, 교육기자재 등의 보급이 시급한 현실이다.

3. 소결

이상에서 베트남의 개방화 및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2-4>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취학 전 교육과 보육 비교

구분	베트남	우즈벡
담당행정부처	교육·훈련부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부 (Ministry of Public Education)
육아지원기관 설립유형	공립(국가 예산) 민립(지방 예산 및 학비) 사립(개인 자본 및 학비)	국공립(국가 예산) 민립(지방 예산 및 학비) 가정시설 (개인자본 및 학비)
취학 전 기관 및 대상 연령	유아원: 2-3세 대상 유치원: 3-5세 대상	유아원: 2-3세 대상 유치원 4-6세 대상
만5(6)세 취원율	90%	26%
육아지원기관 수	12,357개	6,413개
취원아 수	2,910천명	562천명
교사 대 아동 비율	1: 20.1	1: 8.9
취학 전 목표	인격 형성에 본질적인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한 기초 마련	건강하고 전인적인 인격형성과 학교학습 준비
프로그램 내용	신체 발달, 도덕성 증진, 언어·수학 발달, 음악교육 등	게임, 자연과 친해지기, 도덕교육, 신체 운동, 음악미술, 화술 훈련, 초등학교준비 수, 읽기, 쓰기 등

주: 베트남 2010년도 기준, 우즈베키스탄 2009년도 기준에 의한 자료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모두 육아지원 행정적 지원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와 달리 교육부에서만 담당하고 있으며 육아지원 보육기관 및

취학 전 교육 형태는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 5(6)세 취원율은 베트남의 경우 90%에 달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6~27% 내외이다. 베트남의 유아교육은 최근 5년 사이 육아지원기관 및 취원율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취학 전 교육의 발전상을 나타낸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혁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독립 이후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 저하 및 후원기관의 미흡으로 유아교육기관이 감소되었으며 2002년부터 성장세를 보이나, 취원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총 예산 GDP의 10%를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며 기관 이용률 등의 전반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을 소지한 교사 부족 및 낙후한 교육환경, 재정지원 미흡으로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IV.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1. 응답자 특성

본 장에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재외동포 부모 대상 설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현지 부모를 포함해 전체 1,200명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034부이다. 또한 부모 심층면담을 베트남에서 6차례, 우즈베키스탄에서 3차례 실시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한베가정), 현지 베트남가정으로 나누어 표집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주한국가정, 한국·우즈베키스탄 다문화가정(한우가정), 고려인가정,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으로 표집하여 총 7가지 유형의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가. 국가별 응답자 특성

1) 베트남 응답자 특성

베트남 응답자는 거주한국가정 263명, 한베가정 142명, 현지 베트남가정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가정별 반수씩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표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에 재외동포 거주자가 더 많아 거주한국가정은 하노이에서 104명, 호치민에서 159명, 한베가정은 하노이에서 68명, 호치민에서 74명이 참여하였다.

부모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경우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표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재외동포의 특성상 장기체류보다는 단기체류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재외동포가 포함될 경우가 있다.

나이별로 30-40대가 가장 많으며 20대의 부모는 거주한국가정에는 별로 없지만 한베가정과 현지가정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의 경우, 한베가정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다른 가정보다 학력 및 가구 소득수준이 높으며, 초혼 비율이 가장 높다. 한베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경향이 있으며, 거주한국가정에 비해서 가구 소득수준이 낮고 16.4%가 재혼가정이다.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 IV-1-1>와 같다.

<표 IV-1-1> 베트남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거주한국가정	한베가정	현지가정
	전체, 계(수)	100.0(263)	100.0(142)	100.0(120)
나이	29세 이하	1.2	16.0	23.7
	30대	50.0	42.7	63.6
	40대	39.8	26.7	11.0
	50대	8.5	13.0	1.7
	60대 이상	0.4	1.5	-
국적	한국	100.0	50.0	-
	베트남	-	47.8	100.0
현지 거주기간	1-2년	13.5	2.5	-
	3-5년	47.4	11.4	-
	6-9년	21.5	24.1	-
	10년 이상	17.5	62.0	100
학력	고졸 이하	11.3	32.6	26.5
	대학교 중퇴	3.1	10.9	21.4
	대졸 이상	85.6	56.5	52.1
현재 직업	기업체 근무	18.8	12.3	19.4
	공무원	1.6	5.1	16.5
	전문직	2.9	0.7	13.6
	학생	0.4	-	-
	농업/임업/축산업	0.8	0.7	-
	자영업	21.2	51.4	24.3
	전업 주부	41.2	22.5	15.5
	무직	13.1	7.2	10.7
월평균 가구 소득	\$500~\$1000 미만	2.4	10.6	67.5
	\$1000~\$1500 미만	6.5	15.9	8.4
	\$1500~\$2000 미만	14.2	11.5	12.0
	\$2000~\$3000 미만	17.5	31.0	6.0
	\$3000~\$5000 미만	35.8	16.8	3.6
	\$5000 이상	23.6	14.2	2.4
결혼 상태	초혼	95.7	81.3	93.0
	재혼	2.3	16.4	1.7
	이혼/별거/미혼	1.9	2.2	5.2

2) 우즈베키스탄 응답자 특성

우즈베키스탄 응답자는 거주한국가정 57명, 한우가정 22명, 고려인가정 327명,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10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베트남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거주 재외동포는 단기 체류자보다는 고려인과 같은 정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이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 가정과 함께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의 부모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베트남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한국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우즈베키스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거주한국가정	한우가정	고려인가정	현지가정
전체, 계(수)		100.0(57)	100.0(22)	100.0(327)	100.0(103)
나이	29세 이하	2.0	10.0	46.2	30.4
	30대	55.1	60.0	39.8	45.1
	40대	40.8	30.0	10.4	18.6
	50대	2.0	-	2.8	5.9
	60대 이상	-	-	0.9	-
국적	한국	100.0	45.5	-	-
	우즈베키스탄	-	50.0	96.3	100
	러시아	-	-	2.4	-
	카자흐스탄	-	-	0.6	-
	기타	-	4.5	0.6	-
현지 거주기간	1-2년	29.1	9.1	-	-
	3-5년	27.3	-	-	-
	6-9년	34.5	18.2	0.3	-
	10년 이상	9.1	72.7	99.7	100
학력	고졸 이하	8.8	13.6	31.6	19.6
	대학교 중퇴	3.5	31.8	29.8	39.2
	대졸 이상	87.7	54.5	38.7	41.2
현재 직업	기업체 근무	19.6	200	19.3	13.4
	공무원	-	-	5.6	8.2
	전문직	7.1	-	7.5	10.3
	학생	3.6	-	1.3	1.0
	농업/임업/축산	-	-	0.7	21
	자영업	21.4	35.0	20.7	25.8
	전업 주부	44.6	30.0	24.9	18.6
	무직	3.6	15.0	20.0	20.6
월평균 가구 소득	\$100 미만	-	15.8	26.9	36.0
	\$200~\$500 미만	5.5	10.5	57.6	45.3
	\$500~\$1000미만	-	15.8	12.1	10.7
	\$1000~\$2000 미만	40.0	15.8	2.7	6.7
	\$2000~\$5000 미만	47.3	42.1	0.3	-
	기타	7.3	-	0.3	1.3
결혼 상태	초혼	98.2	85.7	82.3	87.4
	재혼	1.8	14.3	8.9	9.5
	이혼/별거/미혼	-	-	8.9	3.2

고려인이나 현지인은 결혼을 빨리하는 풍습이 있어 부모의 나이가 거주한국 가정이나 한우가정에 비해 젊은 편이다. 20~30대의 영유아 부모는 대부분 강제 이주한 3, 4세대로서 한국국적을 지닌 사람은 없으며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지녔다. 20%에 달하는 실업률은 현지가정 부모와 함께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며, 가구소득 수준도 거주한국가정이나 한우가정에 비해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혼이나 이혼, 별거 비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우가정은 한베가정에 비해 부모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고 재혼 비율도 약간 낮은 편이며, 국적에 관해서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학력이나 가구소득 수준면에서 가장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다른 가정에 비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다.

나. 가정 특성별 가족 구성 및 구성원 특성

1) 가구 유형

재외동포 가정 유형별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가 한 가구를 구성하는 형태가 전체 76.3%를 차지하며 이러한 유형은 거주한국가정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며 조부모와 사는 경우는 고려인가정을 포함하는 현지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나 한조부모 가정은 고려인가정에서 상대적 빈도가 높는데 이는 고려인 부모가 취업을 위해 다른 도시나 국외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앞서 응답자 특성에서도 나타났듯이 이혼이나 별거의 비율이 다른 가정보다 높은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표 IV-1-3> 재외동포 가정 유형별 가족 구성

							단위: %(명)
구분		부부+ 자녀	조부모+ 부부+자녀	한부모+ 자녀	한조부모+ 자녀	기타	계(수)
	전체	76.3	13.7	3.2	2.6	4.3	100.0(1010)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92.6	1.2	3.9	-	2.3	100.0(258)
	한베가정	87.8	7.9	1.4	-	2.9	100.0(139)
	현지가정	65.5	25.0	6.9	0.9	1.7	100.0(116)
우 즈 벡	고려인가정	58.1	23.8	2.5	7.2	8.4	100.0(320)
	거주한국가정	100.0	-	-	-	-	100.0(57)
	한우가정	95.5	-	4.5	-	-	100.0(22)
	현지가정	71.4	19.4	3.1	2.0	4.1	100.0(98)

2) 영유아 자녀 국적

가장 어린 자녀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자녀는 대부분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한베가정의 자녀는 40.7%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거의 100%라는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 부모와의 면담 내용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우가정 자녀의 59.1%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지니고 있어 한국 국적보다는 현지 생활을 위해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른 자녀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한베가정, 한우가정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나이 어린 자녀의 현지 국적 취득 배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IV-1-4> 가정 유형별 자녀 국적 현황

						단위 %(명)	
구분		한국	베트남	기타		계(수)	
자 녀 1 ⁴⁾	베 트 남	전체	91.2	8.8	-		100.0(294)
		거주한국가정	98.3	1.7	-		100.0(240)
		한베가정	59.3	40.7	-		100.0(54)
		구분	우즈벡	러시아	한국	기타	
	우 즈 벡	전체	84.7	0.9	14.0	0.4	100.0(466)
		고려인가정	97.5	1.4	0.7	0.4	100.0(284)
	거주한국가정	1.8	-	98.2	-	100.0(56)	
	한우가정	59.1	-	36.4	4.5	100.0(22)	
자 녀 2	베 트 남	전체	94.4	5.6	-		100.0(197)
		거주한국가정	99.4	0.6	-		100.0(165)
		한베가정	68.8	31.3	-		100.0(32)
		구분	우즈벡	러시아	한국	기타	
	우 즈 벡	전체	79.1	0.8	19.3	0.8	100.0(244)
		고려인가정	98.5	1.5	-	-	100.0(132)
	거주한국가정	2.3	-	93.2	4.5	100.0(44)	
	한우가정	53.8	46.2	-	-	100.0(13)	
자 녀 3	베 트 남	전체	89.1	6.5	4.3		100.0(46)
		거주한국가정	94.7	2.6	2.6		100.0(38)
		한베가정	62.5	25.0	12.5		100.0(8)
		구분	우즈벡	러시아	한국	기타	계(수)
	우 즈 벡	전체	81.0	2.5	16.5	-	100.0(79)
		고려인가정	96.5	3.5	-	-	100.0(57)
	거주한국가정	7.1	-	92.9	-	100.0(14)	
	한우가정	-	-	-	-	-	

자녀의 한국 방문 경험 여부와 방문 횟수는 가장 어린 자녀를 동반할 경우 다른 자녀들까지도 동반하고 있어 자녀별로 구별하지 않고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거주한국가정에서는 90%이상 방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베가정에서는 60% 내외이나, 고려인가정은 대부분 한국 방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표 IV-1-5> 자녀의 한국 방문 경험 여부

			단위: %(명)	
구 분	있음	없음	계(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90.3	9.7	100.0(237)
	한베가정	64.4	35.6	100.0(59)
우즈벡	고려인가정	3.3	96.7	100.0(274)
	거주한국가정	92.5	7.5	100.0(53)
	한우가정	59.1	40.9	100.0(22)

자녀의 한국 방문 경험 횟수는 우즈베키스탄보다 베트남 가정에서 더 많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용이성이나 비용 문제, 베트남 거주 재외동포의 사업 관련 한국과의 잦은 교류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거주한국가정 자녀나 한베가정 자녀는 교육 및 한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의 자녀 중 25%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5회 이상 한국 방문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자주 한국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6> 자녀의 한국 방문 경험 횟수

			단위: %(명)					
구 분	1-2회	3-4회	5-6회	7-8회	9-10회	11회이상	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42.8	30.7	15.1	3.0	4.8	3.6	100.0(166)
	한베가정	47.1	29.4	17.6	2.9	2.9	-	100.0(34)
우즈벡	고려인가정	100.0	-	-	-	-	-	100.0(8)
	거주한국가정	55.0	37.5	7.5	-	-	-	100.0(40)
	한우가정	36.4	45.5	-	-	18.2	-	100.0(11)

국가나 가정 특성에 상관없이 자녀의 주양육자는 어머니이며,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에서 그 비중은 더 높았다. 한베가정과 고려인가정은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가 있어 영유아의 교육이나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4) 자녀 1은 가장 어린 자녀를 말하며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번호를 붙임

<표 IV-1-7> 자녀의 주 양육자

							단위: %(명)
구분		모	부	조부모	조부모외 친척	기타	계(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97.1	0.8	0.4	-	1.7	100.0(239)
	한베가정	86.2	3.4	8.6	-	1.7	100.0(58)
	고려인가정	86.0	1.5	10.3	1.5	0.7	100.0(271)
우즈벡	거주한국가정	94.7	-	1.8	-	3.5	100.0(57)
	한우가정	95.5	-	-	4.5	-	100.0(22)

2. 부모의 자녀 양육관

가. 부모의 양육 가치관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국가에 상관없이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데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으며, 다른 가정 집단과 큰 차이($p<.001$)를 보였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은 77.2%가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고 답한데 비해, 한베가정은 23.9%, 현지 베트남가정은 34.5% 동의한 데 반하여 거주한국가정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응답은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인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견을 강하게 보였으며,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

<표 IV-2-1> 육아와 부모 인생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부모 인생 소중	양육을 위해 부모 희생	계 (수)	X^2 (df) (집단별)	X^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77.2	22.8	100.0(259)	123.12(4) ***	197.08 (3)***
	한베가정	23.9	76.1	100.0(134)		
	현지가정	34.5	65.5	100.0(119)		
우즈벡	고려인가정	2.5	97.5	100.0(326)	209.18(6) ***	
	거주한국가정	67.3	32.7	100.0(55)		
	한우가정	18.2	81.8	100.0(22)		
	현지가정	5.9	94.7	100.0(95)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001$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주한국가정의 67.3%가 육아와 함께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응답한 결과와 달리, 한우가정은 18.2%, 고려인가정은 2.5%,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은 5.9%를 차지할 뿐이다. 특히, 고려인가정 부모의 희생

정신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향은 고려인 부모와의 면담 중에 보인 자녀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와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가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한 가정은 베트남에서 거주한국가정 82.6%, 한베가정 79.9%,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주한국가정 86.0%, 한우가정 90.9%를 차지하였다.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부모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표 IV-2-2> 엄마에 의한 직접 양육의 중요성

단위: %(명)

구분	만 3세까지 어머니의 양육 선호	상관 없음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82.6	17.4	100.0(259)	1.76(2)
	한베가정	79.9	20.1	100.0(135)	
	현지가정	86.2	13.8	100.0(11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73.3	26.7	100.0(327)	14.97(3)**
	거주한국가정	86.0	14.0	100.0(57)	
	한우가정	90.9	9.1	100.0(22)	
	현지가정	81.8	18.2	100.0(101)	8.83(6)*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육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가정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았으나,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자녀 양육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양 국가에서 90% 이상으로 높아 가정별로 차이($p < .01$)를 보였다.

<표 IV-2-3> 육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단위: %(명)

구분	모>부	모<부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90.9	9.1	100.0(254)	22.16(4)***
	한베가정	75.6	24.4	100.0(127)	
	현지가정	74.5	25.5	100.0(11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73.9	26.1	100.0(314)	11.52(3)**
	거주한국가정	92.3	7.7	100.0(52)	
	한우가정	85.0	15.0	100.0(20)	
	현지가정	75.8	24.2	100.0(91)	9.30(6)*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 $p < .001$.

현지가정 부모는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지만, 고려인가정 26.1%, 현지 베트남가정 25.5%,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24.2%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 한우가정의 경우,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베가정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거주한국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부모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즈베키스탄($p < .05$)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고려인가정은 아이의 교육의 대해 가장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베트남보다는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가 육아에 관해 아이의 의사를 더 존중함을 알 수 있다.

<표 IV-2-4> 육아에 대한 부모 의견 반영 정도

단위: %(명)

구분	부모 판단 및 선택	자녀의사 존중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9.5	60.5	100.0(253)	0.19(4)
	한베가정	37.3	62.7	100.0(134)	
	현지가정	38.3	61.7	100.0(115)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22.5	77.5	100.0(324)	16.61(6)**
	거주한국가정	48.1	51.9	100.0(54)	
	한우가정	27.3	72.7	100.0(22)	
	현지가정	32.0	68.0	100.0(100)	20.26(3)***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 $p < .001$.

거주한국가정 부모가 자녀 잘못에 대한 체벌 허용 수준이 가장 높았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60.5%가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타이르는 것보다 체벌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데 반하여 한베가정은 44.0%, 현지베트남가정은 52.2%로 차이($p < .05$)를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정별 차이($p < .001$)가 더 크게 나타나 거주한국가정 75.9%가 자녀 잘못에 대해 체벌을 허용하였지만 한우가정은 20.0%, 고려인가정은 7.8%, 현지우즈베키스탄가정은 12.0%에 그쳤다. 이는 앞서 거주한국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판단을 중요시 한 것과 함께 보수적인 자녀 양육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5> 자녀 잘못에 대한 체벌 허용 수준

단위: %(명)

구분	체벌 허용	말로 타이름	계(수)	χ^2 (df) (가정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0.5	39.5	100.0(256)	9.2(4)**
	한베가정	44.0	56.0	100.0(134)	
	현지가정	52.2	47.8	100.0(115)	
우즈벡	고려인가정	7.8	92.2	100.0(320)	118.04(2) ***
	거주한국가정	75.9	24.1	100.0(54)	
	한우가정	20.0	80.0	100.0(20)	
	현지가정	12.0	88.0	100.0(10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 $p < .001$.

자녀의 능력에 대한 선천적·후천적 영향에 대해서 가정에 상관없이 부모의 90% 내외는 아이의 능력이 후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국가별 혹은 가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6> 자녀의 능력에 대한 선천적·후천적 영향

단위: %(명)

구분	선천적임	후천적임	계(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7	93.3	100.0(255)
	한베가정	11.8	88.2	100.0(136)
	현지가정	12.7	87.3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14.3	85.7	100.0(315)
	거주한국가정	8.9	91.1	100.0(56)
	한우가정	-	100.0	100.0(22)
	현지 가정	8.2	91.8	100.0(98)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은 자녀가 한국인이므로 주로 한국학교 유치원이나 한인 유치원을 선택하였다. 국적에 상관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을 찾는 부모는 24.0%였으나, 현지 기관을 선택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거주한국가정이 한국학교나 한인유치원 외에 찾는 기관은 현지 기관보다 국제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국제학교를 통해서 해외에 머무는 동안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베가정이 한국학교나 한인유치원을 선택하는 비율은 거주한국가정에 비해서 높지 않으나, 프로그램이 좋은 곳을 찾아 보내고 있다는 비율이 49.3%를 차지하였다.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볼 때, 한베가정 부모는 현지 유치원 중

좋은 프로그램을 찾거나, 일부 경제력이 좋은 한배가정에서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배가정의 육아지원기관 선택과 학력의 관계가 유의미하여($p < .01$)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학교나 한인유치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고졸 이하인 부모의 자녀 현지 기관의 이용률이 다른 집단보다 3~4배 정도 높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비싼 한인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7> 자녀가 다니는 기관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현지 기관 선택	한국인/부모/방실/한인유치원 선택	집에서 가까운 기관 선택	프로그램 좋은 기관 선택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0	69.2	0.8	24.0	100.0(250)	157.08(3) ***
	한배가정	15.2	35.5	-	19.3	100.0(138)	
	현지가정	30.5	2.5	1.7	65.3	100.0(118)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1.9	8.0	16.6	73.6	100.0(314)	250.23(20) ***
	거주한국가정	34.0	4.0	4.0	58.0	100.0(50)	
	한우가정	68.4	-	-	31.6	100.0(19)	
	현지가정	1.1	10.8	11.8	76.3	100.0(93)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은 프로그램이 좋은 곳을 선택한다는 의견(58.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인유치원을 선택하였다. 이는 베트남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학교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한인유치원이 1곳 밖에 없어 선택의 폭이 좁아 상대적으로 한인유치원보다는 프로그램이 좋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한국부모가 한인유치원 외에 선택하는 기관은 대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러시아 유치원이다. 한우가정은 거주한국가정보다 한인유치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우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로 타쉬켄트 한인유치원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고려인가정(73.6%)은 프로그램이 좋은 기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고려인이 소수 민족이라 고려인만 다니는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였으며, 다른 가정보다 집에서 가까운 기관을 선택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나. 자녀 양육 시 가르치고 싶은 가치

자녀 양육 시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를 선택하는 경우, 모든 가정 집

단에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 추구보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선택한 부모가 많았으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30.2%는 개인적 행복을 선택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주한국가정의 비율은 25.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거주한국가정은 두 국가 모두에서 자녀에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개인적인 행복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행복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부모 자신에 대한 질문에서도 볼 수 있었다.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개인적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한베가정보다는 한우가정에서 자녀의 개인적 행복을 더 원하였으며, 현지가정과 고려인가정은 어른 존중의 가치를 더 강조하였다.

<표 IV-2-8> 어른에 대한 존경심 vs. 개인적 행복 추구 단위: %(명)

구분	어른에 대한 공경심	개인적 행복 추구	계(수)	χ^2 (집단별)	χ^2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9.8	30.2	100.0(252)	39.94(4)***
	한베가정	85.8	14.2	100.0(134)	
	현지가정	96.6	3.4	100.0(118)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85.5	14.5	100.0(325)	7.11(6)
	거주한국가정	75.0	25.0	100.0(56)	
	한우가정	71.4	28.6	100.0(21)	
	현지가정	87.0	13.0	100.0(100)	17.95(3)***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자아 존중감 중에서도 후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은 82.4%가 자아 존중감을 더 가르치고 싶다고 응답하여 한베가정 45.0%, 현지 베트남가정 51.8%와 큰 차이($p < .001$)를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베트남만큼 가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거주한국가정은 개인의 희생보다 자아 존중감에 대한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국가에서 개인의 희생에 가장 우위를 둔 집단은 한베가정과 한우가정으로 한베가정의 경우에는 55.0%에 달하여 가정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IV-2-9> 개인의 희생 vs. 자아 존중감 단위: %(명)

구분	개인의 희생	자아 존중감	계(수)	χ^2 (집단별)	χ^2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7.6	82.4	100.0(250)	9.78(3)*
	한베가정	55.0	45.0	100.0(131)	
	현지가정	48.2	51.8	100.0(114)	

구분	개인의 희생	자아 존중감	계(수)	X ² (집단별)	X ² (국가별)
우즈벡	고려인가정	31.6	68.4	100.0(320)	4.08(6)
	거주한국가정	21.1	78.9	100.0(57)	
	한우가정	40.9	59.1	100.0(22)	
	현지가정	34.0	66.0	100.0(97)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 $p < .001$.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은 자기 일에 대한 성취를 중시하는 비율이 48.6%로 베트남 내에서 여전히 개인적 가치에 대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베가정은 반대로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을 우위에 두고 있는 가정이 많았다($p < .05$).

<표 IV-2-10> 타인에 대한 봉사 vs. 자기 일에 대한 성취 단위: %(명)

구분	타인에 대한 봉사	자기 일 성취	계(수)	X ² (집단별)	X ² (df)(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1.4	48.6	100.0(243)	10.99(4)**
	한베가정	68.9	31.1	100.0(132)	
	현지가정	54.7	45.3	100.0(117)	
우즈벡	고려인가정	31.0	69.0	100.0(316)	45.59(3)***
	거주한국가정	63.2	36.8	100.0(57)	
	한우가정	23.8	76.2	100.0(21)	
	현지가정	36.1	63.9	100.0(97)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 $p < .001$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주한국가정 63.2%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을 우위에 두었고, 한우가정은 자기 일에 대한 성취를 우위에 두고 있어 한베가정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전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봉사 정신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기 일에 대한 성취를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사회적 행복 추구(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와 개

인적 행복 추구(남을 생각하는 마음,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사회적 행복 추구하고 개인적 행복 추구 두 영역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내 가정특성별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행복 추구보다는 개인적 행복 추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았다.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국가에 상관없이 개인적 행복 추구 부분에서 비교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IV-3-1> 자녀에 대한 부모 기대

단위:%(명)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별로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계(수)	F (집단별)	F (국가별)	
금전	거주한국가정	23.4	59.5	14.7	2.4	100.0(252)	1.60	7.80***
	한베가정	18.9	64.4	15.9	0.8	100.0(132)		
	현지가정	23.4	44.1	31.5	0.9	100.0(111)		
	고려인가정	47.1	39.7	10.8	2.5	100.0(325)	14.07***	
	거주한국가정	19.6	41.1	30.4	8.9	100.0(56)		
	한우가정	23.8	52.4	19.0	4.8	100.0(21)		
현지가정	59.8	31.4	6.9	2.0	100.0(102)			
명성	거주한국가정	20.7	55.8	20.7	2.8	100.0(251)	1.86	6.92*
	한베가정	23.7	60.3	15.3	0.8	100.0(131)		
	현지가정	21.4	48.2	30.4	-	100.0(112)		
	고려인가정	8.7	34.2	43.8	13.4	100.0(322)	3.13*	
	거주한국가정	12.5	48.2	32.1	7.1	100.0(56)		
	한우가정	19.0	47.6	28.6	4.8	100.0(21)		
현지가정	13.7	33.3	32.4	20.6	100.0(102)			
사회적 지위	거주한국가정	22.3	58.7	16.2	2.8	100.0(247)	3.45*	20.19***
	한베가정	35.3	50.4	13.5	0.8	100.0(133)		
	현지가정	28.9	49.2	21.9	-	100.0(114)		
	고려인가정	49.7	42.0	7.4	0.9	100.0(324)	16.74***	
	거주한국가정	10.7	53.6	28.6	7.1	100.0(56)		
	한우가정	33.3	57.1	4.8	4.8	100.0(21)		
현지가정	48.0	34.3	15.7	2.0	100.0(102)			
타인 배려심	거주한국가정	65.9	33.3	0.8	-	100.0(252)	1.29	5.60
	한베가정	77.0	20.7	2.2	-	100.0(135)		
	현지가정	84.3	9.6	1.7	4.3	100.0(115)		
	고려인가정	46.3	47.8	4.7	1.2	100.0(322)	3.27*	
	거주한국가정	75.0	21.4	-	3.6	100.0(56)		
	한우가정	42.9	52.4	4.8	-	100.0(21)		
현지가정	49.0	45.1	4.9	1.0	100.0(102)			
행복한 가정	거주한국가정	88.0	11.2	0.8	-	100.0(251)	0.67	68.02***
	한베가정	94.8	20.7	-	2.2	100.0(134)		
	현지가정	92.2	3.5	-	4.3	100.0(115)		
	고려인가정	95.7	3.4	0.6	0.3	100.0(326)	1.67	
	거주한국가정	94.6	1.8	-	3.6	100.0(56)		
	한우가정	95.5	4.5	-	-	100.0(22)		
현지가정	92.2	4.9	2.9	-	100.0(102)			

(표 IV-3-1 계속)

구분	매우 중요	중요	별로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계(수)	F (집단별)	F (국가별)
취미	거주한국가정	60.1	34.7	5.2	-	100.0(248)	11.83***
	한베가정	46.6	35.3	12.0	6.0	100.0(133)	
	현지가정	43.5	40.0	12.2	4.3	100.0(115)	
여가	고려인가정	39.9	47.7	10.8	1.5	100.0(323)	19.17
	거주한국가정	53.6	41.1	1.8	3.6	100.0(56)	
	한우가정	36.4	50.0	13.6	-	100.0(22)	
	현지가정	31.4	52.0	14.7	2.0	100.0(102)	2.45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 $p < .01$, *** $p < .001$

베트남에서는 한베가정이 사회적 행복 추구(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부분에서 각각 83.3%, 84%, 85.7%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거주한국가정이 개인적 행복 추구(남을 생각하는 마음,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 부분에서 각각 99.2%, 99.2%, 94.8%라고 대답하여 한베가정과 거주한국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기준의 차이를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금전부분에서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91.2%가 매우 원함, 약간 원함이라고 답해 금전에 관한 부모의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고려인가정 또한 86.8%로 금전의 기대가 다른 가정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명성에 대해서는 금전과 사회적 지위에 관한 부모의 기대가 베트남과는 달리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해석할 부분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자녀의 개인적 행복을 사회적 지위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녀 장래에 대한 부모 희망

부모가 아들에게 바라는 최종학력 수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석사학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박사학위의 선호도가 한베가정(43.3%), 현지 베트남가정(45.3%)의 비율을 보인 반면, 거주한국가정에서는 박사학위 선호도가 39.2%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석사학위 선호도가 고려인가정은 52.2%, 한우가정은 46.2%의 수치를 보여 석사학위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거주한국가정인 경우는 박사학위(30.8%)보

다 학사학위(41.0%)를 선호하였지만 다른 가정에 비해 박사학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딸에게 바라는 최종학력 수준은, 양 국가 거주한국가정에서 학사학위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정 특성별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다른 가정특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박사학위 선호가 각각 33.3%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이들의 최종학력 선호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눈여겨볼만한 사항은 거주한국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 특성별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최종학력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베트남의 경우 성별에 따른 최종학력 수준의 차이가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녀별에 따른 최종학력 수준은 부모의 남녀 직업별 선호도에서도 뚜렷하게 구분되어진다.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비교적 뚜렷한 직업별 선호도 가운데에서도 전문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 IV-3-2> 가정특성별 자녀에게 바라는 최종학력 수준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중등전문 교육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계(수)	X ² (df)	
							[집단별]	[국가별]
아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5	38.2	21.1	39.2	100.0(199)		
	한베가정	1.0	-	26.9	28.8	43.3	100.0(104)	11.45(6)
	현지가정	-	-	21.3	33.3	45.3	100.0(75)	
	고려인가정	0.4	0.4	36.4	52.2	10.5	100.0(228)	67.20(5)
	우즈베크 거주한국가정	5.1	-	41.0	23.1	30.8	100.0(39)	27.00(12)
	한우가정	-	-	38.5	46.2	15.4	100.0(13)	**
	현지가정	-	1.3	35.0	48.8	15.0	100.0(80)	
딸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6	1.1	45.4	18.6	33.3	100.0(183)	
	한베가정	1.2	-	50.6	30.1	18.1	100.0(83)	24.09(8)
	현지가정	-	-	45.8	39.8	14.5	100.0(83)	**
	고려인가정	-	0.9	47.7	45.9	5.5	100.0(220)	51.75(5)
	우즈베크 거주한국가정	2.1	2.1	41.7	29.2	25.0	100.0(48)	38.45(12)
	한우가정	-	-	28.6	64.3	7.1	100.0(14)	***
	현지가정	-	7.2	42.0	42.0	8.7	100.0(69)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제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 $p < .001$.

아들인 경우, 베트남에서 거주한국가정은 전문직 선호도가 62.6%라고 대답하여 한베가정 46.7%, 현지 베트남가정 45.3%로 차이($F=45.09$, $p<.001$)를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문직 선호도가 거주한국가정에서 51.3%의 선호도를 보여

다른 가정 집단별로 큰 차이(p<.001)를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영 관리 직, 교장, 기업체 고위 관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한우가정 46.2%, 고려인가정 42.2%, 현지우즈베키스탄가정 32.9%에 비해 거주한국가정은 25.0%로 부모의 자녀 직업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다.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주한국가정의 전문직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거주한국가정 부모가 자녀 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직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IV-3-3>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

단위: %(명)

구분	농업/축산업	자영업	서비스직	기술직/공예	사무직/기술	경영/관리	전문직	전업주부	종교인	예술가	계구	χ^2 (df)	χ^2 (df)
												(집단)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5	-	-	1.0	4.5	17.7	62.6	-	10.6	2.0	100.0(198)	
	한베가정	1.9	2.9	-	-	1.9	41.9	46.7	-	3.8	1.0	100.0(105)	45.09 (12)***
	현지가정	4.0	-	-	1.3	-	42.7	45.3	-	6.7	-	100.0(75)	
아들	고려인가정	3.8	24.2	0.5	2.8	8.5	42.2	17.1	-	0.9	-	100.0(211)	137.03 (10)
	거주한국가정	-	-	2.6	5.1	5.1	25.6	51.3	-	7.7	2.6	100.0(39)	87.12 (27)***
	한우가정	-	-	-	7.7	15.4	46.2	23.1	7.7	-	-	100.0(13)	
우즈베키스탄	현지 가정	2.5	25.3	1.3	7.6	12.7	32.9	16.5	1.3	-	-	100.0(79)	
	거주한국가정	-	1.1	1.1	0.5	9.9	12.1	59.3	-	2.7	13.2	100.0(182)	
	한베가정	-	-	-	-	18.8	21.3	46.3	1.3	1.3	11.3	100.0(80)	50.82 (14)***
딸	현지가정	-	3.7	-	-	39.0	13.4	40.2	-	1.2	2.4	100.0(82)	
	고려인가정	-	13.3	1.0	1.0	20.0	23.1	37.9	-	-	3.6	100.0(195)	36.00 (9)
	거주한국가정	-	-	-	2.1	10.4	2.1	58.3	-	8.3	18.8	100.0(48)	83.35 (24)***
우즈베키스탄	한우가정	-	-	-	-	14.3	35.7	21.4	7.1	-	21.4	100.0(14)	
	현지 가정	-	10.4	1.5	-	13.4	26.9	38.8	4.5	-	4.5	100.0(67)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001

4. 자녀의 정체성

가.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민족 정체성

자녀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95.2%)과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가정(100%) 부모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민족 정체성

단위:%(명)

구분	한인	현지인	한인/현지인	자녀의 선택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95.2	0.4	2.8	1.6	100(25)	215.68(6)***
	한베가정	38.5	3.7	50.4	7.4	100(13)	
우즈벡	고려인가정	24.3	73.0	1.1	1.6	100(18)	86.88(2)***
	거주한국가정	100.0	-	-	-	100(5)	
	한우가정	91.7	8.3	-	-	100(12)	188.71(12)***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한베가정의 경우, 한국인과 베트남으로서의 이중정체성을 원하는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고, 고려인가정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자라길 바라는 비율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우가정에서도 현지인으로 자라길 원하는 비율이 8.3%인 것으로 나타나 민족 정체성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2> 거주기간에 따른 자녀의 민족 정체성 선호도

단위:%(명)

구분	1-2년 이하	3-5년 이하	6-9년 이하	10년 이상	계(수)	χ^2 (df) (집단별)
베트남	한국인	11.1	43.7	19.6	25.6	100.0(270)
	베트남인	0.0	3.0	0.0	97.0	100.0(33)
	이중정체성	5.6	11.1	30.6	52.8	100.0(36)
	자녀 선택 존중	5.3	11.1	2.6	84.2	100.0(38)
우즈벡	한국인	16.4	13.6	19.1	50.9	100.0(110)
	고려인	0.0	0.0	0.8	99.2	100.0(131)
	우즈벡인	0.0	0.0	33.3	66.7	100.0(3)
	러시아인	0.0	0.0	0.0	100.0	100.0(3)
	자녀 선택 존중	0.0	0.0	0.0	100.0	100.0(134)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자녀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서 현지 거주기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기간과 자녀에 민족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거주 기간이 길수록 이중 정체성이나 자녀의 선택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거주한 부모 모두 자녀의 선택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현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재외동포

부모는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베트남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에 대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에서 매우 그러하다는 응답이 63.8%, 한베가정 47.2%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가정이 87.8%, 거주한국가정이 85.2%, 한우가정이 52.4%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한베가정의 경우, 남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는 응답이 54.2%에 비해, 여성인 경우 30.0%가 대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도 30%로 나타나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인 경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우가정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남녀별로 매우 그러하다는 대답이 50.0%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는 전체적으로 거주한국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한우가정의 8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한베가정은 63.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한베가정의 여성인 경우 48.6%, 한우가정의 여성이 91.7%의 비율로 나타나 한국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서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차이,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만족도 및 한국인 남편에 대한 만족도에서 기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나, 다른 요인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IV-4-3> 한국에 대한 태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F (집단별)	t/F (국가별)
본인 배우자 한국인인 자부심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1	7.4	26.7	63.8	100.0(243)	177.67***	240.54
	한베가정	4.7	17.3	30.7	47.2	100.0(12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2.2	0.6	9.4	87.8	100.0(320)	6.75**	***
	거주한국가정	-	3.7	1.1	85.2	100.0(54)		
	한우가정	-	14.3	33.3	52.4	100.0(21)		
한국 문화 이해정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7	5.0	32.6	60.7	100.0(242)	160.06***	-15.29***
	한베가정	9.1	38.0	26.4	26.4	100.0(12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1.9	28.2	53.6	6.3	100.0(319)	48.84***	
	거주한국가정	-	3.8	28.3	67.9	100.0(53)		
	한우가정	4.5	22.7	40.9	31.8	100.0(22)		
부모 자신 한국어 필요성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4.8	1.3	6.6	87.3	100.0(228)	127.71***	-59.71***
	한베가정	2.5	4.2	30.0	63.3	100.0(12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2.2	4.4	40.0	53.4	100.0(320)	19.76***	
	거주한국가정	-	-	1.9	98.1	100.0(53)		
	한우가정	-	-	13.6	86.4	100.0(22)		

(표 IV-4-3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F (집단별)	t/F (국가별)
자녀 한국어 필요성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2	0.4	6.5	87.9	100.0(231)	112.65***	54.27***
	한베가정	2.4	2.4	11.2	84.0	100.0(125)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고려인 거주한국가정	0.9	2.8	33.9	62.4	100.0(319)	16.14***	
	한우가정	-	-	1.9	98.1	100.0(53)		
자녀 한국어 습득의 중요성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4.8	0.4	6.2	88.5	100.0(227)	21.07***	7.06**
	한베가정	2.3	3.1	6.3	88.3	100.0(128)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고려인 거주한국가정	0.9	2.2	26.7	70.2	100.0(322)	6.85**	
	한우가정	-	-	5.7	94.3	100.0(53)		
		-	4.5	9.1	86.4	100.0(22)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5. 소결

재외동포의 영유아 양육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정체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자녀 양육관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가정(부모가 모두 한국인)은 개인적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베가정, 한우가정, 고려인가정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거주한국가정의 개인적 가치 선호 경향은 자녀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어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개인적 행복을, 집단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아 존중감을 우위에 두었다. 또한, 거주한국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보수적인 양육관을 가지고 있어 자녀가 버릇없이 행동할 경우 체벌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동의하였으며,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기는 했으나, 다른 가정에 비해 부모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였다.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가정의 유형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 한우가정에서 더 동의하였으며 해당 국가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자녀 양육에 아버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늘어났다.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 및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외동포 부모의 자녀 양육관을 반영하는 하나의 척도로 재외동포 가정의 육

아지원기관의 선택 현지 현황을 알아본 결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가정은 자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나 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한우가정이나 한베가정은 한인유치원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우가정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자녀가 한글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한인유치원을 선택하였다. 고려인가정은 자녀가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기관 선택에서는 프로그램이 좋은 러시아 유치원을 가장 선호하였다. 고려인 부모 역시 자녀 교육열이 높아,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경우, 개인적 행복 추구(남을 생각하는 마음, 행복한 가정, 취미나 여가)가 사회적 행복(금전, 명성, 사회적 지위)보다 높게 나타났다. 딸, 아들에게 기대하는 학력이나 직업에 관해 거주한국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들은 딸보다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체성 부분에서 거주한국가정은 부모 모두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했으며, 한베가정, 한우가정에서는 부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원하지만 현지 출신 어머니는 베트남인이나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과 현지인으로서의 이중정체성을 원하거나 혹은 자녀의 선택에 맡기고자 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면 베트남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정서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지에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인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한국가정은 대체로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보다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였다. 한베가정, 한우가정에서는 거주한국가정과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와 현지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어머니의 가치관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정체성 관련 부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려인가정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이주 3, 4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및 한국어보다는 현지의 문화나 언어 습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한국어 습득에 대한 열망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고려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V.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실태와 요구

1.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실태와 요구

가.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실태

1) 가정유형별 부모와 자녀의 언어 사용

가) 부모와 자녀의 일상생활 언어

부모와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자신의 국적어이다. 한베가정의 경우, 아버지는 한국어, 어머니는 베트남어를 주로 사용하며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우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는 주로 러시아어, 아버지는 한국어를 사용하나 두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1> 부모의 일상생활 언어

		단위: %(명)					
구분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기타	계(수)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97.6	0.8	-	1.6	100.0(250)	
	한베가정	32.6	34.1	2.2	31.1	100.0(135)	
	현지가정	3.4	92.4	0.8	3.4	100.0(119)	
구분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한국어	영어	기타	
우 즈 벡	고려인가정	98.5	-	0.3	-	1.2	100.0(327)
	거주한국가정	-	-	96.5	-	3.5	100.0(57)
	한우가정	50.0	4.5	45.5	-	-	100.0(22)
	현지가정	64.7	27.5	-	-	7.8	100.0(102)

자녀의 일상생활 언어에 관해서 거주한국가정 자녀는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며, 베트남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혼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베가정과 한우가정의 부모는 출신국에 따른 언어를 사용하였으나 자녀의 15~16%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한베가정에서 현지어(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자녀는 52.7%, 한우가정에서 현지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자녀는 83.3%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더 많아 한국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고려인가정의 자녀는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와 차이가 없었다.

<표 V-1-2> 자녀의 일상생활 언어

							단위: %(명)
구분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기타	계(수)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90.7	2.0	0.8	6.5	100.0(246)	
	한베가정	14.5	52.7	0.8	32.1	100.0(131)	
	현지가정	1.7	93.2	-	5.1	100.0(117)	
구분		러시아어	우즈벡어	한국어	영어	기타	
우 즈 벡	고려인가정	98.2	-	-	-	1.8	100.0(280)
	거주한국가정	1.8	-	94.6	-	3.6	100.0(56)
	한우가정	72.2	11.1	16.7	-	-	100.0(18)
	현지가정	63.6	31.3	-	-	5.1	100.0(99)

나) 자녀의 현지어 사용

거주한국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현지어에 능숙하지 못하며, 전혀 못하는 자녀들이 베트남에서 47.1%, 우즈베키스탄에서 61.4%를 차지하였다.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의 비율은 베트남에서 더 높았는데 우즈베키스탄어나 러시아어에 비해 베트남어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어 습득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한국가정 부모는 자녀의 현지어 능력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며 과반수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1-3> 자녀의 현지어 능력

							단위: %(명)	
구분		매우잘함	잘함	보통	어려워함	전혀못함	계(수)	
가 장 어 린 자 녀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4.1	5.3	11.9	31.6	47.1	100.0(244)
		한베가정	34.3	24.6	35.1	3.7	2.2	100.0(134)
		현지가정	36.8	26.3	35.1	0.9	0.9	100.0(114)
	우 즈 벡	고려인가정	63.8	12.5	5.4	6.5	11.8	100.0(279)
		거주한국가정	-	8.8	5.3	24.6	61.4	100.0(57)
		한우가정	38.1	14.3	14.3	23.8	9.5	100.0(21)
	현지가정	55.7	14.4	5.2	8.2	16.5	100.0(97)	

한베가정 자녀의 베트남어 능력은 거의 보통 이상 수준이나 자녀의 현지어 능력을 걱정하는 부모가 30%나 차지하였다. 한우가정에서는 한국어를 더욱 강

조하는 경향이 있어 현지어를 어려워하거나 전혀 못하는 자녀들이 30% 정도로 나타났으나 현지어 능력을 걱정하기 보다는 전혀 염려하지 않거나(57.1%), 자라면서 괜찮아 질 것(42.9%)이라고 생각하였다. 고려인가정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어를 사용하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우즈베키스탄어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는 극소수(2.4%)였다.

<표 V-1-4> 자녀의 현지어 능력에 대한 염려 정도 단위: %(명)

구분		염려하지 않음	별로 염려 않음	약간 염려함	매우 염려함	계(수)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46.1	25.4	26.3	2.1	100.0(193)
	한베가정	20.0	40.0	10.0	30.0	100.0(10)
	현지가정	-	66.7	33.3	-	100.0(3)
우 즈 벡	고려인가정	19.0	58.3	20.2	2.4	100.0(84)
	거주한국가정	48.9	38.3	8.5	4.3	100.0(47)
	한우가정	57.1	42.9	-	-	100.0(7)
	현지가정	17.2	51.7	27.6	3.4	100.0(29)

다) 자녀의 한국어(고려어) 사용

거주한국가정의 자녀는 한국어를 일상 언어로 하지만 나이가 많은 자녀가 오히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 사용 빈도가 낮아지면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짐을 나타낸다.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 자녀의 7%와 5.5%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5> 자녀의 한국어(고려어) 능력 단위: %(명)

구분		유창	잘함	보통	어려움	전혀 못함	계(수)	
자 녀 1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45.5	27.9	14.3	5.3	7.0	100.0(244)
		한베가정	6.9	13.0	23.7	38.2	18.3	100.0(131)
	우 즈 벡	고려인	0.7	0.4	1.1	7.4	90.3	100.0(269)
자 녀 2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47.3	38.2	5.5	3.6	5.5	100.0(55)
		한우가정	10.0	20.0	30.0	10.0	30.0	100.0(20)
	우 즈 벡	한국인	53.8	28.9	12.1	2.3	2.9	100.0(173)
	베 트 남	한베가정	11.0	16.4	26.0	39.7	6.8	100.0(73)
	우 즈 벡	고려인가정	0.8	1.7	0.8	2.5	94.1	100.0(118)
		거주한국가정	52.3	40.9	4.5	-	2.3	100.0(44)
		한우가정	9.1	54.5	18.2	18.2	-	100.0(11)

한베가정과 한우가정에서는 반대로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어를 잘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다문화가정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다가 한국학교나 한인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한국어 습득을 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고려인가정은 고려어(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전혀 못한다는 비율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한국어(고려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집단은 주로 한베, 한우가정이나 한베가정 부모가 염려하는 정도가 더 컸다. 양쪽 부모가 한국인인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8~9%도 자녀의 한국어 사용에 대해 매우 염려하였다. 자녀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이 있거나 현지기관을 이용할 경우, 현지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가정의 경우, 고려어(한국어)가 일상 언어가 아니지만 자녀의 고려어 능력에 대해 32.9%가 염려한다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보다는 베트남 재외동포가 한국어 사용에 대해 염려하였다.

<표 V-1-6> 자녀의 한국어(고려어) 능력에 대한 염려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염려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염려함	매우 염려함	계(수)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34.4	46.9	9.4	9.4	100.0(32)
	한베가정	2.6	34.6	39.7	23.1	100.0(78)
우 즈 베크	고려인가정	13.8	53.3	24.2	8.7	100.0(289)
	거주한국가정	50.0	33.3	16.7	-	100.0(6)
	한우가정	14.3	42.9	42.9	-	100.0(7)

2) 자녀 양육의 실제

가)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정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수준에 대해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내 가정별 뚜렷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모든 가정별로 90% 내외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 모두에서 거주한국가정이 자기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한베가정과 한우가정 부모가 현지 가정보다 부모로서의 성장을 느꼈다.

아이 양육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정도는 베트남에서 가정 간의 차이가 있어 ($p < .001$), 거주한국가정이 65.8%로 가장 높고, 한베가정 39.3%, 현지 베트남가정 21.9% 순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가정 70.0%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거주한국가정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 가정은 50.9%만이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대답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양육에서 오는 혼란을 가장 덜 느끼고 있었다.

부모가 아이를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 베트남 가정 별로 차이는 없으나,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의 72.4%가 아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짜증스럽게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현지 베트남가정 부모보다 자녀 양육에 긍정적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주한국가정의 75.4%, 한우가정의 81.8%가 긍정적이던데 반해 고려인가정은 52.3%, 현지부모는 55.9%만이 자녀를 귀찮게 여기거나 짜증스럽게 느끼지 않아 가정 간 차이($p < .001$)가 있었다. 문항 간 분석을 통해, 가정 특성에 상관없이 자녀를 귀찮거나 짜증스럽게 느끼는 부모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해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한베가정, 현지 베트남가정, 고려인가정, 현지 우즈베키스탄 가정에서 더욱 잘 드러났으며($p < .001$),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p < .01$).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은 기분에 대해서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 가정 부모(23.7%)가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앞서 부모가 아이를 귀찮고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동의 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 않아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한베가정은 14.8%, 현지가정 5.4%가 참고만 사는 것 같다고 응답하여 가정별로 차이($p < .001$)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가정 47.4%가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것 같다고 하여 거주한국가정은 8.8%, 한우가정 30.0%에 비해 고려인가정 부모의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아이를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부분에서도 고려인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지 베트남과 현지 우즈베키스탄 가정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95%내외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에 대해,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3.5%만이 매우 동의하였으나 한베가정에서는 10.4%, 현지가정에서는 35.3%로 나타나 가정별로 큰 차이($p < .001$)가 있었다.

<표 V-1-7>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정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F (집단별)	F (국가별)	
양육 동한 자아 성장 경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7	5.4	36.4	55.4	100.0(258)	0.89	3.70*
		한베가정	2.3	9.1	39.4	49.2	100.0(132)		
		현지가정	0.9	16.4	17.3	65.5	100.0(110)		
	우즈벡	고려인가정	1.5	3.1	33.3	62.1	100.0(327)	4.19	
		거주한국가정	-	1.8	17.5	80.7	100.0(57)		
		한우가정	-	4.5	40.9	54.5	100.0(22)		
	현지가정	5.9	1.0	39.2	53.9	100.0(102)			
양육 방법 혼란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7.8	26.5	55.6	10.1	100.0(257)	42.59***	3.10*
		한베가정	21.5	39.3	34.8	4.4	100.0(135)		
		현지가정	39.5	38.6	16.7	5.3	100.0(114)		
	우즈벡	고려인가정	13.5	16.5	55.7	14.4	100.0(327)	2.10	
		거주한국가정	15.8	33.3	45.6	5.3	100.0(57)		
		한우가정	13.6	22.7	54.5	9.1	100.0(22)		
	현지가정	14.7	19.6	53.9	11.8	100.0(102)			
자녀를 귀찮게 여김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6.5	45.9	25.3	2.3	100.0(257)	3.00	7.46***
		한베가정	33.6	38.8	23.9	3.7	100.0(134)		
		현지가정	25.4	38.6	23.7	12.3	100.0(114)		
	우즈벡	고려인가정	21.5	30.8	40.0	7.7	100.0(325)	5.34***	
		거주한국가정	29.8	45.6	21.1	3.5	100.0(57)		
		한우가정	50.0	31.8	13.6	4.5	100.0(22)		
	현지가정	31.4	24.5	38.2	5.9	100.0(102)			
참고만 사는것 같음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1.1	54.5	20.6	3.1	100.0(257)	35.24***	6.96***
		한베가정	56.3	28.9	8.9	5.9	100.0(135)		
		현지가정	67.9	26.8	5.4	-	100.0(112)		
	우즈벡	고려인가정	28.4	24.2	32.4	15.0	100.0(327)	6.15***	
		거주한국가정	31.6	59.6	8.8	-	100.0(57)		
		한우가정	50.0	20.0	25.0	5.0	100.0(20)		
	현지가정	32.3	23.2	27.3	17.2	100.0(99)			
자녀 양육이 행복함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1	0.8	14.8	81.3	100.0(256)	0.19	.25
		한베가정	1.5	2.9	11.8	83.8	100.0(136)		
		현지가정	3.4	2.5	7.6	86.4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2.5	1.2	12.7	83.6	100.0(324)	0.90	
		거주한국가정	1.8	-	5.3	93.0	100.0(57)		
		한우가정	-	-	18.2	81.8	100.0(22)		
	현지가정	-	2.0	13.7	84.3	100.0(102)			
자녀에게 화풀이 충동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1.1	42.0	23.3	3.5	100.0(257)	55.94***	.24
		한베가정	26.7	29.6	33.3	10.4	100.0(135)		
		현지가정	5.2	21.6	37.9	35.3	100.0(116)		
	우즈벡	고려인가정	52.0	28.6	15.7	3.7	100.0(325)	2.36	
		거주한국가정	38.6	38.6	21.1	1.8	100.0(57)		
		한우가정	66.7	23.8	9.5	-	100.0(21)		
	현지가정	60.0	25.0	14.0	1.0	100.0(100)			
자녀의 장래걱정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6.5	31.8	37.6	14.1	100.0(255)	19.08***	42.89***
		한베가정	6.6	23.4	35.0	35.0	100.0(137)		
		현지가정	11.9	19.5	19.5	49.2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3.7	2.8	17.5	76.0	100.0(325)	45.55***	
		거주한국가정	21.4	30.4	35.7	12.5	100.0(56)		
		한우가정	-	-	40.9	59.1	100.0(22)		
	현지가정	4.0	7.0	18.0	71.0	100.0(10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벡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 $p < .001$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정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거주한국가정(22.8%), 고려인가정 부모(19.4%), 한우가정 부모(9.5%)순으로, 한우가정 부모가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양쪽 국가 모두에서 거주한국가정의 염려 정도가 가장 약했으며, 베트남보다는 우즈베키스탄 부모의 염려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14.1%만이 매우 걱정된다고 하였으나 한베가정은 35.0%, 현지 베트남가정은 49.2%에 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주한국가정의 12.5%만이 매우 걱정된다고 하였으나 한우가정 59.1%, 고려인가정 76.0%,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71.0%가 동일한 염려 수준을 보였다. 특히, 한우가정 부모 모두 자녀가 잘 성장할지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베가정의 경우보다 염려 수준이 높았다.

나)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양육비용, 육아정보 선택, 부모 역할, 부모의 친밀감 정도, 체협 활동 빈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일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보자면, 국가에 상관없이 거주한국가정 부모가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거주한국가정은 한베가정의 2배, 현지 베트남의 가정의 3배 정도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현지 베트남 가정별로 차이($p < .001$)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주한국가정과 고려인가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68.4%, 66.3%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한우가정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한베가정, 현지 베트남가정, 고려인가정, 우즈베키스탄 현지가정에서는 부모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수록 자녀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의견 사이에 상관을 보였다.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더 조바심을 내거나 염려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육아 정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의 67.8%가 혼란스럽다고 느꼈으며, 한베가정 45.6%, 현지 베트남가정 33.6% 순으로 이어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정 간의 차이는 없으나 거주한국가정보다 한우가정 부모가 육아 정보를 선택하는 데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려인가정의 수준은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의 중간 수준이나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는 부모가 13.5%로 가장 많았다.

<표 V-1-8>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F (집단별)	F (국가별)	
양육 비용 부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7	16.1	47.8	29.4	100.0(255)	58.57***	1.67
		한베가정	15.6	45.2	16.7	12.6	100.0(135)		
		현지가정	22.4	56.9	14.7	6.0	100.0(116)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9.0	14.7	50.9	15.3	100.0(326)	2.58	
		거주한국가정	7.0	24.6	52.6	15.8	100.0(57)		
		한우가정	22.7	27.3	45.5	4.5	100.0(22)		
	현지가정	28.4	16.7	40.2	14.7	100.0(102)			
육아 정보 선택 혼란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4.7	27.5	55.3	12.5	100.0(255)	18.91***	1.14
		한베가정	11.0	43.4	35.3	10.3	100.0(136)		
		현지가정	18.5	47.9	24.4	9.2	100.0(11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19.4	22.2	44.9	13.5	100.0(325)	1.86	
		거주한국가정	7.0	49.1	13.9	-	100.0(57)		
		한우가정	9.1	22.7	59.1	9.1	100.0(22)		
	현지가정	32.0	13.0	46.0	9.0	100.0(100)			
부모 역할 부족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4.5	40.4	39.2	5.9	100.0(255)	1.19	4.83**
		한베가정	20.6	42.6	29.4	7.4	100.0(136)		
		현지가정	15.3	44.9	28.0	11.9	100.0(118)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51.2	22.4	22.1	4.3	100.0(326)	4.15**	
		거주한국가정	29.8	31.6	36.8	1.8	100.0(57)		
		한우가정	22.7	18.2	59.1	-	100.0(22)		
	현지가정	45.1	21.6	28.4	4.9	100.0(102)			
친밀감 부족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4.1	44.7	24.9	6.2	100.0(257)	14.10***	2.64
		한베가정	50.0	31.8	15.2	3.0	100.0(132)		
		현지가정	44.7	37.7	14.0	3.5	100.0(11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65.0	15.0	12.9	7.1	100.0(326)	2.02	
		거주한국가정	33.3	42.1	21.1	3.5	100.0(57)		
		한우가정	61.9	14.3	23.8	-	100.0(21)		
	현지가정	57.8	20.6	14.7	6.9	100.0(102)			
체험동 장소 부족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4	3.5	24.5	66.5	100.0(257)	122.14***	35.58***
		한베가정	8.9	33.3	30.4	27.4	100.0(135)		
		현지가정	26.5	51.3	12.8	9.4	100.0(11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49.8	21.4	19.6	9.2	100.0(327)	25.716***	
		거주한국가정	3.5	10.5	56.1	29.8	100.0(57)		
		한우가정	42.9	9.5	38.1	9.5	100.0(21)		
	현지가정	54.9	15.7	18.6	10.8	100.0(102)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 $p < .001$.

부모 역할에 대한 자기 평가는 국가별로 베트남 거주한국가정과 우즈베키스탄 한우가정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지 베트남 가정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거주한국가정 38.6%, 한우가정 59.1%, 고려인 26.4%,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33.3%로 차이($p < .05$)를 보였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31.1%가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였으며, 한베가정 18.2%, 현지 베트남가정의 17.5%에 비해 많은 편

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부모들의 자기 역할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던 것과도 연결되어 부모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부모는 가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 함께 야외 체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모두에서 거주한국가정의 불만이 가장 높았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91.1%가 야외 체험활동 할 곳이 없다는 데에 동의한 반면 한베가정은 57.8%, 현지 베트남 가정은 22.2%로 조사되어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불만이 월등히 높았다($p<.001$).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주한국가정은 86.0%, 한우가정은 47.6%, 고려인가정 28.7%, 현지 우즈베키스탄인 29.4%로 나타나 가정 간 차이($p<.001$)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 비해 문화·교육 시설이 부족하여 여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는 재외동포 부모와의 면담 내용과도 일치한다.

다) 자녀 생활 지도의 실제

자녀를 양육할 때 실제로 행동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방법, 자녀의 일 스스로 하도록 하기, 바깥놀이 하기, 타인 배려하기, 인사하기의 주제로 나누어서 부모의 양육 실재를 조사, 비교해보았다.

자녀의 잘못에 부모가 대처하는 방법은 국가별, 가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에서 거주한국가정은 91.2%가 말로 타이르는 편이었으나 한베가정은 38.0%, 현지 베트남가정은 9.3%에 미쳤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부모만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 말로 타이르는 편에 속하였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 거주한국, 한우, 현지가정의 다수가 말로 타이른다고 하여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p<.001$)가 있었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부모보다는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 가정 부모의 체벌 허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가정은 97.9%가 말로 타이르며, 한우가정의 100%가 말로 타이른다고 하여 한베가정(38.0%)의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잘못에 말로 타이르는 부모들은 자녀를 귀찮거나 짜증스럽게 느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베트남 거주한국가정($p<.001$), 한베가정($p<.001$), 현지 베트남가정($p<.001$),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p<.001$)에서 볼 수 있었다.

자녀가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 혼자 하도록 둔다는 항목에 대해서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 한베, 현지가정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현지가정 부모가 약간 더 자녀 스스로 하게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녀 스스로 하게 하는 비율이 거주한국가정에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고려인가정은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 꼭 부모가 도와주는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아 27.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도 유의미하게 드러나($p<.001$) 재외동포의 양육 방식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표 V-1-9> 자녀 양육 실제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F (집단별)	F (국가별)	
말로 타이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2	7.7	51.9	39.2	100.0(260)	162.04***	28.54***
		한베가정	8.8	53.5	18.2	19.7	100.0(137)		
		현지가정	21.2	69.5	6.8	2.5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0.9	1.2	23.0	74.8	100.0(326)	18.51***	
		거주한국가정	3.5	14.0	50.9	31.6	100.0(57)		
		한우가정	-	-	4.8	95.2	100.0(21)		
	현지가정	4.9	2.0	16.7	76.5	100.0(102)			
혼자 해결	베트남	한국인가정	5.4	26.5	40.0	28.1	100.0(260)	3.36*	8.37***
		한베가정	7.3	24.1	38.0	30.7	100.0(137)		
		현지가정	0.8	30.5	21.2	47.5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27.8	23.2	34.6	14.4	100.0(327)	5.43***	
		거주한국가정	1.8	24.6	52.6	21.1	100.0(57)		
		한우가정	19.0	33.3	28.6	19.0	100.0(21)		
	현지가정	20.6	26.5	35.3	17.6	100.0(102)			
야외 놀이 권장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9	48.3	35.1	9.7	100.0(259)	1.84	2.37
		한베가정	6.0	57.5	24.6	11.9	100.0(134)		
		현지가정	3.4	54.2	20.3	22.0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14.3	14.3	43.3	28.0	100.0(321)	2.50	
		거주한국가정	1.8	45.6	45.6	7.0	100.0(57)		
		한우가정	9.5	38.1	38.1	14.3	100.0(21)		
	현지가정	12.4	12.4	42.3	33.0	100.0(97)			
피해 주지 않기로 주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0.4	2.7	33.6	63.3	100.0(259)	2.12	2.97
		한베가정	1.5	7.4	32.6	58.5	100.0(135)		
		현지가정	0.8	10.2	28.8	60.2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5.2	6.7	28.2	59.8	100.0(326)	2.27	
		거주한국가정	-	1.8	28.1	70.2	100.0(57)		
		한우가정	4.8	4.8	23.8	66.7	100.0(21)		
	현지가정	3.0	4.0	26.0	67.0	100.0(100)			
인사 강요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0.4	6.6	45.9	47.1	100.0(257)	13.75***	5.17**
		한베가정	-	5.8	22.6	71.5	100.0(137)		
		현지가정	0.8	7.6	11.0	80.5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3.4	4.0	14.7	78.0	100.0(327)	4.83**	
		거주한국가정	-	-	56.1	43.9	100.0(57)		
		한우가정	-	4.8	14.3	81.0	100.0(21)		
	현지가정	1.0	-	13.7	85.3	100.0(102)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벡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바깥놀이를 권장하는 것은 가정 간 차이가 없으며, 국가별로 거주한 국가정과 한우가정과 한베가정을 비교할 경우 베트남보다는 우즈베키스탄 재외

동포가 자녀의 바깥놀이를 권장하였다. 현지 베트남 가정별로는 응답 수준이 유사하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주한국가정(52.6%)이나 한우가정(52.4%)보다는 고려인가정(71.3%)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부모(75.3%)가 자녀의 바깥놀이를 권장하였다.

남을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국가에 상관없이 거주한국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주의를 주고 있었다. 이는 베트남 재외동포들이 현지 사회 전반적으로 서비스나 예절의 개념이 부족하다고 말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실제로 한베가정이나 현지 베트남가정에서 남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의를 준다는 부모는 거주한국가정의 경우보다 적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1.8%만이 자녀에게 주의를 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남을 위한 배려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인, 한우, 현지가정은 비슷한 수준으로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어른에게 인사하기를 강요하는 정도는 예상외로 두 국가 모두에서 거주한국가정이 가장 덜 강요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거주한국가정에서는 인사하기를 약간 강조한다고 하였으나, 한베·한우가정, 고려인가정, 현지가정에서는 인사하기를 매우 강조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거주한국가정 부모가 인사하기를 덜 중요시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주한국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어른에게 인사하기를 생활 속에서 습득하여 별로 강요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한베·한우가정이나 현지 가정들의 경우에는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가 강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식 예절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거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베·한우가정의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실외 체험 활동(예. 도서관, 공원, 박물관 가기 등) 횟수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은 44.7%가 거의 체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앞서 실외 체험 활동을 위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만이 있었던 부분을 설명해준다. 거주한국가정의 14.4%만이 한 달 평균 3회 이상 실외 체험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한베가정과 현지가정에서는 각각 25.6%, 29.2%가 3회 이상 실외 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반대로 거주한국가정 자녀가 가장 자주 실외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가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V-1-10> 자녀와의 실외체험활동 월 평균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1-2회	3-4회	5-6회	평균 횟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44.7	40.8	12.5	2.0	1.94
	한베가정	18.8	55.6	21.8	3.8	2.54
	현지가정	25.7	45.1	21.2	8.0	2.52
우즈벡	고려인가정	19.6	56.5	18.0	6.3	2.32
	거주한국가정	10.5	43.9	28.1	17.5	2.53
	한우가정	18.2	54.5	18.2	9.1	2.18
	현지가정	16.8	50.5	27.7	5.0	2.34

라) 부모로서의 역할 평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평가한 결과,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부모 3.5%만이 자신의 역할을 매우 충분하다고 인식하여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베가정보다는 현지가정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가정별로 차이($p < .001$)가 있었다.

<표 V-1-11> 부모로서의 역할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계(수)	F(집단별)	F(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5	22.5	44.2	27.1	2.7	100.0(258)	21.12***	.44
	한베가정	9.4	38.8	36.0	13.7	2.2	100.0(139)		
	현지가정	10.3	25.1	23.9	10.3	3.4	100.0(117)		
우즈벡	고려인가정	17.1	22.3	27.8	31.5	1.2	100.0(327)	2.99*	
	거주한국가정	5.3	29.8	35.1	28.1	1.8	100.0(57)		
	한우가정	13.6	22.7	31.8	27.3	4.5	100.0(22)		
	현지가정	19.0	32.0	34.0	14.0	1.0	100.0(10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벡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 $p < .001$.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거주한국가정 부모 5.3%만이 자신의 역할이 매우 충분하다고 인식하여 고려인 17.1%, 한우가정 13.6%, 현지가정 19.0%와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고려인가정이나 한우가정보다는 현지인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역할 수행 수준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수준이나 기대치를 반영한다.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부모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이 부족하게 느끼는지 조사하였다. 베트남 거주한국가

정은 지식·학업지도(33.3%), 한베가정은 생활태도·습관지도(36.4%)와 지식·학업지도(25.0%)를 꼽았다.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은 베트남과는 달리 정서적 지지(29.4%)를 선택하였으며, 한우가정은 정서적 지지(28.6%)와 지식·학업지도(28.6%), 고려인가정은 정서적 지지(33.7%)라고 응답하였다. 베트남 재외동포 가정에서는 주로 지식·학업지도 면에서 자신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모로서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12> 부모로서의 역할 중 부족한 부분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생활태도·습관 지도	지식·학업 지도	기타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8.7	18.7	21.3	33.3	8.0	100.0(75)	14.89* (5)
	한베가정	18.2	18.2	36.4	27.3	-	100.0(22)	
	현지가정	6.3	37.5	25.0	25.0	6.3	100.0(16)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22.1	33.7	11.5	20.2	12.5	100.0(104)	
	거주한국가정	5.9	29.4	23.5	17.6	23.5	100.0(17)	
	한우가정	-	28.6	14.3	28.6	28.6	100.0(7)	
현지가정	26.7	20.0	26.7	20.0	6.7	100.0(15)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99.2%인 대부분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만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인 한베, 한우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 비율이 한베가정에서 2.1%, 한우가정에서 4.5%로 높지 않지만, 다른 가정에서는 전혀 없거나 1%내외 정도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한베, 한우가정 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표 V-1-13>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은편임	별로 좋지않음	매우나쁨	계(수)	F (집단별)	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9.8	59.2	1.1	-	100.0(261)	8.03***	
	한베가정	63.8	34.1	1.4	0.7	100.0(138)		
	현지가정	47.9	51.3	0.8	-	100.0(119)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55.0	45.0	-	-	100.0(311)		.22(4)
	거주한국가정	53.7	46.3	-	-	100.0(54)		
	한우가정	45.5	50.0	4.5	-	100.0(22)		
현지가정	55.6	44.4	-	-	100.0(99)	0.56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3) 아버지의 육아참여

가)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아버지 육아 참여율이 베트남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는 항목에서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아버지의 참여가 80.5%로 가장 높고, 한베가정 76.5%, 현지가정 53.4% 순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주한국가정이 베트남 거주한국과정과 유사하게 80.4%로 나타났으나 다른 가정과 비교할 경우,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여주었다.

자녀의 학습지도에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모두에서 거주한국가정의 아버지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62.1%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한베가정 73.7%, 현지가정 67.5%로 나타났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우가정이 76.2%라고 대답해 거주한국가정보다 아버지의 학습지도 참여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 지도에 참여하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의 비율이 80%가 넘어 아버지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보다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아버지의 습관·생활 지도 참여율이 높아 한우가정 100.0%, 고려인 93.9%, 현지가정 93.8%, 거주한국가정 89.3%와 비교하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한국인 가정의 아버지 참여율이 가장 낮다.

목욕을 같이 하거나, 식사를 도와준다는 부분에서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의 아버지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아버지의 79.5%가 목욕과 식사를 도와준다고 응답하여 다른 가정과 큰 차이 ($p < .001$)를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가정 간 차이 ($p < .01$)를 보여 매우 그러함이라고 응답한 거주한국가정은 41.1%, 고려인가정 29.4%, 현지가정 30.6%, 한우가정 15.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육아 참여도는 항목별로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한국가정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양 국가에서 높았으며,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자녀의 생활습관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가정별 차이가 없었다.

<표 V-1-14> 아버지의 육아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F (집단별)	F (국가별)	
자녀 에게 필요 물품 제공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2	18.3	49.0	31.5	100.0(251)	5.80	1.29
		한베가정	3.0	20.5	45.5	31.1	100.0(132)		
		현지가정	4.2	42.4	22.0	31.4	100.0(118)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7.3	3.8	34.5	54.3	100.0(313)	1.91	
		거주한국가정	3.6	16.1	41.1	39.3	100.0(56)		
		한우가정	-	-	57.1	42.9	100.0(21)		
	현지가정	3.0	3.0	36.4	57.6	100.0(99)			
자녀 학습 지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7.7	30.2	46.8	15.3	100.0(248)	9.39***	2.85
		한베가정	4.5	21.8	41.4	32.3	100.0(133)		
		현지가정	1.7	30.8	29.9	37.6	100.0(117)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8.0	9.6	51.0	31.4	100.0(312)	0.46	
		거주한국가정	1.8	16.1	60.7	21.4	100.0(56)		
		한우가정	4.8	19.0	61.9	14.3	100.0(21)		
	현지가정	9.2	7.1	50.0	33.7	100.0(98)			
자녀 생활 습관 지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0	15.4	51.0	31.6	100.0(247)	1.06	8.20*
		한베가정	0.7	20.1	38.8	40.3	100.0(134)		
		현지가정	1.7	30.8	29.1	38.5	100.0(117)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3.9	2.3	29.6	64.3	100.0(311)	1.60	
		거주한국가정	10.7	16.1	60.7	21.4	100.0(56)		
		한우가정	-	-	57.1	42.9	100.0(21)		
	현지가정	4.1	2.0	26.5	67.3	100.0(98)			
자녀 목욕 및 식사 지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4.1	16.4	44.3	35.2	100.0(244)	19.87***	1.51
		한베가정	5.3	39.1	34.6	21.1	100.0(133)		
		현지가정	9.5	44.0	28.4	18.1	100.0(116)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9.4	16.5	44.7	29.4	100.0(309)	4.51**	
		거주한국가정	3.6	10.7	44.6	41.1	100.0(56)		
		한우가정	15.0	35.0	35.0	15.0	100.0(20)		
	현지가정	16.3	22.4	30.6	30.6	100.0(98)			
자녀와 함께 놀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6	26.4	43.9	28.0	100.0(246)	1.30	2.33
		한베가정	2.9	22.6	42.3	32.1	100.0(137)		
		현지가정	2.6	20.7	37.9	38.8	100.0(116)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4.5	7.7	39.1	48.7	100.0(309)	1.69	
		거주한국가정	-	10.7	55.4	33.9	100.0(56)		
		한우가정	4.8	19.0	52.4	23.8	100.0(21)		
	현지가정	4.1	9.2	34.7	52.0	100.0(98)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 $p < .001$.

나) 아버지의 육아참여 시간

하루에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가정의 육아참여 시간이 가장 짧았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 37%가 30분 이내라고 대답한 반면, 한베가정은 33.8%가 1~1시간 30분, 현지 베트남가정 26.3%가 2시간~2시간 30분으로 대답하여 가정 집단 간 ($p < .001$)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아버지의 육아참여율이 베트남보다 높았는데, 거주한국가정 28.6%가 30-1시간이라고 대답한 반면, 고려인가정 27.7%가 3시간 이상, 현지가정 23.2%가 1-1시간 30분이라고 대답하여 가정 간 차이 ($p < .001$)를 확인하였다.

<표 V-1-15> 1일 아버지 육아참여 시간

단위: %(명)

구분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6.7	22.8	8.1	5.3	100.0(246)	56.43 (12)***
	한베가정	41.2	39.7	8.9	10.3	100.0(136)	
	현지가정	23.7	27.9	33.9	14.4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21.8	23.2	27.3	27.7	100.0(311)	115.86 (7)***
	거주한국가정	51.8	39.3	5.4	3.6	100.0(56)	
	한우가정	68.2	22.7	4.5	4.5	100.0(22)	
	현지가정	26.3	33.3	23.2	7.2	100.0(99)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현지 우즈벡 가정을 제외한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저녁 식사하는 횟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지가정 아버지와 고려인가정의 식사 횟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 가정의 34.7%가 일주일에 1-2회라고 대답한 반면, 한베가정 32.4%는 3-4회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지 베트남가정 61.9%가 매일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대답하여 집단 간의 차이($p < .001$)를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려인가정의 65.5%가 매일 자녀와 저녁 식사를 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거주한국가정 아버지의 48.2%, 한우가정 아버지의 27.3%가 매일 식사를 같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가별로 비교할 경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차이($p < .001$)가 있었다.

<표 V-1-16> 1주일 평균 아버지와 자녀의 식사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없음	1~2회	3~4회	5~6회	매일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6	34.7	29.5	13.5	18.7	100.0(251)	89.74 (8)***
	한베가정	3.7	15.4	32.4	16.2	32.4	100.0(136)	
	현지가정	4.2	4.2	17.8	11.9	61.9	100.0(118)	
우즈벡	고려인가정	5.8	6.7	13.1	8.9	65.5	100.0(313)	123.74(5)***
	거주한국가정	1.8	21.4	19.6	8.9	48.2	100.0(56)	
	한우가정	-	18.2	45.5	9.1	27.3	100.0(22)	
	현지가정	7.0	12.0	13.0	13.0	55.0	100.0(10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의 아버지의 육아참여 시간 및 자녀의 식사 회수에서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가정 아버지가 비교적 육아 참여 시간 및 횟수가 더 높게 나타나 두 나

라 사이의 생활 패턴과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한국가정 아버지의 육아 참여율을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이 27.4%, 한베가정이 29.6%,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 47.3%, 한우가정 15.9%로 가정 유형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 어머니와 면담한 결과와 일치하며 거주국의 교육 환경이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17> 한국 생활과 비교한 아버지 육아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거의 비슷	더 많이 참여	더 적게 참여	거주 경험 없음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9.4	27.4	16.6	16.6	100.0(241)	138.48	
한베가정	20.0	29.6	4.8	45.6	100.0(125)	(6)***	183.9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4.3	1.9	1.2	92.6	100.0(258)	197.80	(4)***
거주한국가정	34.5	47.3	5.5	12.7	100.0(55)	(6)***	
한우가정	40.0	15.0	10.0	35.0	100.0(20)	(6)***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거주한국가정 아버지의 육아참여도는 현지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1-18>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교차분석 결과, 나라별, 가정별 구분 없이 현지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에 비해 아버지의 육아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에서의 양육방식과 비슷하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거주기간 1~2년 이하는 42.3%, 3~5년 이하는 44.9%, 6~9년 이하는 22.9%, 10년 이상이 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라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현지 양육가치관 및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1-18> 거주기간별 아버지 육아참여도 단위: %(명)

구분	거의 비슷	더 많이 참여	더 적게 참여	거주 경험 없음	계(수)	χ^2 (df) (국가별)
1-2년 이하	42.3	34.6	15.4	7.7	100.0(52)	
3-5년 이하	44.9	30.1	16.2	8.8	100.0(136)	267.64(12)***
6-9년 이하	22.9	28.9	12.0	36.1	100.0(83)	
10년 이상	10.0	10.4	2.4	77.2	100.0(412)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4) 현지 육아정보 습득 정도 및 경로

현지 육아 정보 습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경우 대체로 얻지 못하고 있음(48.5%)이 대체로 얻고 있는 편임(41.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베가정(59.2%)과 현지 베트남가정(72.6%)의 경우 대체로 얻고 있는 편임에 가장 높게 답한 것으로 나타나 한베가정과 현지 베트남가정보다 거주한국가정이 정보 습득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고려인가정(97.9%), 한우가정(68.2%), 현지가정(97.2%) 모두 정보를 대체로 얻고 있는 경우 이상에 답한 반면 거주한국가정만 58.2%가 대체로 얻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정보 습득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육아 정보 습득 정도와 육아 정보를 선택할 때 느끼는 부모의 혼란스러움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 한베가정($p<.001$), 현지 베트남가정($p<.00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p<.05$),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p<.001$) 부모는 육아 정보 습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육아 정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에서는 육아 정보 습득과 육아의 선택에서 오는 혼란스러움 사이에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었다.

<표 V-1-19> 현지 육아정보 습득 정도

단위: %(명)

구분	충분히 구함	대체로 구함	대체로 구하지못함	전혀 구하지못함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2.5	41.9	48.5	7.1	100.0(241)	91.76(6)***
	한베가정	16.2	59.2	23.1	1.5	100.0(130)	
	현지가정	16.2	72.6	6.8	4.3	100.0(117)	
우 즈 벡	고려인가정	62.3	35.6	0.9	1.2	100.0(326)	231.96 (4)***
	거주한국가정	1.8	27.3	58.2	12.7	100.0(55)	
	한우가정	22.7	45.5	27.3	4.5	100.0(22)	
현지가정	60.4	36.8	1.0	-	100.0(101)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001$.

육아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부모/형제를 통해 얻는 경우가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책(17.2%)이나 인터넷(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국가별 하위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부모의 경우 종교관련 단체/사람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응답자의 이웃이 62.1%로 나타났다, 한베가정은 TV/라디오가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응답자의 부모/형제가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베트남가정의 경우 응답자의 부모/형제가 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TV/라디오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경우 고려인가정은 응답자의 부모 형제가 73.0%로 가장 많았고, 기타(70%)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한국가정은 응답자의 이웃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종교 관련 단체/사람(33.3%)로, 한우가정은 정보를 얻는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응답자의 이웃이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경우 텔레비전 라디오가 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기타(24%)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지인 또는 현지인과 혼인을 맺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그보다는 종교 관련 단체나 사람, 즉 별도의 결속력을 지닌 소속 조직의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1-20> 육아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구분	부모/형제	이웃	책	인터넷	종교단체	친구	TV 라디오	기타	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4.1	62.1	32.0	47.1	72.5	30.9	20.0	50.0	241
	한베가정	36.9	18.2	35.1	27.8	11.3	30.1	40.0	16.7	132
	현지가정	49.0	19.7	33.0	25.1	16.3	39.0	40.0	33.3	117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73.0	22.7	60.9	54.9	61.1	57.4	58.0	72.0	324
	거주한국가정	3.4	59.1	11.5	18.9	33.3	16.0	2.3	4.0	55
	한우가정	4.0	6.8	5.7	4.9	0.0	7.4	6.8	0.0	22
	현지가정	19.5	11.4	21.8	21.3	5.6	19.1	33.0	24.0	98

5) 한글학교 이용 및 한국문화 활동 참여

가) 한글학교 참여여부

한글학교(상설/주말)학교에 다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 국가 모두에서 참여하는 경우보다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이나 한베가정의 절반도 한글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의 참여율이 2.5%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거주한국가정은 57.4%, 한우가정은 27.3%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가정의 청소년 중에는 한국교육원이나 상설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영유아가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보인다.

<표 V-1-21> 한글학교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	비이용	계(수)	X ² (df) (집단별)	X ²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0.9	69.1	100.0(220)	22.53(2)***
	한베가정	31.3	68.8	100.0(128)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2.5	97.5	100.0(323)	145.47(2)***
	거주한국가정	57.4	42.6	100.0(54)	
	한우가정	27.3	72.7	100.0(22)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베트남에서는 거주한국가정이나 한베가정의 참여율이 비슷하였으나 우즈베크스탄에서는 한우가정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한글 교육에 대한 부모 관심의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외동포 수가 적은 우즈베크스탄에는 한글학교의 수나 운영 측면에서 한우가정의 자녀가 한글학교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한글학교를 이용하는 가정들에 관한 영향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한 결과, <표 V-1-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지 거주기간과 자녀 민족 정체성 선호도는 한글학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거주기간이 한글학교 참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42%로 거주기간, 자녀의 민족 정체성은 한글학교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V-1-22> 거주 기간과 자녀 민족정체성 선호도에 따른 한글학교 참여도 회귀 분석
단위: %(명)

구분	B	표준오차	B	조정 R2	F
상수	1.747	.234			
거주기간별	-.238	.065	-.090	0.42	384.95***
민족 정체성	.694	.025	.676		

*** p < .001

나) 한글학교 평균 이용시간

한글학교에 일주일 동안 참여하는 평균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1시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은 1시간 60.3%, 5시간 이상 30.9%, 2시간 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베가정도

1시간 62.5%, 5시간 이상 17.5%, 4시간 10.0% 순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시간을 한글학교 수업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거주한국 가정과 한우가정 모두 100%가 1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답해 상대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다.

<표 V-1-23> 한글학교 1주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60.3	4.4	1.5	2.9	30.9	100.0(68)	11.68(4)
	한베가정	62.5	2.5	7.5	10.0	17.5	100.0(4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37.5	-	25.0	25.0	12.5	100.0(8)	14.74(4)**
	거주한국가정	100.0	-	-	-	-	100.0(31)	
	한우가정	100.0	-	-	-	-	100.0(6)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회당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 거주한국 경우 4시간이 45.1%로 가장 높았고, 한베가정은 3시간(56.8%), 현지 베트남은 3시간이 83.3%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은 37.5%, 거주한국가정은 4시간이 55.2%, 한우가정은 4시간이 60.0%로 나타나 회당 3-4시간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V-1-24> 한글학교 회당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상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7.8	7.8	33.3	45.1	5.9	100.0(51)	19.42(4)*
	한베가정	13.5	5.4	56.8	10.8	13.5	100.0(3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37.5	25.0	25.0	12.5	-	100.0(8)	9.25(5)*
	거주한국가정	-	6.9	34.5	55.2	3.4	100.0(29)	
	한우가정	20.0	-	20.0	60.0	-	100.0(5)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다) 한국문화관련 활동참여 경험

자녀가 한글학교 이외에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교육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참여해 보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 87.9%, 한베가정 93.5%, 현지 베트남가정 99.0%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고려인가정 93.8%, 거주한국가정 60.0%, 한우가정 95%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했다. 유의해서 봐야하는 점은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40%정도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은 자녀의 한글교육이나 문화 활동에 적지 않은 관심과 참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25> 한글학교 이외의 한글교육이나 문화 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2.1	87.9	100.0(223)	11.77(2)**	15.93(2)***
	한베가정	6.5	93.5	100.0(124)		
우즈벡	고려인가정	6.2	93.8	100.0(307)	55.26(2)***	
	거주한국가정	40.0	60.0	100.0(55)		
	한우가정	5.0	95.0	100.0(2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자녀의 한글학교 이외의 한글교육과 문화 활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민족 정체성 선호도 및 한글학교 참여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V-1-26> 자녀 정체성 선호도와 한글학교 참여에 따른 한글학교 이외의 참여 여부 회귀분석

		단위: %(명)				
구분		B	표준오차	B	조정 R2	F
상수		.621	.186			
민족정체성		.153	.026	.145	0.67	725.47***
한글학교 참여		.745	.024	.724		

*** $p < .001$

위의 결과에 의하면, 변인들의 설명력은 67%로 나타나 한글학교에 참여하는 자녀일수록 한글학교 이외의 한글교육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짐을 보여준다. 한글학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욕은 한글학교 외의 한글교육과 문화 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6) 사교육 경험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 51.8%, 한베가정 58.6%, 현지가정 60.2%에서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보다 참여하지 않는 자녀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 73.0%, 한우가정 55.0%, 현지가정 78.8%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56.4%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차이를 나타냈다. 고려인가정 부모도 높은 교육열을 지니고 있으나 사교육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에서 거주한국가정에서 사교육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베가정과 한우가정 순으로 나타나 거주한국가정 부모와 한베, 한우가정의 교육열을 가늠할 수 있다. 현지가정의 사교육 참여가 낮은 것은 한국에 비해 사교육 인프라 미구축, 사교육에 대한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분위기 미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27> 자녀의 사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48.2	51.8	100.0(218)	2.64(2)	21.04(2)***
	한베가정	41.4	58.6	100.0(128)		
	현지가정	39.8	60.2	100.0(108)		
우 즈 베키	고려인가정	27.0	73.0	100.0(315)	25.41(3)***	
	거주한국가정	56.4	43.6	100.0(55)		
	한우가정	45.0	55.0	100.0(20)		
	현지가정	21.2	78.8	100.0(99)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7) 자녀의 한국 유학/귀국 선호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유학에 대한 의견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유학을 보낼 의사가 높았다. 베트남 거주한국가정(91.7%), 한베가정(95.5%), 현지 베트남가정(92.2%)순으로 유학을 보낼 의사가 있음으로 응답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한우가정 100%, 고려인가정 97.8%,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86.3%, 거주한국가정 78.2%, 순으로 유학 보낼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한베가정과 한우가정 부모들이 자녀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표 V-1-28> 자녀 성장 시 유학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X ² (df) (집단별)	X ² (d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91.7	8.3	100.0(240)	1.96(2)	24.64 (2)***
	한베가정	95.5	4.5	100.0(133)		
	현지가정	92.2	7.8	100.0(116)		
우 즈 백	고려인가정	97.8	2.2	100.0(325)	41.34(3)***	
	거주한국가정	78.2	21.8	100.0(55)		
	한우가정	100.0	-	100.0(22)		
	현지가정	86.3	13.7	100.0(102)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백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선호하는 나라는 베트남 거주한국가정(70.2%)과 현지 베트남가정(44.9%)의 경우 북미를 가장 선호하였고, 한베가정의 경우 한국을 (45.6%) 가장 선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가정(46.7%)과 한우가정 (66.7%)은 한국을, 거주한국가정(35.7%)은 북미를, 현지가정(34.1%)은 유럽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른 가정에 비해 한국을 유학지로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귀국 하고자하는 한베, 한우가정의 자녀가 늘어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V-1-29> 자녀 유학 시 선호하는 국가

단위: %(명)

구 분		한국	베트남	북미	유럽	기타	계(수)	X ² (df) (집단별)	X ² (d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9.1	3.8	70.2	10.6	6.3	100.0(208)	97.84(24) ***	262.74 (13)
	한베가정	45.6	1.6	32.8	16.8	3.2	100.0(125)		
	현지가정	16.8	-	44.9	33.6	4.7	100.0(107)		
우 즈 백	구 분	러시아	한국	북미	유럽	기타	계(수)	74.81(30) ***	
	고려인가정	14.6	46.7	10.8	27.0	1.0	100.0(315)		
	거주한국가정	9.5	23.8	35.7	23.8	7.1	100.0(42)		
	한우가정	-	66.7	14.3	14.3	4.8	100.0(21)		
	현지 가정	30.7	11.4	18.2	34.1	5.7	100.0(88)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백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3년 이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취업할 의사를 물은 결과 베트남의 경우 취업 의사가 없음이 있음보다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고려인 가정을 제외한 거주한국가정, 한우가정 역시 취업할 의사가 없음이 더 많았다. 그러나 우즈베 키스탄 고려인 가정의 66.3%,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38.7%, 한우가정의 42.9%,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의 32.1%, 한베가정의 28.8% 순으로 한국에 취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한국에 연고가 있는 경우 한국으로의 취업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0> 3년 이내 한국 귀국 및 취업 의사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8.7	61.3	100.0(222)	38.93(2)
	한베가정	28.8	71.2	100.0(118)	***
우즈벡	고려인가정	66.3	33.8	100.0(320)	91.99(2)***
	거주한국가정	32.1	37.9	100.0(56)	
	한우가정	42.9	57.1	100.0(21)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벡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한국 귀국의 주된 목적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더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한우가정(100%), 한베가정(74.2%), 고려인가정(70.0%),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57.7%,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50.0%) 순으로 더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꼽았다.

<표 V-1-31> 한국 귀국의 주된 목적

단위: %(명)

구분	좋은 교육환경	급여 높은 직장	정서적 안정	가족의 한국거주 희망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7.7	2.6	21.8	17.9	100.0(78)	10.27(3)*
	한베가정	74.2	12.9	6.5	6.5	100.0(31)	
우즈벡	고려인가정	70.0	21.3	6.3	2.4	100.(0207)	41.29(5)***
	거주한국가정	50.0	16.7	8.3	25.0	100.0(12)	
	한우가정	100.0	-	-	-	100.0(9)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벡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5$, ** $p < .01$, *** $p < .001$.

베트남 거주한국가정(17.9%)과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25.0%)의 경우 다른 가족이 한국에 살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의 연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경우 급여/좋은 직장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21.3%로 나타나 직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관련 요구

1)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한 경험 및 요구

가) 한국정부 지원의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여부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90.9%, 한베가정의 90.8%, 현지가정의 97.4%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고려인가정의 97.1%, 거주한국가정 94.6%, 한우가정의 81.0%가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한국정부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우가정 의 경우 참여 경험 있음이 1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한국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인지, 홍보의 부족 때문인지, 기타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등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표 V-2-1> 한국정부 지원 프로그램/활동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9.1	90.9	100.0(232)	1.85(2)
	한베가정	9.2	90.8	100.0(131)	
우 즈 벡	고려인가정	2.9	97.1	100.0(310)	16.96(2)***
	거주한국가정	5.4	94.6	100.0(56)	
	한우가정	19.0	81.0	100.0(21)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 $p < .001$.

나) 수혜 프로그램 종류 및 만족도

한국 정부에서 지원 받은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어/고려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교육용 교재·교구 수혜, 한국 전통행사 참여 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현지 베트남가정(100%), 한베가정(91.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88.9%), 베트남 거주한국가정(85.7%), 한우가정(50.0%),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33.3%) 순으로 나타나 한베가정 및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에서 지원 받은 종류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사례수가 매우 적은 상황으로 개인적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문화교육, 교육용 교재교구 수

해, 한국 전통적 행사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한베가정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에 달했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방법과 내용을 비교해 보아야할 부분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2> 한국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전혀 만족 않음	별로 만족 않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한국어 교육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6	22.2	44.4	27.8	-	100.0(18)
	한베가정	10.0	-	50.0	-	40.0	100.0(1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	-	-	62.5	37.5	100.0(8)
	거주한국가정	100.0	-	-	-	-	100.0(1)
	한우가정	-	-	-	-	100.0	100.0(2)
한국 문화 교육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9	23.5	64.7	5.9	-	100.0(17)
	한베가정	11.1	-	66.7	-	22.2	100.0(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	-	14.3	57.1	28.6	100.0(7)
	거주한국가정	-	-	-	100.0	-	100.0(1)
	한우가정	-	-	-	-	-	-
교재 교구 수혜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6	22.2	55.6	16.7	-	100.0(18)
	한베가정	11.1	22.2	44.4	-	22.2	100.0(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	-	57.1	-	42.9	100.0(7)
	거주한국가정	-	-	100.0	-	-	100.0(1)
	한우가정	-	-	100.0	-	-	100.0(2)
전통 행사 참여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6	27.8	50.0	16.7	-	100.0(18)
	한베가정	11.1	-	55.6	11.1	22.2	100.0(9)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가정	-	-	42.9	28.6	28.6	100.0(7)
	거주한국가정	-	-	-	-	-	-
	한우가정	-	-	-	66.7	33.3	100.0(3)

다) 한국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

차녀를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 설문 한 결과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한국 문화 교육(35.4%)을, 한베가정의 경우 한국어 교육(54.5%), 현지 베트남가정의 경우 교육용 교재교구 수혜(56.7%)를 가장 지원 받고 싶은 분야로 선택했다.

이는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의 경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잃지 않으려는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65.5%)과 한우가정(57.1%)은 한국어교육을,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교육용 교재교구 수혜(49.1%)를 지원 받고 싶은 분야로 선택했다. 고려인과 한우가정 역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잃지 않으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베가정(54.4%)과 한우가정(57.1%)처럼 다문화가정은 언어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3> 자녀를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부문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교재 교구 수혜	한국 행사 체험	기타	계(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3.1	35.4	19.7	16.2	5.7	100.0(229)
	한베가정	54.5	23.1	10.4	9.0	3.0	100.0(134)
우즈벡	고려인가정	65.5	11.5	7.6	9.2	6.3	100.0(304)
	거주한국가정	16.4	27.3	49.1	3.6	3.5	100.0(55)
	한우가정	57.1	28.6	9.5	-	4.8	100.0(21)

2) 부모교육 관련 요구

가) 부모교육 참여 의사

유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묻은 결과 전체적으로 참여의사 있음이 참여 의사 없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의사 없음은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22.4%), 현지가정(18.1%), 한베가정(13.3%) 순으로 나타났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37.0%), 고려인가정(33.0%), 거주한국가정(28.3%), 한우가정(14.3%)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보다 우즈베키스탄 부모의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한국가정의 참여 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가정의 참여 의사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V-2-4>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χ^2 (df)	χ^2 (df)
				(집단별)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77.6	22.4	100.0(232)	
	한베가정	86.7	13.3	100.0(128)	4.55(2)
	현지가정	81.9	18.1	100.0(116)	
우즈벡	고려인가정	67.0	33.0	100.0(327)	
	거주한국가정	71.7	28.3	100.0(53)	4.56(3)
	한우가정	85.7	14.3	100.0(21)	
	현지가정	63.0	37.0	100.0(10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크인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나) 선호하는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원하는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자녀 학습 능력 성장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녀와 의사소통하기(25.8%), 한국어 공부(15.0%), 행복한 부부되기(13.7%) 순으로 나타나 자녀의 학습과 의사소통이 가장 큰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자녀와 의사소통하기가 63.6%로 가장 높았고, 한베가정(69.4%)과 현지 베트남가정(85.9%)의 경우 자녀 학습 능력 성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한베가정의 경우 한국어 공부가 47.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습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었고, 한베가정의 경우 현지어보다 한국어 습득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표 V-2-5> 선호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단위: %(명)

구분	자녀 학습 능력 향상	한국어 공부	요리 실습	자녀와 대화	행복한 부부 되기	컴퓨터	기타	계(수)	
전 체	33.3	15.0	6.3	25.8	13.7	5.2	0.8	100.0(711)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59.5	6.9	7.5	63.6	31.8	2.9	0.6	100.0(173)
	한베가정	69.4	47.7	25.2	53.2	21.6	7.2	0.0	100.0(111)
	현지가정	85.9	13.0	21.7	47.8	23.9	7.6	1.1	100.0(92)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69.1	54.4	6.5	46.5	28.1	15.7	1.8	100.0(217)
	거주한국가정	59.5	2.7	13.5	64.9	18.9	8.1	13.5	100.0(37)
	한우가정	72.2	27.8	27.8	55.6	33.3	11.1	0.0	100.0(18)
현지가정	68.3	28.6	11.1	47.6	39.7	27.0	1.6	100.0(36)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69.1%), 한우가정(72.2%), 현지가정(86.3%) 모두 자녀 학습 능력 향상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교육 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한국가정의 경우만 자녀와 의사소통하기가 64.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가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인 부모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나 한국인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법은 전체적으로 직접 강의가 81.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책자 배부(31.1%), 온라인 강의(19.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한

베가정(30.7%)과 현지 베트남가정(30.5%)의 경우 온라인 강의 비율이 높은 반면, 거주한국가정은 직접 강사 강의(84.4%)의 비율이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76.4%)은 온라인 강의를, 거주한국가정(90.9%)은 직접 강사 강의를, 현지 우즈베키스탄 비교적 골고루 답해 선호하는 교육 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V-2-6> 선호하는 부모 교육 방법

						단위: %(명)
구분		직접 강의	책자 배부	온라인강의	기타	계(수)
전 체		61.2	23.5	14.5	0.8	100.0(592)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84.4	19.0	9.2	2.1	100.0(141)
	한베가정	79.5	33.0	30.7	0.0	100.0(88)
	현지가정	89.0	23.2	30.5	2.4	100.0(82)
우 즈 베키	고려인가정	76.4	37.9	21.4	0.0	100.0(182)
	거주한국가정	90.9	36.4	0.0	0.0	100.0(33)
	한우가정	81.3	37.5	18.8	0.0	100.0(16)
	현지가정	72.0	44.0	14.0	20.	100.0(50)

3) 부모 면담을 통한 전반적인 요구

가) 베트남

첫째, 영유아를 둔 베트남 재외동포 가정은 수익자 부담의 교육비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구하였다. 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300-\$350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지 물가와 비교하면 싼 편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비교하여 외국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였다.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특히, 한베가정의 자녀는 여러 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어 수업이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호소하였다.

둘째,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문화센터의 설립이나 영유아를 위한 동화책 구입을 원했다. 한국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거리에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여 책이나 특별활동을 제공받기를 원하였다. 한국학교 도서관이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열려 있는 도서관이지만 영유아들이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셋째,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특히 부모교육은 한베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요구도가 높았다.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가 거주한국가정에 비해서 한베가정의 아버지 역할이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아버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한베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이 자녀 교육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현실이다.

넷째, 한베가정의 자녀들이 한국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교우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요구하였다. 한베가정 어머니들은 유치원의 알림장이 베트남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원하였다. 실제로 한베가정 자녀가 따돌림 때문에 한국유치원에서 현지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자녀들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베가정 어머니와 거주 한국 어머니사이에도 교류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베가정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거주한국가정 자녀들은 문화적인 편견을 배우고 있다. 한베가족 구성원과 거주한국가정 구성원, 교사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나) 우즈베키스탄

첫째,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학교가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설립을 원하였다. 현재 공식적으로 설립된 육아지원기관이 없고, 한국교육원 내에 위치한 한인유치원이 유일무이한 기관이지만 두 반을 한국인 교사 1명과 현지 보조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수업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우는 것에 대하여 재외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 특히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셋째, 고려인가정은 일반 학습에 대한 지원을 원하였다. 교재나 학습지,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고려인들을 위한 센터에서 자녀에게 무용이나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 하였다. 한국어나 한국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를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원하였다. 동화책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책이나 한국 문화를 담은 DVD로 된 자료가 있으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고,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넷째, 영유아들이 읽을 만한 동화책의 구비와 접근성이나 이용 시간의 측면

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동화책을 구비하기가 힘들니 영유아들이 읽을 만한 책과 공간이 있는 도서관을 기대하였다.

다섯째, 한우가정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육아에 관한 책자를 제공받기를 원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해 육아에 관련된 지식을 얻기는 어려우며 대개 가족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육아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어머니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육아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2. 육아지원기관의 재외동포 영유아 지도 실태 및 요구

가. 현지 육아지원기관의 재외동포 영유아 지도 실태

1) 육아지원기관의 개요 및 현황

가) 베트남

베트남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영유아 육아지원기관은 주로 한국학교(저학년) 및 한국학교 병설유치원과 국제학교 유치원, 사립 한국유치원이며 일부는 공·사립 현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한베가정의 경우, 주말에는 주말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한다.

(1)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베트남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에 한국학교가 있으며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함께 설립되어 있다. 하노이 한국학교는 하노이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2006년 설립된 학교로서 현재 4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하노이 한국학교에는 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1, 2학년에 각 2학급씩 1학년에 39명, 2학년에 32명이 재학하고 있다.

<표 V-3-1>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유치원 유아 현황

단위: 명

유아 현황	반명	유아 나이	담당교사	성별		계
				남	여	
	기쁨반	만4세	김선희	7	3	31
	사랑반	만5세	한금자	10	11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병설유치원에는 한국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과 똑같은 학사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 4세, 만 5세 유아를 위한 학급이 각 1학급씩 운영되고 있으며 만 4세반은 10명, 만 5세반은 21명으로 전체 31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영어 교육을 위하여 원어민 교사의 일 2회 50분의 수업이 진행되며 한국 유치원 교육과정은 한국인 교사가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동화 읽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이나 저학년의 경우,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의는 높지만 한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낸다. 한국학교 유치원 및 저학년 수업료는 \$300-\$350 수준이다. 교육과학부에서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표 V-3-2>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유치원 시설 현황

단위: 개

시설 현황	교실	놀이터	화장실	책상	의자	사물함
	2	-	1	22	40	4

(2) 사립 한인유치원

사립 한국육아지원기관은 한국인 원장과 교사에 의해 주 5일제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주로 유치원의 형태를 가진다. 하노이에는 북자유치원, 샬롬유치원, 중앙유치원이 있으며, 호치민에는 꿈나무유치원, 드림유치원, 베트남대한어린이집, 별유치원, 엘림유치원, 한인유치원이 있다. 사립 한국유치원에는 보통 만 3세 유아반부터 개설이 되는데 하노이 중앙유치원에는 만 2세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한인유치원 수업료는 \$300-\$350 수준이다.

<표 V-3-3> 베트남 사립한인육아지원기관 일반적인 정보

기관명	종류	학급수	교원	기본교육철학
샬롬유치원	대도시 사립한국유치원	4학급	원장1 담임4 보조3	기독교신앙교육 모국어교육
중앙유치원	대도시 사립한국유치원	3학급 2세:17명 3세:21명 4세:18명	원장1 담임3 보조6 예체능2 영양사1 기타1	한국정체성 확립 인성교육

(표 V-3-3 계속)

기관명	종류	학급수	교원	기본교육철학
복지유치원	대도시 사립한국유치원	3학급 3세:12명 4세:12명 5세:6명	원장1 담임3 기타4	몬테소리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
대한어린이집	중·소도시 어린이집	4학급 2세: 28명 4세 28명 5세 15명 6세 27명	원장1 담임4 보조5 예체능2 영양사1	몬테소리 자연학습 강조 한국어 교육 (한베가정 다수)
드림유치원	대도시 사립한국유치원	7학급 2세: 42명 3세: 36명 4세: 18명 5세: 11명	원장1 담임7 보조12 예체능2 영양사1	기독교적 교육 주입 영어와 한글 수업
꿈나무유치원	중·소도시 사립유치원	3학급 2세: 8명 3세: 12명 4세: 4명 5세: 2명	원장1 담임3 보고3 예체능2	기본생활습관 교육 바둑교육 하바교구 이용

수업 계획 및 하루 일과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지 실정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현지 실정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주요활동에는 실내자유선택활동, 이야기 나누기, 영어·과학·체육의 특별활동, 기본 교육 체험학습이 있다. 유치원 수준에서도 학부모의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지 혹은 원어민 영어 강사가 영어로 하는 수업을 매일 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베트남 유치원 A 유치원의 일일 활동 교육 시간표이다.

<표 V-3-4> 만3·4세 일일 활동 교육 시간표의 예시

시간	활동 영역	활동 내용
9:00	1차 등원	인사, 신발, 옷, 가방정리, 선 따라 걷기 등
9:10-9:30	자유선택활동	1차 몬테소리 교구 시범
9:50	2차 등원	인사 및 정리
10:00-10:30	자유선택활동	교구 활동
10:30-10:50	정리 및 화장실	화장실가기 및 손 씻기
10:50-11:20	아침모임	음악 감상, 날씨, 날씨 소개
11:20-1:50	소집단활동	이야기 나누기, 노래, 과학실험, 조형, 음률, 게임, 요리 등

(표 V-3-4 계속)

시간	활동 영역	활동 내용
12:00-13:30	점심시간, 이 닦기	바른 식사 예절 익히기, 청결한 생활 습관 기르기
13:30-14:05	실외놀이 동화 동시	대근육활동 창작활동
14:05-14:20	1차 귀가 지도	평가 및 귀가 지도
14:20-14:50	자유선택활동	2차 문태소리 교구 시범
14:50-15:00	2차 귀가 지도	옷, 가방 정리, 평가 및 귀가지도

(3) 공·사립 현지 육아지원기관

베트남에 있는 재외동포의 공·사립 현지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한국학교나 한국유치원의 수업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모는 현지 유치원을 이용한다. 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 시절부터 탁아의 개념이 잘 성립되어 있고, 여성 취업자가 많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의 규모가 크다. 예를 들면, 호치민에 위치한 베트남 사립유치원은 1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는 32명,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약 570명이다. 연령별로는 생후 19개월부터 만 5살까지 분포해있다.

공·사립 현지 육아지원기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영어와 미술 같은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가 와서 실시하기도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기도 한다. 베트남 현지 부모들은 영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하는 교육을 중요시한다.

<표 V-3-5> 베트남 현지 육아지원기관 일반적인 정보

기관명	종류	학급수	교원(명)	기본교육철학
뚜이터 유아학교	대도시 현지 공립유치원	15학급	원장1 담임54 간호사1	건강·바른 예절 중점 전통프로그램
하노이 리에우자이	대도시 현지 사립유치원	11학급	원장1 담임26 예체능10 원감1	전통프로그램 스스로 섬기기, 서로사랑
SON CA 10	대도시 현지 공립유치원	14학급	원장1 담임25 보조10 영양사5 기타10	예의, 언어, 그림, 활동 중심의 교육
TRUONG MAN NON HOA TI GON	대도시 현지 사립유치원	4학급	원장1 담임10 보조12 영양사2	언어, 놀이, 예의 중심의 취학 전 교육 준비

(4) 주말한글학교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는 주말한글학교 형태를 지닌 학교들이 있는데 다수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말한글학교로 하노이 한인주말학교와 호치민 사이공한글학교가 있다. 하노이한인주말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며 한글 학습과 함께 일반 학습을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호치민에 사이공 한글학교는 한배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주말에만 수업이 있으며 교사들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총 3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이 이용하는 영유아 육아지원기관은 한국교육원 내에 위치한 한인 유치원, 국제학교(유치원 포함), 현지 사립 러시아 유치원이며 현지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은 많지 않은 수준이다. 베트남과 달리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학교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교육은 전적으로 사립 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주말에는 주말한글학교가 있어 영유아의 한글과 인성 교육을 실시한다.

재외국민은 아니지만 재외동포의 범주에 들어가는 고려인이 이용하는 기관은 국제유치원이나, 현지 사립·공립 유치원으로 주로 부모의 교육 욕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국제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경향이 있다. 고려인 영유아가 다니는 일부 사립 육아지원기관 중에는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고려인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배치하기도 한다.

(1) 사립 한인유치원

우즈베키스탄 사립 한인유치원은 한인회에서 운영하며 한국교육원 건물 안에 위치해있다. 학급은 2반이며 만 3-4세반에 14명, 만 5-6세반에 11명의 유아가 재원중이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 1명이 원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격증이 없는 현지 교사 4명이 2반을 보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단도 한국식으로 운영한다. 수업료는 한 달에 \$150이며 수업 시간은 9:00부터 16:00까지 이며, 주로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발레 수업은 러시아어로 진행한다.

초기에는 대사관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이었으나 한우가정 유아에 대한 한글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한우가정 유아가 전체 유아의 2/3를 차지하고 있

다. 한우가정 부모들은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국어를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인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또한 많은 한우가정 부모가 교육 문제로 한국으로 중도 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강조한다.

<표 V-3-6> 우즈베키스탄 사립한인유치원 일반적인 정보

기관명	유형	학급수	교직원	기본교육철학
티슈겐트 한인회 한인유치원	대도시 사립 한국유치원	2학급 (3세: 10명 4.5.세:17명)	원장 1 보조교사3 예체능3 영양사1, 기타1	바르게 자라는 한국인

(2) 현지 사립러시아유치원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한인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보다 수준이 높은 국제학교나 사립 러시아유치원을 선호하였다. 한인유치원에 한우가정 영유아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서 한국어나 학습내용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여러 부모의 의견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현지 사립 러시아유치원의 학비는 \$200수준이며 유아는 연령별로 나뉘어져 한 반에 약 15명 내외의 영유아가 교육을 받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러시아어 외에도 영어나 우즈베키스탄어를 배우기도 하며, 고려인이 다수 재원중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현지 공립유치원에 비교하여 시설이나 교사의 수준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표 V-3-7>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립유치원 일반적인 정보

기관명	유형	학급수	교직원	기본교육철학
행복한 아이들	농촌,현지 사립유치원	2학급 3-5세:25명 5-7세:25명	원장1 담임2, 보조2 예체능1 영양사1, 기타3	조화로운 성장 도덕적, 미학적 신체성장 초등학교 준비교육
Dream boat 유치원	대도시, 현지사립 유치원	4학급 3세:15명 4세:15명 5세:15명 6세:15명	원장1 담임4, 보조4 예체능2 영양사2, 기타10	블라존 (국가교육과정) step by step 몬테소리교육
seed 취학 전 교육기관	농촌, 현지사립 유치원	4학급 2-3세:21명 4-5세:22명 5-6세:22명 6-7세:22명	원장1 담임4, 보조4 예체능1 영양사1, 기타4	블라존 (국가교육과정)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에서 타슈켄트에서 외곽 농촌에 고려인 영유아들을 위해서 사립 러시아유치원, '행복한 아이들'을 개원하였다. 2개 반에 교사가 각각 1명씩 있으며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가 1명 있다. 개원 당시에는 한국인 교사가 있어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현재는 교사가 귀국하여 CD를 통해 한국노래를 배우는 수준이었다.

취원아 현황을 보면, 현재 만3-4살 유아가 25명, 만5-6살 유아가 26명 있다. 이 중에서 20명이 고려인이며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인이거나 카자흐족이다. 5년 전 개원했을 때는 고려인이 더 많았으나 현재는 고려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수업료는 \$50이며 다른 사립유치원에 비해서는 싸지만 일반 공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는 싼 편은 아니다. 하지만, 고려인 중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해 있는 부모가 많아서 수업료는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대신 조부모가 고려인 영유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학습이나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3) 주말한글학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한국학교나 주말학교가 없어서 자녀들의 국적교육에 어려움이 많아 1997년 11월 1일 주말한글학교를 개교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2002년 3월 14일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서 타슈켄트 주말한글학교 명칭으로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등록이 되었다.

타슈켄트 주말한글학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워주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지만 귀국 시 한국학교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어, 수학, 사회, 음악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재외동포 자녀이며 전체 11개 학급에서 1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현재 유치원반 수업에는 15명이 참석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매주 토요일 9:00부터 12:30이며 15명의 교직원이 수업을 지원한다.

주말한글학교에서는 소득이 낮은 재외동포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부모가 고위 공무원이거나 기업체 소속인 고소득의 재외동포 자녀와 일반 재외동포 자녀들의 삶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일반 재외동포 자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주말한글학교가 국가에 재외국민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지만 공식적인 교재가 전달되지 않고, 교재·교구의 운송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재·교구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여러 육아지원기관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 파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V-3-8>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말한글학교 일반적인 정보

기관명	유형	학급수	교원	기본교육철학
타슈켄트 주말 학교	대도시, 주말학교 (유치부-10학년)	1학급 (6세: 20명)	담임2명	한국인의 정체성교육 강조

2)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기관 유형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이유

(1) 기관이용 여부 및 이유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의 80.1%, 한배가정의 88.6%가 현재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71.4%, 거주한국가정의 69.6%, 한우가정의 64.7%, 고려인가정의 46.1%만이 현재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답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현재와 미래에도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한 것은 한배가정의 2.9% 뿐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의 11.3%, 거주한국가정의 6.5%,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10.2%가 향후에도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자녀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재 이용하지 않으나 향후 다닐 예정인 비율이 베트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려인가정 29.8%, 거주한국가정 23.9%, 한우가정 17.6%,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11.2%). 이는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사회이념,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시기, 모의 취업여부, 비용 부담 등)에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의 고려가 필요하다.

<표 V-3-9> 자녀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	과거이용/ 현재이용 않음	향후 이용 예정	향후 이용 않음	계(수)	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80.1	14.2	5.7	-	100.0(176)	1185.52***
	한배가정	88.6	5.7	2.9	2.9	100.0(35)	
우 즈 베크	고려인가정	46.1	12.9	29.8	11.3	100.0(319)	
	거주한국가정	69.6	-	23.9	6.5	100.0(46)	
	한우가정	64.7	17.6	17.6	-	100.0(17)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자녀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한베가정의 87.9%는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로 답했고, 거주한국가정의 70.1%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라고 답했다. 특히 한베가정의 경우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41.9%),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25.8%), 거주한국가정은 자녀의 인지발달을 위해(17.9%),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6.7%) 등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주요 이유가 교육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3.0%), 본인의 직장 때문(2.2%)에 한베가정의 경우 본인의 직장 때문(12.9%) 등으로 응답해 자녀의 발달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가정(61.2%)과 거주한국가정(54.8%) 모두 자녀의 사회성 발달, 한우가정(63.9%)의 경우 언어 교육, 현지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눈여겨볼만한 사항은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은 본인의 직장 때문에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고려인가정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은 직장 때문에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반면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은 직장 때문에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주한국가정이나 한우가정의 부모가 고려인이거나 현지 우즈베키스탄 가정보다 취업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3-10>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본인 취업	양육 어려움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2	3.0	70.1	17.9	6.7	100.0(137)	77.89(4)***
	한베가정	12.9	-	41.9	87.9	25.8	100.0(31)	
우즈베키	고려인가정	7.5	0.7	61.2	27.2	3.4	100.0(147)	9.40(5)
	거주한국가정	-	3.2	54.8	22.6	19.4	100.0(31)	51.12(15)***
	한우가정	-	-	27.3	9.1	63.9	100.0(11)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베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50%),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50.0%)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아직 어려서 적응하지 못할까 봐(29.2%), 비용 부담(16.7%),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12.5%), 부 또는 모

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8.3%),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4.2%) 순으로 나타나 한베가정보다 거주한국가정이 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우가정을 제외한 고려인가정(36.2%), 거주한국가정(53.8%),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51.9%) 모두 아직 어려서 적응하지 못할까봐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한우가정은 기타가 6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문문항 이외에 또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11>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렵	비용 부담	마땅한 기관이 없음	돌봐줄 사람 있음	부모 양육 가능	기타	계(수)	X^2 (df) (집단별)	X^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9.2	16.7	12.5	4.2	8.3	29.2 100.0(24)	6.82(5)*	42.57 (6)
	한베가정	-	-	50.0	-	50.0	- 100.0(2)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36.2	4.9	10.4	27.6	14.1	6.7 100.0(163)	39.14(15) ***	
	거주한국가정	53.8	-	23.1	-	23.1	- 100.0(13)		
	한우가정	16.7	-	-	-	16.7	66.7 100.0(6)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5$, *** $p < .001$.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을 경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베가정의 경우 걱정하지 않음이 66.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은 다양한 활동을 못해서가 34.6%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89.9%), 거주한국가정(61.5%), 한우가정(66.37%),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96.2%) 모두 걱정하지 않음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를 통해 한베가정,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경우는 베트남의 거주한국가정에 비해 자녀를 육아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12> 기관에 보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염려

단위: %(명)

구분	걱정 않음	친구 사귀기	학업 부진	규칙 부적응	다양한 활동 부재	계	X^2 (df) (집단별)	X^2 (df)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23.1	15.4	19.2	7.7	34.6	100.0(26)	3.12(4)
	한베가정	66.7	-	-	-	33.3	100.0(3)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89.9	7.5	0.6	0.6	1.3	100.0(159)	74.80(5) **
	거주한국가정	61.5	15.4	-	7.7	15.4	100.0(13)	
	한우가정	66.37	-	-	16.7	16.7	100.0(6)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1$.

나) 이용 기관 유형

자녀가 다니는 육아시설의 형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베트남의 거주한국가정(68.1%)과 한베가정(58.1%) 모두 사립 한인 유치원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51.7%)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51.6%)은 사립 한인 유치원에 가장 많이 보내고, 거주한국가정(53.1%)의 경우 국제 학교 내 유치원을 한우가정 의 경우 100%가 한국 학교 내 유치원에 보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3-13> 자녀가 다니는 육아시설 형태

		단위: %(명)				
구분	현지 기관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사립 한인 유치원	국제학교 유치원	계(수)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0.4	7.4	68.1	14.1	100.0(135)
	한베가정	29.0	12.9	58.1	-	100.0(31)
	현지가정	-	-	-	-	-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46.3	2.1	51.7	-	100.0(145)
	거주한국가정	-	40.6	6.3	53.1	100.0(32)
	한우가정	-	100.0	-	-	100.0(11)
	현지가정	40.6	6.3	51.6	1.6	100.0(64)

또한 베트남의 경우 현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주한국가정의 10.4%, 한베가정의 29.0%인데 반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고려인가정의 46.82%,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40.6%가 현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고, 한국인과 한우가정은 전혀 현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이 베트남의 거주한국가정과 한베가정에 비해 현지 보육시설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육아지원기관 최초 이용 시기 및 1일 평균 이용시간

자녀가 육아시설을 처음 이용한 시기를 물어 본 결과, 베트남의 한베가정은 25개월-48개월에 처음 보낸 경우가 83.8%에 달했다. 한베가정은 0-12개월, 만 5세 이후에 처음 보냈던 경우는 없는 반면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생후 0-12개월에 보냈던 경우가 2.2%였고 만 5세 이후에 보냈던 비율도 5.2%에 달해 처음 이용한 시기의 범위가 넓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을 제외한 고려인가정(44.1%), 거주한국가정(43.8%), 한우가정(72.7%) 모두 36-48개월에 처음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의

경우 그보다 조금 앞선 25-36개월에 처음 육아시설에 보냈던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다. 고려인가정과 한우가정은 생후 0-12개월에 보낸 경우가 없는 반면 거주한국가정(3.1%)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2.9%)은 0-12개월에 처음 보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가정(6.2%)과 거주한국가정(28.1%),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8.6%)은 만 5세 이후에 처음 육아시설에 보냈다고 답해 베트남 보다 만 5세 이후에 육아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3-14> 자녀가 육아시설을 처음 이용한 시기

		단위: %(명)								
구분		0~12 개월	12~24 개월	25~36 개월	36~48 개월	만4세~ 만5세	만 5세 이후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2.2	15.6	28.9	34.1	14.1	5.2	100.0(135)	7.02(5)	21.36 (6)
	한베가정	-	3.2	41.9	41.9	12.9	-	100.0(31)		
	현지가정	-	-	-	-	-	-	-		
우 즈 베크	고려인가정	-	3.4	29.7	44.1	16.6	6.2	100.0(145)	33.84(12) **	21.36 (6)
	거주한국가정	3.1	-	18.8	43.8	6.3	28.1	100.0(32)		
	한우가정	-	9.1	18.2	72.7	-	-	100.0(11)		
	현지가정	2.9	5.7	37.1	30.0	15.7	8.6	100.0(7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시간은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 (60.4%), 한베가정(45.2%) 모두 5-6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8시간(거주한국가정 23.1%, 한베가정 29.0%), 4-5시간(거주한국가정 14.2%, 한베가정 19.4%), 3시간(거주한국가정 1.5%, 한베가정 3.2%), 9시간 이상(거주한국가정 0.7%, 한베가정 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15>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시간

		단위: %(명)							
구분		3시간	4~5 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계(수)	χ^2 (df) (집단별)	χ^2 (df) (국가별)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1.5	14.2	60.4	23.1	0.7	100.0(134)	3.52(4)	97.65(6) ***
	한베가정	3.2	19.4	45.2	29.0	3.2	100.0(31)		
	현지가정	-	-	-	-	-	-		
우 즈 베크	고려인가정	2.7	4.8	16.3	73.5	2.7	100.0(147)	92.40 (12)**	97.65(6) ***
	거주한국가정	-	6.3	68.8	25.0	-	100.0(32)		
	한우가정	-	-	72.7	27.3	-	100.0(11)		
	현지 가정	-	1.4	91.4	7.1	-	100.0(7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참여 의사 없음은 베트남의 경우 거주한국가정(22.4%), 현지가정(18.1%), 한베가정(13.3%) 순으로 나타났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

(37.0%), 고려인가정(33.0%), 거주한국가정(28.3%), 한우가정(14.3%)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보다 우즈베키스탄 부모의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한국가정의 참여 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가정의 참여 의사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라) 자녀 1인당 비용

현재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에 매월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베트남의 경우 \$200-300(거주한국가정 45.2%, 한베가정 48.4%)이 가장 많았고, \$300이상(거주한국가정 45.2%, 한베가정 29.0%)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V-3-16> 자녀 1인당 기관 이용 월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100이하	\$100~199	\$200~299	\$300이상	계(수)	X ² (df)	
							(집단별)	(국가별)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3.7	8.9	45.2	45.2	100.0(135)	2.90(4)	126.15(4)***
	한베가정	6.5	16.1	48.4	29.0	100.0(31)		
우즈베크	고려인가정	69.4	4.1	26.5	-	100.0(147)	163.84(9)***	
	거주한국가정	-	-	53.1	46.9	100.0(32)		
	한우가정	-	-	100.0	-	100.0(11)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거주한국가정(53.1%), 한우가정(100%),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51.4%) 모두 \$200-300이 가장 많았다. 고려인가정(69.4%)만 \$100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은 모두 \$200이상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한국가정은 \$300이상 지불하는 비율도 46.9%에 달했다. 반면 고려인가정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은 \$100 이하를 지불하는 경우고 있고, \$300이상 지불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이 고려인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이용 기관에 대한 만족도: 시설, 교사 및 프로그램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육아시설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현지 우즈

베키스탄가정(61.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려인가정(51.7%), 우즈베키스탄의 거주한국가정(37.5%) 순으로 나타났다.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60.0%)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려인가정(47.9%)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64.3%)이 가장 만족하고 그 다음 한우가정(54.5%), 고려인가정(5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베트남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체적인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3-17>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F		
						(집단별)	(국가별)	
기관 시설 좋음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5	27.4	51.1	20.0	100.0(132)	0.97	0.05*
	베트남 한베가정	-	10.0	76.7	13.3	100.0(30)		
	베트남 현지가정	-	-	-	-	-		
	우즈벡 고려인가정	6.2	9.7	32.4	51.7	100.0(145)	3.83*	
	우즈벡 거주한국가정	-	28.1	34.4	37.5	100.0(32)		
	우즈벡 한우가정	-	20.0	70.0	10.0	100.0(10)		
	우즈벡 현지가정	1.4	2.9	34.3	61.4	100.0(70)		
교사 수준 높음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	16.5	51.9	31.6	100.0(133)	0.73	0.64*
	베트남 한베가정	-	10.0	53.3	36.7	100.0(30)		
	베트남 현지가정	-	-	-	-	-		
	우즈벡 고려인가정	6.9	13.9	31.3	47.9	100.0(144)	3.43*	
	우즈벡 거주한국가정	-	3.1	68.8	28.1	100.0(32)		
	우즈벡 한우가정	-	30.0	50.0	20.0	100.0(10)		
	우즈벡 현지가정	-	7.1	32.9	60.0	100.0(70)		
프로그램 다양	베트남 거주한국가정	1.5	22.6	51.1	24.8	100.0(133)	0.39	3.70***
	베트남 한베가정	3.3	20.0	60.0	16.7	100.0(30)		
	베트남 현지가정	-	-	-	-	-		
	우즈벡 고려인가정	6.2	8.9	34.2	50.7	100.0(146)	1.07	
	우즈벡 거주한국가정	-	15.6	50.0	34.4	100.0(32)		
	우즈벡 한우가정	-	18.2	27.3	54.5	100.0(11)		
	우즈벡 현지가정	4.3	8.6	22.9	64.3	100.0(70)		

주: 국가별 비교에는 현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가정을 제외하고 재외동포만을 비교함

*** $p < .001$.

바) 현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장·단점 인식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장점에 대해서는 베트남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장점 없음이 2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의 자질(21.5%), 기관의 프로그램(20.4%) 순으로 나타났다. 한베가정의 경우 교사의 자질이 2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운영시간(14.7%), 시설 환경(13.2%) 순으로 나타났다. 현지 베트남가정도 한베가정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자질이 2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기관의

프로그램(16.9%), 시설 환경(15.3%) 순으로 나타나 거주한국가정보다 한베가정과 현지 베트남가정의 부모가 교사의 자질, 시설 환경면에서 장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우 고려인가정(36.0%)과 현지 우즈베키스탄가정(40.6%)은 교사의 자질을 가장 큰 장점으로 답하였다. 한우가정은 운영 시간(27.8%), 기관의 다양성(22.2%)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의 질을 선택한 경우는 5.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사의 질을 장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거주한국가정은 기관의 프로그램(33.3%)과 저렴한 수업료(33.3%)를 장점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수업료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3-18>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장점

단위: %(명)

구분		교사 자질	프로 그램	교재	운영 시간	기관 다양성	비용	시설 환경	급식 간식	기타	없음	계(수)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21.5	20.4	6.3	6.3	6.3	7.9	4.7	-	4.7	22.0	100.0(191)
	한베가정	27.1	11.6	10.9	14.7	7.8	7.0	13.2	0.8	0.8	6.2	100.0(129)
	현지가정	26.3	16.9	6.8	6.8	11.0	11.0	15.3	-	0.8	5.1	100.0(118)
우 즈 베크	고려인가정	36.0	12.6	9.1	10.8	15.4	12.9	0.7	0.7	1.4	0.3	100.0(286)
	거주한국가정	18.8	33.3	-	4.2	4.2	33.3	2.1	-	4.2	-	100.0(48)
	한우가정	5.6	11.1	11.1	27.8	22.2	16.7	-	-	5.6	-	100.0(18)
	현지가정	40.6	15.6	6.3	5.2	20.8	10.4	-	1.0	-	-	100.0(96)

취학 전 교육과 보육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베트남 거주 재외동포는 교사의 자질과 기관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지가정의 경우에도 교사의 자질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거주한국가정의 경우, 비싼 수업료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거주한국가정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국제학교, 한국학교 유치원, 한인 유치원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자질 개선이 급선무로 인식되었으며 거주한국가정과 한우가정에서는 시설 환경을 지적한 비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높아 교사와 기관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달리 수업료에 대한 개선 의견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보다 교육 시장의 개방이 늦고, 비싼 수업료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3-19>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개선 사항

단위: %(명)

구분	교사 자질	프로 그램	교구 교재	운영 시간	기관 다양성	비싼 비용	시설 환경	급식 간식	기타	계(수)	
베 트 남	거주한국가정	23.0	19.9	8.7	2.0	9.2	13.3	17.9	2.0	1.0	100.0(196)
	한베가정	36.4	16.3	15.5	3.9	12.4	3.9	7.0	2.3	0.0	100.0(129)
	현지가정	42.5	16.8	18.6	0.9	10.6	0.9	6.2	2.7	0.0	100.0(113)
우 즈 벡	고려인가정	39.1	12.1	9.0	3.1	9.3	3.1	14.5	9.3	0.3	100.0(289)
	거주한국가정	34.7	14.3	12.2	2.0	2.0	2.0	26.5	2.0	4.1	100.0(49)
	한우가정	27.8	5.6	5.6	0.0	16.7	5.6	33.3	5.6	0.0	100.0(18)
현지 가정	31.3	18.8	12.5	4.2	9.4	1.0	19.8	2.1	1.0	100.0(96)	

3) 재외동포 영유아의 기관 적응 실태

가) 베트남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 적응 실태는 아래 표와 같이 한국학교 한인 유치원이나 사립 한국유치원의 교사에게 기관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다음 <표 V-3-20>는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 기관의 적응 실태를 조사한내용이다.

한국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는 모두 재외동포였으며 크게 양쪽 부모가 거주한국가정과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한베가정으로 나누어 영유아 적응 실태를 알아보았다. 양쪽 부모가 거주한국가정의 영유아는 대체적으로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현지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베가정 영유아의 경우, 모든 영유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영유아에게서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약간의 지연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며, 언어 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 부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베가정의 자녀의 적응 상태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나 기본적으로 정서나 언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3-20>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 기관에서의 적응 실태

기관명	영유아 적응 실태		
	구분	영유아 수	영유아 적응 실태
살롬유치원	양쪽부모 한국인	29명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한쪽부모 한국인	21명	- 체격 왜소, 편식이 심하며 치아손상 많음 - 한국어가 서툴고 인지발달이 느림

기관명	영유아 적응 실태		
	구분	영유아 수	영유아 적응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안정이 부족함 - 적응이 느리며 의사소통으로 인해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 문제 있음 - 한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자녀양육의 주체가 베트남어머니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베트남 문화를 습득하여 유치원 적응이 어려움
중앙유치원	양쪽부모 한국인	38명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한쪽부모 한국인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이 대체로 우수함 - 개인별 상호작용 정도가 다름 - 정서발달이 부진함 - 한국어가 미흡하나 현지어 우수함 - 만2세의 경우는 언어 문제 없이 잘 지냄 - 다문화 원아의 경우 대다수가 한국어를 잘하며 아버지들이 노력함 - 의사소통은 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한 통신문 전달함
북자유치원	양쪽부모 한국인	29명	- 한국어는 양호하나 현지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한쪽부모 한국인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를 중심으로 사용, 현지어는 어머니와 사용함 - 어머니가 베트남인 경우 굳이 베트남인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으며, 유치원에서 베트남어 사용 없음
대한어린이집	양쪽부모 한국인	18명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한쪽부모 한국인	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 2세 유아 처음 1개월 동안 현지어만 사용하였으나 적응하는 데 문제 없음
드림유치원	양쪽부모 한국인	103명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한쪽부모 한국인	172명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꿈나무유치원	양쪽부모 한국인	24명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한쪽부모 한국인	2명	- 첫 등원 시 한국어가 미숙하였으나 1-2개월 지나면서 점차 좋아짐
국제학교유치원	양쪽부모 한국인	14명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한쪽부모 한국인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언어 발달이 미흡한 편임 - 발음 문제로 유아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음

나)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유아 재외동포 적응 실태는 아래 표와 같이 한인 유치원이나 현지 유치원 교사에게 기관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양쪽 부모가 거주 한국가정의 자녀는 대체로 적응도나 상호작용이 원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쪽 부모가 한국인인 가정에서는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베트남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어 능력 부족은 정서에도 영향을 주어 정서적으로 산만하기도 하며 사회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고려인가정의 경우에는 주말학교나 한국유치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현지 기관에서는 고려인가정의 발달을 원만하게 보고 있다. 다만, 고려인가정 부모가 취업으로 인하여 농촌에는 조부모 가정이 많아 적절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V-3-21> 우즈베키스탄 영유아 재외동포 기관에서의 적응 실태

기관명	재외동포 영유아 적응 실태		
	구분	영유아 수	영유아 적응 실태
타슈켄트 주말학교	양쪽 부모 한국인	17명	- 적응도 및 상호작용 원만
	한쪽 부모 한국인	2명	- 한국어 많이 부족 -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 정서, 사회 발달 원활함
	고려인가정	1명	- 한국어 많이 부족 - 정서적, 사회적으로 학교적응 어려움
타슈켄트 한인회 유치원	양쪽 부모 한국인	12명	- 전반적으로 원만함
	한쪽 부모 한국인	13명	- 한국어 전혀 안됨, 현지어 능통함 - 언어소통으로 인한 정서적 산만
	고려인가정	1명	-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행복한 아이들	고려인가정	13명	- 전반적으로 양호함 - 부모와 교사 간 언어소통 어려움 없음 - 유아 80%의 부모가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취업하여 조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이 부족함
Dream boat 유치원	한쪽 부모 한국인	1명	- 전반적으로 양호함
	고려인가정	16명	- 전반적으로 양호함
Seed 유치원	고려인가정	43명	- 양호함 - 러시아어 잘함

주: 행복한 아이들, Dream boat 유치원, Seed 유치원에는 양쪽 부모가 한국인인 가정의 자녀가 없음.

나. 육아지원기관의 재외동포 영유아 지도 관련 요구

1) 베트남

베트남에서 영유아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기관의 시설은 대부분 아파트를 개조하여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층수가 3층 이상이며 한 층에서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없어 영유아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설의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한국 국적으로는 임대 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표 V-4-1>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 이용 기관의 시설 현황

구분	건물 형태			기본시설					놀이터	
	연도	형태	건물층수	교실	조리실	목욕실	강당	화장실	실내	실외
살롬유치원	1-5년	상가 복합 건물	3층	○	○	-	-	○	-	-
중앙유치원	1-5년	단독 건물	4층 이상	○	○	-	-	○	미끄럼틀 매트, 볼풀, 소꿉놀이	-
복자유치원	5-10년	주택	3층	○	○	○	-	○	미끄럼틀 그네, 시소, 소꿉놀이, 볼풀	미끄럼틀 그네, 시소
대한어린이집	5-10년	단독 건물	1층	○	○	○	-	○	소꿉놀이 매트	미끄럼틀 그네, 시소, 회전놀이 매트, 소꿉놀이
드림유치원	5-10년	주택	4층 이상	○	○	-	-	○	미끄럼틀, 시소, 그네, 철봉, 매트, 소꿉놀이	매트, 소꿉놀이
꿈나무유치원	1년 미만	주택	4층 이상	○	○	○	-	○	미끄럼틀, 시소	-
한국학교 유치원	10-15년	단독 건물 임대	1층	○	○	-	○	○	소꿉놀이	-

여러 기본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아파트를 개조하였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 넓지 않아 실외놀이터 같은 공간을 만들기 힘들며, 실내 놀이터가 있더라도 아주 협소한 공간에 불과하다. 또한, 영유아들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기관에 있는 동안 거의 교실 간의 이동이나 바깥 체험 활동의 기회를 가지는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공

간이 없어서 항상 실내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은 교사 인력 부족과 열악한 시설, 야외 체험 장소 부족,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 어머니 사이의 견해 차이 등이 있었다. 이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통적으로 교사 경력 인정을 요구하였으며, 교재·교구 지원이나 교사 연수 지원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면담에서 원장이나 교사들은 교재나 교구를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일이 쉽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인 기관을 통한 교재·교구의 원활한 공급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은 아래 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재외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보다 재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기관의 또 다른 공통적인 요구 사항은 한국이나 현지로부터의 교사 지원이다. 주말한글학교의 선결 요구사항 또한 교사 지원이었는데, 주말한글학교에서는 교사가 거의 자원봉사로써 수업이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가 힘들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정부나 현지에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교사를 지원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한배가정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베트남 어머니를 위한 부모 교육,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며 한국의 여러 프로그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다.

<표 V-4-2> 베트남 영유아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기관의 요구

구분	기관 운영 관련	기관의 요구
살롬유치원	- 교사 인력이 부족함 - 전반적 시설 열악함	- 한국에서 교사 파견* - 한국어 가능 현지인 교사 임용*
중앙유치원	- 현장체험·문화 체험 장소 부족함 - 한국·베트남 어머니 견해와 양육방식차이로 부모 모임 운영이 어려움	- 한국어교육 교재·교구 지원* - 수업료 지원* - 현지 교사 연수* - 교사 경력 인정* - 세 자녀 교육비 보조(중앙유치원)
복자유치원	- 전반적 시설이 열악함	- 교육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 필요(복자유치원) - 방학 기간을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

구분	기관 운영 관련	기관의 요구
대한어린이집	- 전반적 시설이 열악함 - 보조교사와의 의사소통이	
드림유치원	원활하지 못함 - 교사 지원이 부족함	한국 방문 기회 제공(꿈나무유치원) - 유치원 재정지원 확충(한국학교유치원)
꿈나무유치원	- 어려움 없음 - 놀이 시설이 전혀 없음	- 교사 급여 개선(한국학교유치원) - 놀이 시설 확충(한국학교유치원)
한국학교유치원	- 교수·학습 자료가 미비함 - 교육과정 자료 부족함	

주: * 표시를 한 요구 사항은 기관의 공통적인 요구임.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유아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기관의 시설은 대부분 15년 이상 된 건물로 베트남과 달리 1층이나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건물로 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실외 놀이터 상황이 열악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기관의 공간이 넓어 놀이터가 없는 어려움은 없으나 거주한국정부가 주로 이용하는 주말한글학교와 한국유치원은 영유아를 위한 실외놀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곳은 한국교육원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 교육원에 딸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위한 단독 건물이 아니라 한국교육원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자유스러운 건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영유아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거주한국정부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이나 교사 확보의 어려움, 교재·교구의 구비 어려움 등을 들었다.

<표 V-4-3> 우즈베키스탄 영유아 재외동포 이용 기관의 시설 현황

구분	건물 형태			기본시설					놀이터	
	연도	형태	건물 층수	교실	요실	목욕실	강당	화장실	실내	실외
타슈켄트 주말학교	15-20년	공공 시설	1층	○	-	-	-	○ (샤워)	교구	-
타슈켄트 한인회 유치원	15-20년	공공 시설	1층	○	○	-	-	○	-	-
행복한	20년	단독	1층	○	○			○	-	그네, 시소

구분	건물 형태			기본시설					놀이터	
	연도	형태	건물 층수	교실	조리실	목욕실	강당	화장실	실내	실외
아이들	이상	건물								모래놀이 수영장
Dream Boat 유치원	20년 이상	단독 건물	2층	○	○	○	-	○	-	미끄럼틀 그네, 칠봉 모래놀이 소꿉놀이
Seed 유치원	20년 이상	단독 건물	2층	○	○	○	-	○	-	미끄럼틀 그네, 칠봉 모래놀이 소꿉놀이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어 교사 임용, 수업료 지원, 교재·교구 지원, 교사 연수 지원으로 베트남 기관에서의 요구와 유사하다. 특히, 교사가 공식적으로 파견 혹은 임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지에서 교사를 찾다보니 교사의 질 관리가 어려워 기관에서는 한국에서 공식적인 교사 파견을 해 주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수업료 지원이나 교사 채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한우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우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지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주로 고려인)에게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현지 유아교육기관 수준에서 갖추어 고려인가정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표 V-4-4> 우즈베키스탄 영유아 재외동포가 이용하는 기관의 요구

구분	기관 운영 관련	필요한 지원
타슈켄트 주말학교	-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파견 공무원의 무관심이나 영어우월주의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 한국에서 교사 파견 - 한국어 가능 현지인 교사 임용 - 한국어 교육 교재·교구 지원 - 수업료 지원 - 현지 교사 연수

(표 V-44 계속)

구분	기관 운영 관련	필요한 지원
티슈겐트 한인회 한국유치원	- 교재·교구 및 시설이 부족함 - 교사 인력 부족함	- 한국에서 교사 파견 - 한국어 가능 현지인 교사 임용 - 현지 교사 연수 - 한국어 교육·교재지원 - 수업료 지원 -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파견공무원 필요
행복한 아이들	- 어려움 없음	- 한국어 가능 현지인 교사 임용 - 한국어 교육·교재지원 - 수업료 지원 - 현지 교사 연수
Dream boat 유치원	- 어려움 없음	- 현지교사연수
Seed 유치원	- 어려움 없음	- 한국어 교육·교재지원 - 수업료지원 - 현지교사연수

3. 소결

현지 거주한국가정이나 한배, 한우가정 부모는 전반적인 자녀 양육, 교육면에서 한국에서의 양육과 비교하여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단기·장기 체류 후에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대입이나 취직을 준비하여 교육열은 여전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비하여 베트남에 단기 체류자 수가 훨씬 많으며 한인자녀를 위한 교육인프라가 더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나, 오히려 양육 스트레스 및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중에서 거주한국가정은 한국에서 가졌던 교육적 관심, 양육 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우가정은 교육에 관해서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한국적 정서 및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고려인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들은 이미 이주 3, 4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자녀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어 교육보다는 일반적인 학습과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외동포 가정의 육아지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모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위계적으로 자녀의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국제학교와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한인유치원을 선택하였다. 베트남 재외동포 가정의 경우, 영어나 베트남어, 예체능 교육을 위해서 사교육을 부가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자녀의 영어교육으로 국제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국제학교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지 못하여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나 한인유치원으로 되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에는 재외국민의 수가 매우 적으므로 한국학교가 없고, 한인유치원과 주말한글학교가 각 한 기관씩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학교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들은 국제학교 유치원, 한인유치원, 러시아 사립유치원을 다니면서 주말한글학교에 참여한다. 전반적으로 취학 전 공교육을 불신하는 연유에서 자녀교육은 대부분 사립기관 및 방과 후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 거주한국가정 어머니는 대부분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만, 더운 날씨와 영유아를 위한 실외 놀이 공간이나 문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정에만 머물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싼 (사)교육비와 자녀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음, 읽을 책 및 교재 부족은 재외동포 부모들의 공통적인 불만이었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보다 적극적이며, 저녁 시간에도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배가정이나 한우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아버지들도 상당수 있었다.

재외동포 영유아의 적응 정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나, 한배, 한우가정 자녀의 경우 정서적인 불안정이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이나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려인의 경우에는 정서나 의사소통 문제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에 조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지적되었다.

재외동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공통적인 요구는 수업료 지원, 한인교사 파견, 교직 경력 인정, 현지 교사 연수, 교구·교재 지원이

며, 가정특성별로 한배, 한우가정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저소득층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특히 필요로 하였다.

VI. 재외동포 육아지원 방안

본 연구는 2010년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설치 및 운영, 재외동포의 참정권과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등이 법제화되면서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의 기본교육권 보장 및 우리민족의 자산과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아울러 국외가주 다문화가정의 양육가치관과 실태 파악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내 다문화가정의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즉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베트남과 우리핏줄로서 모국과의 연계 당위성이 높은 고려인 후손이 다수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가정의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파악하는 연구로 다분히 기초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연구대상 국가의 재외동포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 선행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며 더욱 그러하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한 후, 이를 토대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거주 재외동포에 국한하여 지원 정책의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요약

관련 기존연구는 주로 재외동포 부모의 자녀양육관 및 청소년의 정체성 교육에 관한 것으로 재외동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양육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총 1,200명의 재외동포 가정 및 현지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가치관 및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학교 내 병설유치원 및 한인유치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현지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재외동포 영유아가 이용하는 총 19개의 다양한 현지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지도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하노이대학 유아교육과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사범대학 유아교육과를 방문하여 현지 교수진과의 면담을 통하여 교사교육 및 자녀양육 관련 정보는 물론 각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기관유형 및 현황 등)와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재외동포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배가정, 한우가정, 고려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인 반면, 거주한국가정은 부모자신의 인생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며, 부모판단에 의 의존성이 강하며, 자녀가 웃어른이나 부모에 대한 존경,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적인 행복 추구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주한국 가정의 경우, 여타의 재외동포 가정에 비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강하며, 아울러 자녀성장에 어머니의 영향력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한배가정, 한우가정은 물론, 거주한국가정에서도 재외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외동포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보다 적극적이며, 한배가정이나 한우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한국가정의 자녀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한배, 한우가정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배가정, 한우가정의 경우 부모 의견의 차이가 확연하였다. 즉,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원하는 반면, 현지 출신 어머니는 출신국의 정체성 또는 한국과 현지인의 이중정체성을 원하거나 혹은 자녀의 선택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고려인가정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서의 자녀 정체성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으나 한국인 정체성에 대한 선호도 23%에 달하며, 대다수(87.8%)가 한국인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한배가정(47.2%), 한우가정(52.4%)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에서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을수록 국제학교와 한국학교, 한인유치원을 이용하고, 경제력이 없는 경우는 비용이 저렴한 현지유치원을 이용하거나 아예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는 불평등한 출발의 경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한배가정, 한우가정 자녀의 기관 이용시, 정서적인 불안정이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고려인가정 영유아는 주로 농촌지역 조부모 가정에서 성장하여 제대로 정서발달 및 학습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영유아 가정의 우리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는 가정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베, 한우가정과 거주한국가정은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설치 및 학급 증설(베트남)과 수업료 지원, 부모교육 지원 및 활성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가정의 편견 해소 교육과 한국어 교육지원을, 거주한국가정은 기관 이용시 비용지원 및 이용,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을 희망하였다. 한편 고려인가정은 한국어 가능 교사 파견 및 한국어 수업 및 한국 관련 문화 행사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2. 정책 방향

첫째, 무엇보다도 생애초기부터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의 제반 권익보장과 민족적 유대감 강화'는 재외동포 육아지원정책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외동포 영유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소중한 민족 자산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한베, 한우가정)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되,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나,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영유아를 우선적인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한 한베가정과 한우가정과 같은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출발점 평등 및 공생의 관점에서 이러한 가정의 영유아부터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본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과 보육 철학과 국가적 목표 등을 포함하여 양육문화와 육아정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III장에서 기술되었듯이 베트남은 내전을 겪은 후 사회주의 이념 하에 육아를 전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여기다가 나중에 가정과 그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고, 교육혁신정책을 통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립기관을 대폭 확충한 점,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사 수가 매우 부족한 점, 육아지원기관의 시설환경 및 교구재 등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점 등을 지원정책 수립시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 육아지원기관 및 재외

동포 가정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가정은 3, 4세대 정주인으로 가치관 및 양육방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교육체제 등이 중앙아시아가 독립하기 이전의 구소련체제와 유사하고, 베트남 재외동포 가정과 달리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한국어 습득에 대해서도 열망이 높으므로 고려인가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재외 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 및 네트워크를 지원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국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의 체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한국학교 및 한국문화원,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 가정과 영유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파견인력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동포 영유아 지원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여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며,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영유아 및 가정의 육아지원 관련 정책의 당위성, 즉 출발점 평등 실현 및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부각하되, 앞으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소관하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되고, 연계하여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은 정부부처별 기능적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영유아까지 세분화한 정책은 현재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재외동포 육아지원관련 의제는 단기적으로는 여성, 가족 관련 정책,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유관정책 담당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 정책과제

재외동포 학부모와 육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를 각 재외동포 가정의 유형과 육아지원기

관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외동포 가정과 현지 육아지원기관은 지원 요구가 상당히 공통적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정책과제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VI-2-1> 재외동포 가정별 및 육아지원기관별 지원 요구

가정 유형	지원 요구	기관 유형	기관 및 재외동포의 이용 실태	지원 요구
거주한국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교 증(신)설 - 한국학교 및 한인유치원 수업료 지원 - 이용,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 및 문화시설 건립 - 유아를 위한 동화책 구비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교 내 초중등과 학사 일정 동일 - 유아 놀이시설 부족 - 낮은 접근성으로 이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지원 - 한인교사파견 - 현지 교사연수 - 교구·교재 지원
한배, 한우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수업료 지원 -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 설치 및 학급증설(베트남) - 부모교육 지원 및 활성화 -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가정의 편견 해소 교육 - 한국어 교육 지원 	한인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개조나 타 기관 건물 이용으로 유아를 위한 환경조성 어려움 (실내·외 놀이 공간 부족) - 다문화가정 및 한인 가정의 상호이해 필요 - 일부 한배, 한우가정 유아 학습 발달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지원 - 교직 경력 인정 - 현지 교사 연수 - 교구·교재 지원
고려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교육의 기회 확대 - 한국어 가능 교사 파견 - 한국어 수업 및 한국 관련 문화 행사 활성화 	고려인 취원 육아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조부모 가정의 정서, 학습 지원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교육 교재지원 - 수업료지원 - 현지교사 임용 및 연수

가.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 교육 기회의 확대

1) 저소득 재외동포 가정에 교육비 지원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한 한배가정 및 한우가정의 영유아들이 한국학교병설유치원 및 한인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가정에 한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나 장래 국내거주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인도적인 차원은 물론 미래인적자원투자의 차원에서도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및 비영리 한인유치원 증설

2010년부터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모든 국가의 한국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주로 주재원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국학교(병설유치원)가 설치되어 있어 장기 거주한국가정 및 한배가정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병설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베트남 하노이의 경우는 아직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준비단계이며, 호치민의 경우는 워낙 먼 거리로 인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더라도 유아들이 등하원에 장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분한 수요가 있는 거주 지역에 국내대학,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 한인유치원 설치를 장려하고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이 지역 내 거점유치원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베트남에 비하여 취학 전 기관 수가 매우 부족하므로 한국교육원 내의 한인유치원이 한우가정 유아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학급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나. 재외동포 영유아 이용 육아지원기관의 질 향상

1) 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시설환경 개선 지원

대부분의 재외동포 가정, 특히 베트남 거주한국가정과 한배가정의 경우 육아지원기관의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 베트남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의 경우 실내외 공간은 충분하나, 실외놀이시설, 교구장 등 제반 시설설비가 국내기관에 비하여 아예 없거나 최소한을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한인유치원들은 시설환경의 편차가 심하며 공통적으로 매우 공간이 협소하다. 대부분 가정집을 개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실외활동 시간 없이 2-3층에 위치한 좁은 교실 내에서 온종일 지내는 경우가 일상적이다(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니면 건물구매 불가). 병설유치원의 경우, 2010년도부터 설치의무화로 아직 필요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적합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한인유치원의 경우는 인근의 학교시설,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일정 시간동안 실외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파악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재 보급시스템 구축

재외동포 가정 및 육아지원기관에서 우리나라로부터 가장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국내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재이다. 높은 운송료로 인하여 대부분 방문 귀국시 구매하거나 지인들이 간헐적으로 전달해주므로 국내에서 개발, 제작된 양질의 최신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육아정책연구소, 재외동포재단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여 다양한 우수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유아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교구재 목록을 파악, 업데이트하여 정기적으로 무상, 또는 실비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지 및 신청, 운송을 담당하는 보급시스템을 구축한다.

3) 파견한인교사의 안정적 수급 및 현지인 교사 연수와 활용

아마도 재외동포 영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인 정규교사일 것이다. 급여 및 경력인정 등의 이유로 한국학교내 병설유치원에 파견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2-3년 단위로 교사가 귀국하므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한인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먼저, 장기적인 교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파견한인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근무기간 연장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교육수준을 갖춘 현지인 가운데 영유아교육관련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현지인 교사 선발 및 연수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Gia Lai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베트남어를 제 2외국어로 하는 유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 교사연수를 제공한다. 이는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를 위한 방안이나, 한국학교의 한베가정 자녀와 장기거주한국가정 자녀를 위하여 교사연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베, 한우가정의 어머니를 이중언어도우미로 활용하고 일반 한국가정의 부모 대상으로 학급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교육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다.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1) 시설 개방 및 지역사회학교의 기능 강화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 거주 지역에서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로서 기능하도록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 학교도서관의 연중 개방, 이중언어 발달 지원, 각종 부모교육 실시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현재에도 이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자녀 생애주기(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좋은 부모 교육' 및 '자녀 정서·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취학 전 자녀의 유치원, 보육시설 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기관생활 적응 지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 재외동포 가정부모 대상 이중언어교육 제공 확대

아울러 한배, 한우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 발달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에 모국어인 한글 및 현지어 습득 지원을 위하여 이중 언어 지도사 배치를 확대하여 '언어교실' 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 파견 봉사대학생 및 현지인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이중 언어 강사를 확보한다.

3) 기관장의 리더십 강화 및 교사 인센티브 제공

현재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정규교사들이 지역사회의 한국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재외동포사회의 진정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기관장의 리더십과 사명감이 매우 중요하다.

4) 민간한글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사이공한글학교,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세종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과 달리, 이러한 한글학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며 우리정부로부터 매우 낮은 수준의 재정지원

을 받고 있다. 사이공한글학교는 접근성 및 비용문제로 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한베가정의 영유아가 주로 주말에 만나질 정도 이용하는데, 시설환경, 교육프로그램, 교사확보 등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양질의 한글교육과 영유아지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외한글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마련하여 한베가정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함께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재외동포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1) 공공기관(도서관 등)에 영유아용 한국도서 비치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가정 모두가 영유아용 한국도서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국내 유아용 도서출판사 및 시립도서관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의 '도서벽지에 책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유아용도서가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은 물론 재외동포 영유아 거주지의 현지도서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미 읽은 책을 교환, 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다.

2) 재외동포 영유아가정을 위한 여가활동시설 정보 제공

베트남 재외동포 아버지의 경우, 국내생활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에 자녀와 함께 할 공원, 박물관, 놀이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는 한인기업인, 한인사회단체 등의 문화시설건립을 위한 기부를 독려한다. 동시에 현지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재외동포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 정보를 구하여 안내소책자를 제작,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에게 제공한다.

3)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별로 재외동포 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한인기업인, 한인사회단체, 교회 등 종교단체, 한글교육 종사자, 보육 유경험자 등을 활용해 '보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보육도우미, 시간제 보육(탁아)시설 등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별 한인단체나 여성단체 등이 주도하고 종교단체, 복지단체, 혹은 NGO 등의 협조를 통해 '한인육아나눔봉사단(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육아

나눔봉사단은 재외동포 영유아 보육, 놀이지도, 자녀 학습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기획한다. 국내대학과 협의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해외자원봉사 인증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육아친화적 가정(부모)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체제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재단, 한인기업, 한인사회단체 등이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시지원체제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해외 한인기업, 한인사회단체,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 컨설팅·교육 등 원스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 한국 여성가족부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가족친화기업의 인증기준·절차 등 제도를 적용하여, 기업의 보육인증 참여 활성화 도모한다. 현지 진출 포스코·삼성·LG·현대 등 기업, 한인사회 단체(NGO) 등이 협력하여 한인가족과 한인여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재외동포 한부모 가족,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가정자녀에 대한 국내 지원 프로그램(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재단 등)을 적극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가정은 조손가정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한다.

5) 재외동포 포털사이트 구축 및 지속적 관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가정의 관심분야인 육아상담 및 교육, 가정고충처리 등 법률상담, 취학과 취업 알선, 문화교류 등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신속히 정보를 보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재외동포 가정을 위해 인쇄매체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범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는 각종 재외동포 관련 사이트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하여 재외동포를 비롯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분야별 사이트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재외동포 포털사이트(예, Korean.net의 강화)를 구축하여 대부분의 관련 민관 사이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마. 재외동포 영유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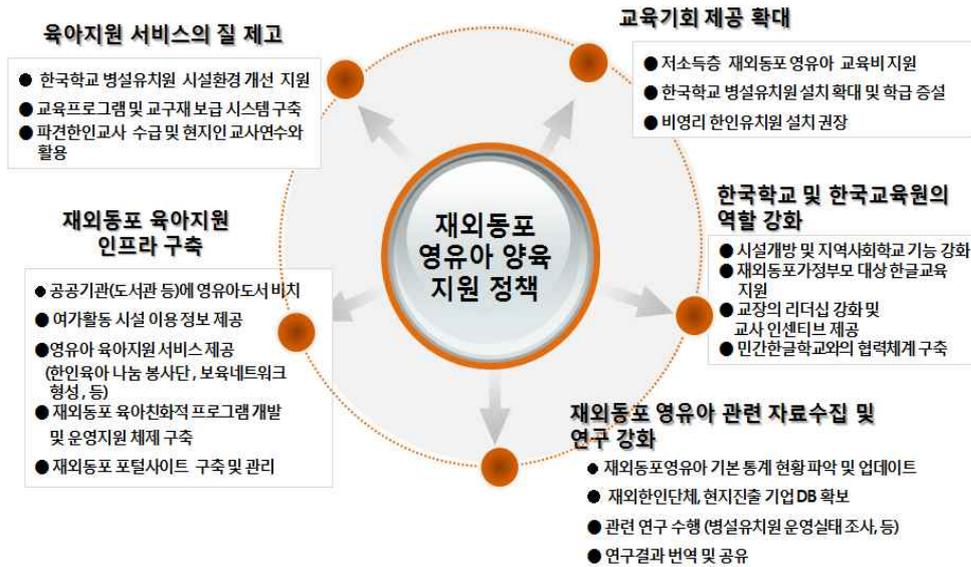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영유아와 가정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현지 한인 여성단체, 사회단체, 현지진출 한인 기업 등 사회적, 경제적 자원 및 네트워크에 관한 리스트나 DB를 확보하여, 이를 정책개발과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15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병설유치원 운영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며,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중앙아시아국가에 거주하는 다수의 고려인가정영유아와 부모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병설유치원과 한인유치원 등의 교육목표, 내용과 방법, 교육활동과 상호작용 등이 어떻게 재외동포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기여하는지, 특히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재외동포의 경우 '에머이(베트남 가정부를 지칭) 문화는 베트남사람은 한국인의 지시에 따르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열등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재외동포 영유아에게 어린 시기부터 다문화교육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일회적인 연구로 끝나지 않도록,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계에 공개하여 후속연구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요약, 현지어로 번역하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학계 전문가 및 현지의 담당공무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연구과정에 재외 육아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과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재외동포 자녀 양육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양육 실태와 문제점, 부모의 가치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연구주제를 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지원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I-3-1] 재외동포 가정 영유아 육아지원 방안

재외동포 가정과의 면담에 의하면, 특히 한배가정과 한우가정의 영유아가 ‘나도 한국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는 한국인 중심의 기관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최소한 우리나라 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받을 기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장기체류 한국가정, 한배, 한우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고려인 가정의 3, 4세대처럼 우리글과 문화에 소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일규(2007). 해외 한민족 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증장기 대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곽효경·옥티투항(2008). 한국과 베트남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 비교 분석. 교육연구논총, 29(2), 141-166.
- 권희영·Han, V.·반병률(2001). 우즈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학(2004).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체성 및 한민족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원(2003).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이해교육-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주(2010). 재외동포 아동학습자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21(1), 61-85.
- 김태기(2007).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윤진(2007). 동경지역 재일동포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제4차 Korean 교육 연구 국제학술회의: 해외 거주 한국인 및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방향. (1), 37-51.
- 류재택(2002). 한국어교재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체제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상희(2003). 우즈베키스탄 한인아동의 언어와 생활. 재외동포재단.
- 베트남 통계청(2011). 베트남 인구센서스.
- 베트남 통계연감(2011). 베트남 경제발전통계.
- 베트남 교육 훈련부(2011). 베트남 유아교육 실태조사(Annual statistics of Early Childhood period).

- 베트남 인구 및 가족계획청(2011). Annual statistic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2011). Vietnam <http://www.moet.gov.vn>
- 베트남 교육부(2006). 베트남 유아교육 60년사(Sixty Year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Vietnam).
- _____ (2011). 베트남 교육통계.
- 서문희·이윤진·김진경·최윤경·이정원·박금혜(2010).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원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설경옥·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 1-9.
- 신숙정(2011). 제 3문화 아이들의 삶에 대한 연구: 베트남 미인가 한인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순실(2002). 귀국학생 교육의 실태 분석 및 귀국 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설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숙·Khan, V. S.(2007). 우즈베키스탄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옥선화·백희영(1999). 재미동포 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 재외동포재단.
- 우영란(2008). 중국의 한겨레. 한국학술정보(주).
- 유성상·Bihn, N.K.(2007). 베트남의 교육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윤인진(2006). 사회조사방법을 통한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16, 5-44.
- 윤인진(2010). 재외동포의 현황과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49-77.
- 이석희·이찬희·윤종혁·정광희·유성상·신효숙·정기오·김선태·정영근·이영자·박영은(2007). 아시아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이기숙·정미라·김현정(2008).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28(3), 151-171.
- 이계선(2010). 한국과 베트남 여성 노동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 베트남 국립 하노이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광규(2008). 재외동포사회의 현황과 정책과제, 교포정책개발과 재외동포재단 비
전설정연구: 교포정책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 이순형(1996).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가치관의 관계: 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 30, 545-573.
- 이은주(2006). 부모의 양육가치와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상(2007).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 청소년 현황과 전망. 한민족 청소년과 글
로벌 네트워크. pp. 139-184. 10월 30일 서울: 외교센터 리더스 클럽.
- 장원창(2006).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제도와 교과서 제도. 교과서연구, 47, 60-63.
- 정명숙(2010). 재외동포 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4), 295-317.
- 정진곤 외(1997). 해외교포 및 재외국민교육 강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 재외동포재단(2006). 연차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09a). 유럽·대양주·중남미 지역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 재외동포재단.
- _____ (2009b). CIS 지역과 중국 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한글학교 교육현
황 조사 결과 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0a).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0b). 2010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0c). 한글학교 현황.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0d).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재외동포재단
- _____ (2011). 재외동포 현황. 재외동포재단.
- 조태린(2009).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창립 50
주년 기념 제 5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11월 14일 서울: 연세대학교.
- 조형숙(2007). 한국인 부모의 이중언어 교육관-영어권 국가에 일시 체류하는 부
모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371-398.
- 진동섭·윤여탁·모경환·홍창남(2006). 재외동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비
교교육연구, 16(2), 1-31.

- 정명숙(2010). 재외동포 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4), 295-317.
- 최선영(2010). 재외 한국학교 한국어 학습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싱가포르 한국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한우(2000).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과 고려인 집단의 정세성 문제. 전남대학교 개교 20주년 국제학술회의 21세기 해외 한민족공동체 발전 전략. pp. 137-157. 6월 전남대학교.
- 해외교포문제연구소(2008). 미래 재외동포정책 주요영역 및 추진과제, 교포정책 개발과 재외동포재단 비전설정연구: 교포정책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 CIA Bank Factbook(2011). Uzbekistan Economy 2011, Retrieved from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BoOt6HXNcBoJ:www.theodora.com/wfbcurrent/uzbekistan/uzbekistan_economy.html+uzbekistan+ecocomy&cd=5&hl=ko&ct=clnk&gl=uk
- EFA(2000). Uzbekistan, Country Reports.
- Fazylov, D. & Smirnova, G.(2008).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National Report of Uzbekistan, UNESCO National Report.
- UNESCO(2002). Institute for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tats.uisunesco.org>
- UNESCO(2003). Uzbekistan. Country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acu.or.jp/litdbase/pub/pdf_cr05/03DB_Uzbekistan.pdf
- UNESCO(2004).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South-East Asia: working for access, quality and inclusion in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Viet Nam, UNESCO, Bangkok.
- UNESCO(2006). Uzbekista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CCE) programmes, Retrieved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72/147253e.pdf>
- UNESCO(2009). Education financial Planning in Asia: Implementing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 Vietnam, UNESCO,

Bangkok.

UNESCO(2010).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Regional Report: Asia and the Pacific, UNESCO, Hong Kong.

UNESCO(2011).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UNESCO.

부 록

- 부록 1.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베트남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조사⁵⁾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1년 기본과제로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영유아 부모의 양육 가치관과 실태를 알아보고, 재외동포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I. 응답자 정보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전화번호			

1.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1-1. 나이	만	세	
1-2. 국적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
1-3. 출생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

5)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개인용 설문지는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고려인들을 위하여 문항이 추가, 수정되었음

1-4. 베트남 거주 기간	현재 ()년째 거주하고 있음
1-5.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초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 중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③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교 중퇴 <input type="checkbox"/> ⑤ 중등전문교육 이수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⑦ 대학원 졸업
1-6. 현재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②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③ 자영업(개인사업, 음식점 등) <input type="checkbox"/> ④ 농업(임업, 축산업) <input type="checkbox"/> ⑤ 전문직 (의사, 엔지니어) <input type="checkbox"/> ⑥ 교사 <input type="checkbox"/> ⑦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⑧ 학생 <input type="checkbox"/> ⑨ 기업체 근무자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
1-7. 월평균 가구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500-\$999 <input type="checkbox"/> ② \$1,000-\$1,499 <input type="checkbox"/> ③ \$1,500-\$1,999 <input type="checkbox"/> ④ \$2,000-\$3,000 <input type="checkbox"/> ⑤ \$3,000-\$5,000 <input type="checkbox"/> ⑥ \$5,000이상
1-8. 결혼 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초혼 <input type="checkbox"/> ② 재혼 <input type="checkbox"/> ③ 이혼 <input type="checkbox"/> ④ 별거 <input type="checkbox"/> ⑤ 미혼/동거

2. 귀하의 가족구성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구주가 응답할 경우에는 「가구주」 라고 적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은 실제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2-1. 귀하의 가족 유형은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에 √표 해주십시오.

2-1-1.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	총 () 명
2-1-2. 가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부부 +자녀 <input type="checkbox"/> ② 조부모 + 부부 +자녀 <input type="checkbox"/> ③ 한부모 +자녀 <input type="checkbox"/> ④ 한조부모 +자녀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적어주세요:)
2-1-3. 부부 출신민족별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한국인 <input type="checkbox"/> ②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는 베트남인 <input type="checkbox"/> ③ 아버지는 베트남인, 어머니는 한국인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적어주세요:)

2-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 12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만 0세로 적어주세요. 12개월-24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만 1세입니다.

■ 가구주(가장)와의 관계: 가구주,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1		①남 ②여	만 ()세
2		①남 ②여	만 ()세
3		①남 ②여	만 ()세
4		①남 ②여	만 ()세
5		①남 ②여	만 ()세
6		①남 ②여	만 ()세
7		①남 ②여	만 ()세

2-3. 취학 전 영유아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 목	자녀 1 (가장 어린자녀)	자녀 2	자녀 3
2-3-1. 자녀의 국적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
2-3-2. 자녀의 베트남 거주기간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2-3-3. 귀하의 자녀는 한국을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방문 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방문 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방문 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2-3-4. 귀하의 자녀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6개월이상 거주)	【거주 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거주 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거주 경험】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년)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2-3-5. 누가 아이를 주로 키우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모 <input type="checkbox"/> ② 부 <input type="checkbox"/> ③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④ 조부모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적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모 <input type="checkbox"/> ② 부 <input type="checkbox"/> ③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④ 조부모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적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모 <input type="checkbox"/> ② 부 <input type="checkbox"/> ③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④ 조부모의 친척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적어주세요:)

II. 부모님과 자녀의 언어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부모님과 취학 전 자녀의 일상적인 언어사용과 한국어 사용 수준은 어떠합니까?

3-1.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어 <input type="checkbox"/> ③ 영어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언어(적어주세요:)		
	자녀 1 (제일 어린 자녀)	자녀 2	자녀 3
3-2. 자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어 <input type="checkbox"/> ③ 영어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언어 (적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어 <input type="checkbox"/> ③ 영어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언어 (적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② 베트남어 <input type="checkbox"/> ③ 영어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언어 (적어주세요:)
3-3. 자녀가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② 잘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어려움이있음 <input type="checkbox"/> ⑤ 전혀 못함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② 잘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어려움이있음 <input type="checkbox"/> ⑤ 전혀 못함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② 잘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어려움이있음 <input type="checkbox"/> ⑤ 전혀 못함
	3-4. 자녀가 「④ 약간 어려움이 있음」 과 「⑤ 전혀 못함」 에 응답한 경우, 자녀가 베트남어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염려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염려함 <input type="checkbox"/> ③ 자라면 괜찮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염려함		
3-5. 자녀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② 잘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어려움이있음 <input type="checkbox"/> ⑤ 전혀 못함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② 잘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어려움이있음 <input type="checkbox"/> ⑤ 전혀 못함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② 잘하는 편임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어려움이있음 <input type="checkbox"/> ⑤ 전혀 못함
	3-6. 자녀가 「④ 약간 어려움이 있음」 과 「⑤ 전혀 못함」 에 응답한 경우, 자녀가 한국어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염려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염려함 <input type="checkbox"/> ③ 자라면 괜찮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염려함		

Ⅲ. 부모님의 자녀 양육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다음은 자녀 양육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서 제시된 보기 중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더욱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주십시오.

항 목	보 기
4-1.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input type="checkbox"/> ①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4-2. 엄마에 의한 직접 양육의 중요성	<input type="checkbox"/> ①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 엄마가 항상 곁에 없더라도 애정을 갖고 키우면 크게 상관 없다.
4-3. 부모의 영향	<input type="checkbox"/> ① 육아에 있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 <input type="checkbox"/> ② 육아에 있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
4-4. 아이 의사 존중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아이의 교육은 부모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이의 교육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4-5. 훈육방법	<input type="checkbox"/> ① 버릇없이 굴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야단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 버릇없이 굴 때에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로 타이르는 것이 좋다.
4-6. 아이의 능력 개발	<input type="checkbox"/> ① 아이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후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4-7. 부모의 양육기관 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현지에 살고 있으므로 베트남 유치원/탁아소에 보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한국인이므로 한국학교 유치원, 한인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민족 상관없이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탁아소에 보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④ 국적에 상관없이 유치원/탁아소 프로그램이 좋은 곳을 찾아 보내고 있다.

5. 자녀 양육에서 강조될 수 있는 두 종류의 항목 중에서 자녀에게 보다 더 강조하여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번호를 선택하여 □안에 √ 표 해 주십시오.

5-1.	<input type="checkbox"/> ①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
5-2.	<input type="checkbox"/> ①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input type="checkbox"/> ② 자기 자신에 대해 존중감
5-3.	<input type="checkbox"/> ①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input type="checkbox"/> ② 자기 일에 대한 성취

IV. 부모님의 자녀 양육 실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약간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6-1. 아이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2. 아이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6-3.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6-4. 아이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6-5.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6-6. 아이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6-7.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7.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약간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7-1. 전반적인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7-2.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7-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7-4.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5. 부모와 함께 야외 체험활동(도서관, 공원, 박물관 가기 등)을 할 곳이 마땅치 않다.	①	②	③	④

8. 자녀를 양육할 때 실제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약간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8-1.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주로 말로 타이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2.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 시간이 걸려도 혼자 하도록 둔다.	①	②	③	④
8-3. 집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밖에서 나가 노는 것을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8-4.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주 주의시킨다.	①	②	③	④
8-5. 어른에게 인사하기를 강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9. 자녀와 함께 하는 실외 체험활동(예. 도서관, 공원, 박물관 가기 등)은 한 달 평균 몇 회 정도입니까?

- ① 거의 없음 ② 1회 ~ 2회
 ③ 3회 ~ 4회 ④ 5회 ~ 6회

10.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로서 귀하의 역할이 자녀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에 √ 표 해 주십시오.

매우 충분함	충분한 편임	충분하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음	부족한 편임	매우 부족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④번과 ⑤번에 답한 경우 <u>10-1번</u>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10-1. 어떤 점에서 자신의 부모 역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	지식, 학업지도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14.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 의사와는 무관하게 귀하가 가장 원하는 직업에 √ 표 해주십시오.

- | | | |
|--------------------------|--------------------------|-------------------------|
| 아들 | 딸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①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② 자영업 (소규모 가게 주인)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③ 판매·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④ 기능·숙련공 (운전기사)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⑤ 사무·기술직 (일반회사사무직, 교사)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⑥ 경영·관리직 (교장, 기업체 고위관리)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⑦ 전문직 (대학교수, 의사, 연구원)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⑧ 전업주부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⑨ 종교인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⑩ 예술가 |

15. 아들과 딸인 자녀의 경우에 자녀를 어느 수준까지 교육시키고 싶으십니까? 원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 | | | |
|--------------------------|--------------------------|------------|
| 아들 | 딸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① 고등학교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② 중등전문교육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③ 대학교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④ 대학원 석사학위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⑤ 대학원 박사학위 |

VI.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대해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되는 숫자에 √ 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약간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16-1.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16-2. 아버지는 자녀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④
16-3. 아버지는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16-4. 아버지는 아이가 목욕을 같이 하거나, 아이의 식사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6-5.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17. 아버지가 취학 전 자녀의 육아 및 자녀 교육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식사 도와 주기,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등)은 하루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분 이내
- ② 30분~1시간
- ③ 1시간~1시간 30분
- ④ 1시간 30분~2시간
- ⑤ 2시간~2시간 30분
- ⑥ 2시간 30분~3시간
- ⑦ 3시간 이상

18.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는 일주일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없음
- ② 1회 ~ 2회
- ③ 3회 ~ 4회
- ④ 5회 ~ 6회
- ⑤ 매일 같이 먹음

19.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한국 생활과 비교하여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어떻습니까?

- ① 거의 비슷함
- ② 한국에 비해 베트남에서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이 있음
- ③ 한국에 있을 때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이 있었음
- ④ 거주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음

VII.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 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연령이 높은 영유아 자녀를 기준으로 답해주시시오.

20. 귀하의 자녀는 유치원이나 탁아시설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현재 다니고 있음 → (21~26번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② 과거에 다녔으나 현재는 다니지 않음
- ③ 현재 다니지 않으나 향후 보낼 예정임
- ④ 현재 다니지 않고 향후에도 보내지 않을 것임 → (27, 28번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21.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보육(탁아)시설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현지 유치원 및 현지 보육(탁아)시설
- ② 한국학교 내 유치원
- ③ 사립 한인 유치원
- ④ 국제학교 내 유치원

22. 자녀를 유치원이나 보육(탁아)시설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의 직장 때문에
- ②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
- ③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 ④ 자녀의 인지발달을 위해서
- ⑤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 ⑥ 남들이 모두 보내니까

23. 자녀가 위의 유치원이나 보육(탁아)시설을 처음 이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생후 0-12개월
- ② 12-24개월
- ③ 25-36개월
- ④ 36-48개월
- ⑤ 만 4세 이후 5세미만
- ⑥ 만 5세 이후

24. 귀하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탁아)시설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시간
- ② 4~5시간
- ③ 5~6시간
- ④ 7-8시간
- ⑤ 9시간 이상

25.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탁아)시설에 매월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① \$100 미만
- ② \$100-\$200
- ③ \$200-\$300
- ④ \$300 이상

26.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탁아)시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약간 그리함	④ 매우 그리함
26-1.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시설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6-2. 기관 선생님들의 전반적 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26-3. 기관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27. 귀하가 자녀를 유치원이나 탁아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직 어려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 ② 비용 부담이 돼서
- ③ 주변에 보낼 만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④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 ⑤ 부 또는 모가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33. 유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33-1번 문항에 대해 주십시오.)
- ② 없음 → (34번 문항에 대해 주십시오.)

33-1.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어떤 내용 및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복수응답가능)

부모 교육 내용	부모 교육 방법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 학습능력 향상 <input type="checkbox"/> ② 한국어 공부 <input type="checkbox"/> ③ 요리 실습 <input type="checkbox"/> ④ 자녀와 의사소통하기 <input type="checkbox"/> ⑤ 행복한 부부 되기 <input type="checkbox"/> ⑥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① 직접 강사 강의 <input type="checkbox"/> ② 책자 배부 <input type="checkbox"/> ③ 온라인(인터넷) 강의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

IX. 정체성 및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34. 귀하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 ① 조국 또는 모국
- ② 남편의 나라
- ③ 외국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
- ④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나라
- ⑤ 싫어하는 나라
- ⑥ 관심이 없는 나라
- ⑦ 내가 언어를 배우는 나라
- ⑧ 모름

35. 귀하의 자녀가 주로 어느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 ① 한국인
- ② 베트남인
- ③ 한국인과 베트남인 둘 다
- ④ 아이의 선택에 맡기겠다.

36. 귀하의 자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학교(상설 한글학교/주말 한글 학교)에 다닙니까?

- ① 예 (적어주세요: 주 회 참여/ 1회당 시간 참여)
- ② 아니오

37. 귀하의 자녀는 한글학교 이외에 단체(한인회, 한베다문화가족협회 등)나 종교단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추석행사)

- ① 예 (어떤 활동이었던지 적어주세요:)
- ② 아니오

38. 아래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되는 □에 √표로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별로 그렇지 않음	③ 약간 포함	④ 매우 포함
38-1. 내가 한국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8-2. 나는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8-3. 내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38-4. 나의 자녀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38-5. 자녀가 한국어를 배울 경우에 자녀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X. 영유아 육아 및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39. 직장여성의 경우, 양육은 주로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아버지 (경제활동 중단) ② 어머니(경제활동 중단)
- ③ 자녀의 조부모 ④ 친인척(고모, 이모 등)
- ⑤ 교육·보육시설(유치원, 탁아시설) ⑥ 가정보육모
- ⑦ 기타 ()

40.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탁아)시설 이외에서 받는 사교육(예: 영어, 피아노)이 있습니까?

- ① 있음 (사교육 내용을 적어주세요:)
- ② 없음

41. 자녀에게 모국어, 외국어, 수리, 예능 등을 처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항목	① 만 2세 이전	② 만2세	③ 만3세	④ 만4세	⑤ 만5세	⑥ 초등학교 취학이후
41-1. 현지어(베트남어)	①	②	③	④	⑤	⑥
41-2. 한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41-3. 외국어(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41-4. 수리(수학적 개념, 연산)	①	②	③	④	⑤	⑥
41-5. 예능(음악, 미술, 체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2.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외국에서 가르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42-1번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② 없음 → (43번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42-1. 어느 나라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 ① 한국
- ② 베트남
- ③ 북미(미국, 캐나다 등)
- ④ 유럽
- ⑤ 기타(적어주세요:)

43. 3년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43-1번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② 없음 → (44번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43-1.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 ② 돈을 더 벌기 위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 ③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 ④ 다른 가족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 ⑤ 기타(적어주세요:)

XI. 한국 정부의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44. 귀하의 취학 전 자녀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44-1번 문항에 대해 주십시오.)
 ② 없음

44-1. 한국 정부에서 받은 지원의 종류 에 모두 V표 해주시고, 각 지원에 해당하는 만족도에 V표 해주십시오.

지원의 종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만족함	아주 만족함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어 교육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② 한국 문화 교육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③ 교육용 교재·교구 수혜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④ 한국 전통적 행사 참여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①	②	③	④	⑤

연구보고 2011-17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83-7 93590